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영덕 옛이야기 모음집 <동고동락>

영덕  
옛이야기와  
어르신들의  
이야기

동고동락 3

영덕

옛이야기와

어르신들의

이야기

동고동락

3

1	병곡면 덕천리	엄밭들의 노래 덕천리, 엄밭들의 노래 인터뷰	6	6	영덕읍 구미리	핑크 할매 클럽 인터뷰	136
2	창수면 신기1리	물같이 바람같이 장육사 가는길 인터뷰	32	7	강구면 강구리	강구항 속에 살아있는 삶의 현장 이야기 강구항 통신 인터뷰	164
3	영해면 원구1리	War of the Dragons 원구 용당샘과 당산나무 인터뷰	60	8	달산면 덕산2리	니들, 덕산 손두부 맛 다 알지? 인터뷰 거미와 나와의 인연	192
4	축산면 경정2리	차유마을을 만들어 온 오색 이야기 차유마을에서 인터뷰	84	9	남정면 우곡리	할미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216
5	지품면 용덕1리	구룡기九龍基와 용덕분교 이야기 물소리를 듣는다 인터뷰	112	10	2024년 고독사 및 사회적으로립가구 사회적관계망 형성 연계프로그램 어르신들의 인생이야기	내 고향 갈미봉에 소쩍새 울면 강 같은 평화, 바다 같은 사랑으로	249 263

병곡면 덕천리

“아버지 오신다. 버득<sup>1</sup> 일어나라.”

엄마는 팔다리를 양옆으로 크게 벌린 채 자고있는 상호의 엉덩이를 툭툭 치며 깨웠습니다.

상호는 일어나기 싫어 머리끝까지 이불을 당겨 올렸습니다. 엄마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이불 끝을 발로 꼭 눌렀습니다.

이불이 다시 아래로 밀렸습니다.

상호는 새벽부터 일어나는 것이 짜증 났습니다.

한쪽 눈을 쬐끔 떠보니 푸른 바다에서 뽀족하게 해가 머리를 내미는 것이 보였습니다.

바다는 부지런히 붉은 태양을 하늘로 밀어올리는

1 버득

퍼득의 방언. 어떤 생각이 갑자기 아주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모양.

중입니다.

다닥다닥 붙어 있는 초가지붕마다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벌써 오나?”

상호는 문지방을 기어 넘으며 투덜거렸습니다.

“뜨거운 불 앞에서 고생하시다 며칠 만에 오는 아버진데 왜 그런 말을 하노.”

엄마는 등 푸른 고등어에 소금을 착 뿌려 화로<sup>1</sup>에 굽기 시작했습니다.

상호는 익기 시작하는 고등어를 보고 입맛을 껌뻑 다시며 우물에서 길어온 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염밭들 가마솥에 타닥타닥 소금이 튀어오를 때면 아버지가 오시는 날입니다. 아버지는 염전 책임자입니다. 가마솥에 소금 굽는 일을 하시지요. 염밭들에는 아이들 열 명이 들어가 목욕해도 될 만큼 커다란 가마솥이 세 개나 걸려 있습니다. 아버지는 간물<sup>2</sup>넣은 가마솥에 불을 지피고 꺼지지 않도록 밤새 아궁이를 지키십니다.

아버지는 새로 만든 소금을 대바구니에 가득 담아 오셨습니다. 엄마는 금이 간 장독을 첩다리<sup>3</sup>에 올려놓고

1 화로

솥을 담아 놓는 그릇. 주로 불씨를 보존하거나 난방을 위하여 쓴다.

2 간물

소금기가 섞인 물.

3 첩다리

첩로 받거나 거를 때에 그릇 따위에 걸쳐 그 위에 체를 올려 놓는데 쓰는 기구.



소금을 부었습니다. 갈라진 향아리 틈 사이로 간수<sup>1</sup>빠진 소금이 맛있기 때문입니다.

상호네 집에 흔한 것이 소금이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귀한 재료였습니다. 염밭들 소금은 빛깔과 맛이 좋아 비싼 값에 팔렸지요. 엄마는 용식이가 오줌싼 옷을 들들 말아주고 키<sup>2</sup>를 쓰고 올 때마다 인심 좋게 소금을 퍼 주곤 했습니다.

용식이는 배포가 큰 건지 녀살이 좋은 건지 가장 친한 친구 집에 소금 얻으러 오면서도 눈치를 보지 않았습

니다. 엄마는 다른 엄마들처럼 빗자루로 흔쫓내는 그런 야박한 행동을 하지 않았지요. 용식이가 우리집에만 오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용식아, 소금 떨어졌더나?”

사흘이 멀다 하고 찾아오는 용식에게 엄마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러다 너무 자주 온다 싶으면 싫은 소리 한다는 것이 “너 엄마 요즘 소금 팔러 다니더나?” 였습니다.

용식이네는 여덟 식구와 소 한마리가 한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용식이는 매일 소를 풀밭에 데려가 꼴 먹이는 일을 했습니다. 용식이네 집에서 소는 재산이자 식구나 마찬가지로였어요.

소가 배앓이를 하거나 기운이 없으면 용식이가 대신

1 간수  
습기가 찬 소금에서 저절로 흐르는 짜고 쓴 물, 두부를 만들 때 쓴다.

2 키  
곡식 따위를 까볼러 축정이나 티끌을 골라내는 도구.

혼이 났습니다. 용식이이는 풀 베고 꿀 먹이는 일이 학교 공부보다 중요해서 수업 중에도 일어나 집에 갔습니다.

학생 수가 많아 교실은 늘 북적거렸습니다. 여름이면 땀 냄새와 몸에서 나는 꼬릿한 냄새가 섞여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상호는 야외에서 수업하는 날이 정말 좋았습니다. 교실이 부족해 송천 다리 밑에서 칠십 명이 수업할 때는 대여섯 명이 빠져도 아는 이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눈치 빠른 학생들은 출석 부르자마자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먼저 빠져나가야 들키지 않으니까요. 덩치 큰 용식이이는 눈을 부릅뜨며 도망가는 학생들을 잡아다 놓고 대신 빠져나갔습니다.

용식이를 따라 상호가 나가면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니다.

용식이를 이길 수 있는 친구는 없었거든요.

게다가 둘은 단짝이잖아요.

“용식아, 같이 가.”

“너 수업 빠지면 혼난다 아이가.”

“엄마가 어찌 알것노. 선생님도 모르는데.”

“엄마들은 모르는 게 없더라.”

상호는 눈을 찡긐 하며 눈독을 가로질러 달렸습니다.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엄발들을 내려다 보는 위치에서 옆으로 자라는 소나무 가지 위에 올라앉았습니다. 소나무는 상호처럼 눕는 걸 좋아하나 봅니다. 누워서 자라니까요.

게을러 누운 소나무는 마을에 큰일이 일어날 때마다 우우우 하는 울음소리를 낸답니다.

임금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울었고 기미년



만세운동이 있었을 때도 며칠 동안 울었다고 합니다.  
큰 태풍이 올 때도 울어주어 마을은 재해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용식이는 게으른 소나무를 보고 옆으로 자라는  
나무라고 불렀습니다.

“모두 위로 자랄 때 옆으로 크려면 용기가 필요해.”

용식이가 말하는 건 정말 맞는 말인 것 같고 멋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용식이는 나무에 누워서 지나가는 구름을  
바라봅니다.

“상호야, 난 네가 부럽다.”

세상 부러울 게 없을 만큼 당당하고 씩씩한 용식의  
말이 믿기지 않아 상호가 돌아보았습니다.

나뭇가지에 걸터앉은 상호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내가? 왜?”

“바다는 마르지 않을 테니 저 염밭들에서 소금 안나올  
일은 없을 거잖아. 소금이 계속 나오면 너희 아버지는 널  
큰 도시로 공부시키러 보낼테고.”

“도시로 가기 싫어.”

용식이 의아한 듯 상호를 돌아보았습니다.

“무서워.”

“겁쟁이. 난 빨리 도시로 가서 성공하고 싶어. 서울에  
가면 높은 건물도 있고 전차가 다닌대.”

“칭, 전차는 봐서 뭐해”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걸 보고 싶어.”

용식이가 소나무에 거꾸로 매달리며 말했습니다.

용식이는 결심한 듯 자세를 바로잡고 일어섰습니다.  
“상호야, 꿀 먹이는데 이 사나이 운명을 걸어서야  
되겠니.”

땃국이 얼룩덜룩한 용식의 얼굴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상호는 친구인 용식이가 큰형처럼 보였습니다.

“상호야, 저기를 봐.”

용식이 염밭들 너머를 가리켰습니다.

“뭐가 보여?”

“바다.”

“매일 보는 바다를 뭐하러 봐. 그 너머를 봐야지.”

“바다 너머에 뭐가 있어?”

“저 바다로 가면 일본 땅이 나오고 그 너머에 또 다른  
땅이 있대.”

“정말?”

상호는 나무에서 일어나 먼 바다를 보았습니다. 흰  
구름만 몽실거릴 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니다.

“그곳에 가볼 거야. 파란 눈의 선교사 선생님이  
그곳에서 왔다고 했어.”

상호는 눈동자를 반짝거리며 활짝 웃고 있는 용식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지금은 소가 배고플 시간이야”

“그래. 지금은 소 몰러 가자.”

용식이는 나무에서 훌쩍 뛰어내리며 바지를 툭툭  
털었습니다. 용식과 상호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아기  
무덤처럼 불룩하게 만들어 놓은 진흙더미의 염밭들을  
달렸습니다.

마른 진흙은 소의 썩레질<sup>1</sup> 몇 번으로 가루가 되어  
바닥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단단한 바닥 위에 긴 박대<sup>2</sup>로 바닷물을 퍼올려  
담으면 다음 일은 햇빛이 합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소금결정체가 만들어지면 모아서 가마솥에 부어  
불순물<sup>3</sup>을 없애고 깨끗한 소금만 모읍니다. 하얀 소금이  
반짝거릴 때면 보석을 박아놓은 듯 빛이 납니다.

용식은 한곳에 모아 놓은 소금을 한 꼬집<sup>4</sup> 집어 입에  
넣어봅니다.

“짜다.”

“그럼 소금이 짜지.”

“눈물이 짠 것을 넌 아니?”

용식은 싱글 웃으며 겁도 없이 우리 집 앞 골목을  
향해 달려갑니다. 열려있는 방문으로 후령한<sup>5</sup> 적삼<sup>6</sup>에  
얇은 잠방이<sup>7</sup>를 입고 잠든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1 썩레질

썩레로 논바닥을 고르거나 흙덩이를 잘게 부수는 일.

2 박대

긴 대나무에 달아놓은 바가지.

3 불순물

순수한 물질에 섞여 있는 순수하지 않은 물질.

4 꼬집

엄지와 검지로 집어올린 양.

5 후령하다

퍽 크고 넓어서 걸리는 느낌이 없다.

6 적삼

윗도리에 입는 홑옷, 모양은 저고리와 같다.

7 잠방이

가랑이가 무릎까지 내려오도록 짧게 만든 홑바지.



아버지가 꺾까 봐 겁이 난 상호는 앞만 보고 냅다 달렸습니다.

한잠 자고 일어난 아버지는 솔가지<sup>1</sup>를 하러 산에 가실 겁니다. 아버지는 태양이 바닷물을 말리는 동안 솔가지를 산처럼 모아놓고 다시 아궁이를 지키실 겁니다.

둘은 바닷물과 맞닿은 송천강에 닿아서야 달음박질을 멈추었습니다.

얕은 송천강 가운데에 큰 섬이 하나 있습니다.

섬은 큰비가 와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연꽃형이라 하여 태풍이 와도 마을에 물이 들지 않았고 송천강 위에 뜬 작은 섬도 늘 물에 떠 있었습니다.

용식은 아침에 소를 그 섬에 두고 왔습니다. 소는 누가 당기지 않으면 물로 에워싸인 섬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소는 한가롭게 용식을 기다렸습니다.

“아우, 잘 계셨는가.”

용식이가 점잖게 소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음머.”

덩치가 큰 소가 화답합니다,

용식은 고삐를 바투 잡고 송천강을 건넜습니다.

작은 섬 안에 갇혀 답답했을 소를 강둑 위로 데려갈 요량입니다.

소의 넓적한 발이 강바닥에 닿을 때마다 움푹 패인 발자국에 까막조개가 모여들었습니다.



1 솔가지  
꺾어 말린 소나무의 가지.

상호도 덩달아 고무신 신은 발을 바닥에 문질렀습니다. 움푹 들어간 곳마다 까막조개가 새까맣게 모여들었습니다. 상호는 까막조개를 주어 담았습니다.

고무신에 까막조개를 가득 담고 기분 좋게 말했습니다.

“울 엄마 갖다주면 좋아하겠네.”

“지천에 깔린 까막조개를 뭐하러 줘냐.”

“까막조개국을 재첩이라 한대. 재첩국이 맛있더라.”

“재첩을 언제 까서 먹으려고. 바다에 모시조개랑 전복이 더 맛있지.”

상호는 어른처럼 씩 웃었습니다.

사나흘에 한 번씩 들리는 아버지는 송천강 재첩에 된장 풀고 발에 자라는 여름 배추를 쪽쪽 찢어 끓인 국을 좋아하셨습니다. 상호는 공부 못한다고 나무라는 아버지가 무섭기도 했지만 뜨거운 여름에 불 앞에서 고생하는 모습이 마음 아프기도 했습니다.

“저 염밭들은 정말 없어지지 않을까?”

“그럼.”

“난 저 염밭들이 없어졌으면 좋겠어. 저 염밭들이 없어져야 울 아버지가 집에 계실 거니까.”

“칠없긴”

한 뺨이나 키가 더 큰 용식이 상호의 머리를 흘뜨리다 쓰다듬었습니다.

상호는 용식의 손길이 싫지 않았습니다. 형님처럼 용식은 한 손에 소의 고삐를 단단히 쥐고 다른 손은 용식의 손을 잡고 송천강을 건너 강둑을 지나 큰 바다로 나왔습니다.

파도가 밀려와 바다에 부딪혔습니다.

“저 바다를 건너갈 때 너도 데려가 줄게.”

“언제 갈 수 있어.”

“곧.”

“어떻게?”

용식은 상호에게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너희 집에서 얻어온 소금을 진보장에 내다 팔았어. 여기보다 돈을 많이 줘. 난 선장이 될 거야. 내가 산 배를 타고 저 바다를 건너 세상에서 가장 크다는 태평양을 건너 일본보다 몇 배 더 크다는 땅으로 갈거야.”

상호는 용식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선장인 용식이 옆에서 배를 모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기도 했습니다. 척박한 모래땅에 진흙을 퍼와 염전을 만들었던 휘리 마을 사람들에게 불가능은 없는 듯 합니다.

용식의 꿈은 벌써 태평양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용식 선장에게 거북이 다가와 인사하고 고래가 물을 뿜으며 길을 인도합니다.

상호는 용식이 선장이 되어 자신을 데리러 올 동안 아버지가 하시던 일을 배워 염밭들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상호는 용식이 쥐고 있는 소의 고삐를 넘겨받았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푸른 빛으로 그 자리를 지킵니다.

저 바닷속에는 우리가 먹고도 남을 만큼의 소금과 물고기들이 살고 있습니다.

상호는 용식의 꿈이 저 바다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럽지 않습니다.

상호는 든든한 아버지와 아버지를 끔찍이 사랑하는 어머니와 함께 초가지붕에서 매일 소금 듬뿍 넣은

생선을 입에 넣으며 행복하게 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염밭들에서 소금 끝 때면 부르는 노랫소리가  
들려옵니다.

노랫소리는 합창이 되어 울려 퍼집니다.

“평양감사 나는 싫소, 소금장수 되어  
어기여차 소금짐 지고 태산을 넘어가세”

염밭들에서 시작된 어기여차 어기여차 소리가  
옆으로 자라는 나무 위에 머물렀다가 송천강을 지나  
힘차게 바다로 흘러갑니다.

상호는 자신의 어린 시절이 지나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덕천리, 염밭들의 노래

최정연

해 지는 빨발을 걸어 보았는지요  
바람속으로 가라앉는 휘리 염밭들  
그 노을을 보셨는지요?

소금 결정체를 만드는 일은  
휘리마을 진흙과의 사투,  
출렁이는 파도마저 장작불 가마에서  
끓어 오르고 있었는데요

염밭들 가마솥에 타닥타닥  
소금이 튀어오를 때  
물보다 더 투명해진 바다가  
하얗게 증발하는 순간이에요  
울 아버지 몇 날 몇 밤 장작불로 강철 솥을 데워  
영덕 자염을 얻는 날,  
휘리 염밭들로 날아 온 쇠제비갈매기도  
어기여차, 어기여차,  
삶의 지금을 노래했지요

녹녹한 염밭들이 해안선 따라 흐르면  
아버지가 만든 영덕 자염 한 바가지,  
투명하게 날아오른 눈물방울 같아요  
파도 물결 하얗게 뒤집어 보이며  
오늘도 뜨겁게 타오르고 싶은 거예요

진행 마을

병곡면 덕천리

장소

덕천리 마을회관

인터뷰 대상

김상락, 이춘금, 최정호,  
최성목 이장님

덕천리의 유래는 마을 옆으로 큰 내가  
흐른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 마을은 조선시대에는 영해군 북초면  
지역으로서 상대산 뒤쪽이 되므로 잣디,  
또는 자두라고도 하며 후릿그물로 고기  
를 잡는다 하여 후리 또는 휘리라 하였는  
데 1914년 4월 1일 일제가 자의로 전국의  
행정구역을 폐합할 때 송하동의 일부를  
병합하여 휘리동(리)이라 해서 병곡면에  
편입되어 내려오다가 1990년 1월 행정구  
역 명칭 개정에 따라 덕천리로 개정하여  
오늘에 이른다.

덕천리의 현 위치는 동은 동해에  
접하고 서는 송천리가 있다. 남쪽  
하천 너머에는 영해면 대진리와  
면계를 이루며 북쪽에는 원활이  
대포마을이 있다. 특산물로는  
송천 재첩이 유명했다.

보는 휘리 북쪽 뒤 냇가  
에 뒷깡변보와 진천들  
서북쪽에 있는 솔보, 그  
리고 솔보 밑에 있는 하  
보가 있다. 솔은 덕천,  
서쪽에 봉송정이 있다.

펼치다, 빛나다 라는 의미의 휘리는 조선후기부터 공식적인  
등명으로 사용되었으며 후릿그물로 고기를 잡는다는 뜻이다

갯뒤는 상대산 뒤라는 뜻이다. 갯뒤는 조선  
숙정 연간 김해김씨 김선장이 은둔하기 위해  
상대산 북쪽 산기슭인 공수개에 살면서부터  
불렀던 지명이라고 한다.

휘리 명칭이 안좋다고 얻을 덕(德),  
내천(川)으로 바꾸었는데  
일본놈들이 덕천 이름을 쓸 수 없다고  
해서 일제강점기말에 남새직 면장이  
휘리로 바꾸었다가 1990년도에 다시  
덕천리로 개명했다.

김해 김씨 터전에 최씨 골목이란 말  
이 있다. 최씨가 어디서 살다 온지  
는 모르겠으나 덕천리가 생긴지는  
300년쯤 된다.

누워서  
자라는 소나무가  
있었는데  
태풍 매미<sup>2003년</sup> 때  
쓰러졌다.

포 날아가는 소리에 소나무가 췌췌췌  
거리면서 울었다.  
200년 이상 된 당산나무였다.

염밭들은 예전에 염전이 있던 자리이다. 웅덩이를 파서  
참흙(찰흙)으로 애치묘(아기무덤)처럼 만들어서 소가 끌면  
가루가 된다. 오전에는 간물을 박대(바가지)로 퍼서 햇빛에  
쪄고 오후에는 끌어 모아서 썩레질을 했다. 흙 깔았던 자리에  
간물 먹은 흙이 웅덩이로 모인다. 웅덩이에 물이 고인다. 그  
물로 소금을 만든다. 들지게 지고 염전통에 넣어 소금 굽는  
가마솥에 부어 3~4일동안 불을 댕다. 솔잎가지를 소가 신고  
와서 옆에 쌓아놓고 밤새도록 가마솥에 넣어 불을 지폈다.  
그러면 소금이 생겼다. 1954년까지 염전이 있었다.

여기서 만든 소금은 새해안과 다르다. 맨  
먼저 백사장을 논처럼 넓게 파고 거기에다  
고운 진흙을 넣어 다진다. 그 다음에 논  
붓도랑처럼 물길을 만들어 염전을 만든다.  
가마솥은 세곳이 있었다. 아궁이에다  
장작이나 소깍을 넣고 불을 때고 간물이  
졸아들면 소금이 타닥거리며 튀었는데  
여기서 만든 소금 맛이 좋아서 안동장에  
내다 팔았다.

병곡남부국민학교가  
제일 컸고 원앙까지 걸어서  
학교를 다녔다.

영리 가마터밭에 가마솥이  
있었고 1950년까지  
가마솥이 3개 걸려 있었다.

영4리에도 염전이  
있었고 가마솥이 3개  
있었다. 수수 심던 곳이  
가마터밭이다.

6.25 전쟁 때 송천다리를 아군이 폭파했다. 다리 끊어지는 걸 보고 학교에서 쫓겨났다. 교실이 모자라서 송천 원앙 다리 밑에서 공부했는데 7반까지 있었다. 전쟁 이후에도 한 반에 70명쯤 되었다.

강구 다리를 먼저 끊고 송천 다리를 끊었다.

원앙까지 꼬불한 논둑길을 걸어다녔다. 바람이 불면 걸어가다가 논둑에 떨어지기도 했다. 강한 바람이 불었다. 학교는 월사금을 내야 다닐 수 있었다.

누운 소나무를 넘어 대포가 공동묘지에 떨어지곤 했다. 떨어진 포를 발견하면 민간인들은 못건드리고 바로 신고했다.

경지 정리전에는 송천강에 민물 장어가 많았다. 바다를 따라 올라와서 장어, 은어도 흔했고 까막조개(재첩)이 많았다. 웅덩이에 장어가 들어가 있으면 목욕통에 반 정도 될만큼 잡기도 했다.

종말처리장이 생기면서 재첩이 사라졌다. 재첩씨를 넣어도 죽어버린다.

덕천리는 연꽃형이다. 물이 들면 마을이 뜬다. 사방으로 물이 휘어져서 흘러 마을에 물이 안 들어온다. 그래서 연꽃형이라고 한다.

덕천리 소나무밭은 소풍 장소로 유명하다. 소나무 심을 때 구덩이를 파서 한 삽 모래 넣어서 심었다. 소나무를 심은 건 80년 정도 된다. 모래밭 속에 솔밭이 장관이다. 덕천 솔밭은 안전하고 풍경이 좋다.

소나무 밑에는 노란 버섯이 있어서 따먹었다. 노란 버섯은 향이 없는 송이라고 했다. 솔송이라고 부른다. 송이는 송이인데 갯모래땅에서 나기 때문에 향이 없지만 송이 맛이 낫다.

재첩이 많을 때는 덕천리 앞에 섬이 생겨서 이십일 동안 소를 매어놓고 학교 갔다가 소 먹이러 가곤 했다. 학교 갔다 와서 소를 먹이고 물을 얹고 맑아서 먹기도 했다. 강이 오염이 안되면 재첩이 많다. 소가 밟고 간 자리에 재첩이 4~5개 정도 모일만큼 재첩이 많았다.

공동묘지에도 소풍을 왔다. 소풍 와서 물양대를 따먹으면서 놀았다.

골재채취하면 조개껍질이 나온다. 옛날에는 덕천리가 바다였을 것이다.



**우리 마을에**

문제가 이제 관(단체화)

덕천(德川) 지역의 유래는 마을 앞으로 큰 냇가 흐른다 하여 붙여 지었다. 이 마을은 조선시대에는 영의정 복포문 지역으로서, 당시인 1746년 지사로 들어오는 1차로 100호에 한해 부속(附屬)로 고개를 뚫었다. 1896년 후는 부속(附屬)과 영의정이 부속(附屬)을 지칭(指稱)한 것이므로, 원래의 행정구역을 포함할 때 송천(宋川)의 일부를 포함하여 부속(附屬)의 일부에서 부속(附屬)에 편입되어 내었다. 1914년 1월 행정구역 개편(改편)이후 1917년 덕천(德川)로 개칭(改稱)되어 있다. 덕천(德川)의 한 위치는 풍도(風道)에 있다고 하는 송천(宋川)의 한

1996년은 덕천(德川)의 건국 100주년을 기념하여 덕천(德川)의 유래를 밝히는 데 힘쓰고 있다. 이 마을은 조선시대에는 영의정 복포문 지역으로서, 당시인 1746년 지사로 들어오는 1차로 100호에 한해 부속(附屬)로 고개를 뚫었다. 1896년 후는 부속(附屬)과 영의정이 부속(附屬)을 지칭(指稱)한 것이므로, 원래의 행정구역을 포함할 때 송천(宋川)의 일부를 포함하여 부속(附屬)의 일부에서 부속(附屬)에 편입되어 내었다. 1914년 1월 행정구역 개편(改편)이후 1917년 덕천(德川)로 개칭(改稱)되어 있다. 덕천(德川)의 한 위치는 풍도(風道)에 있다고 하는 송천(宋川)의 한

덕천(德川)은 덕천(德川)의 건국 100주년을 기념하여 덕천(德川)의 유래를 밝히는 데 힘쓰고 있다. 이 마을은 조선시대에는 영의정 복포문 지역으로서, 당시인 1746년 지사로 들어오는 1차로 100호에 한해 부속(附屬)로 고개를 뚫었다. 1896년 후는 부속(附屬)과 영의정이 부속(附屬)을 지칭(指稱)한 것이므로, 원래의 행정구역을 포함할 때 송천(宋川)의 일부를 포함하여 부속(附屬)의 일부에서 부속(附屬)에 편입되어 내었다. 1914년 1월 행정구역 개편(改편)이후 1917년 덕천(德川)로 개칭(改稱)되어 있다. 덕천(德川)의 한 위치는 풍도(風道)에 있다고 하는 송천(宋川)의 한

덕천(德川)의 유래는 마을 앞으로 큰 냇가 흐른다 하여 붙여 지었다. 이 마을은 조선시대에는 영의정 복포문 지역으로서, 당시인 1746년 지사로 들어오는 1차로 100호에 한해 부속(附屬)로 고개를 뚫었다. 1896년 후는 부속(附屬)과 영의정이 부속(附屬)을 지칭(指稱)한 것이므로, 원래의 행정구역을 포함할 때 송천(宋川)의 일부를 포함하여 부속(附屬)의 일부에서 부속(附屬)에 편입되어 내었다. 1914년 1월 행정구역 개편(改편)이후 1917년 덕천(德川)로 개칭(改稱)되어 있다. 덕천(德川)의 한 위치는 풍도(風道)에 있다고 하는 송천(宋川)의 한

**마을 앞으로 큰 냇가 흐른다 하여 德川**



창수면 신기1리

## 물같이 바람같이

신현량

제가 살고 있는 신기리는 옛날 옛적 배나리라고  
불렀어요.

나리, 나리, 개나리, 입에 따다 물고요.

아니, 아니, 아니예요.

나리, 나리, 배나리는 배가 들어오던 작은  
마을이에요.

저를 억울이로 만든 나옹이의 반송 지팡이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이기도 하구요.

나옹이는 고려시대 공민왕의 왕사<sup>1</sup>를 지낸  
나옹선사예요.

1 왕사  
임금의 스승이 되었던 승려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 하네  
탐욕도 벗어 놓고 성냄도 벗어 놓고  
물같이 바람 같이 살다가 가라 하네

이 시는 나옹선사가 지은 깨달음의 시래요.  
한 번쯤 들어보셨나요?  
엄마는 이 시를 무조건 외워야 한뎀어요.  
못 외우면 까치 머리를 막 잡아당겨요.  
얼마나 아프게요.

배나리에는 마을 이름처럼 신기한 이야기가  
전해오는데요

나옹이가 문경 대승사 묘적암으로 출가<sup>1</sup>하기 전  
지팡이를 땅에 거꾸로 꽂았대요.

나옹이는 하늘 한번 쳐다보고 땅 한번 내려다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지팡이가 살아있으면 내가 살아있는 줄 알고  
죽으면 내가 죽은 줄 아시오.”

스무 살의 나옹이가 근엄한 표정으로 말도 안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나옹이랑 항상 붙어다니던 나도 코웃음 치며  
비웃었어요.

그 지팡이는 나옹이가 땀감하러 갈 때 짚던

1 출가  
집을 떠나 승려가 됨

지팡이였거든요.

지팡이가 살아나는 것도 신기한데 거꾸로 꽂아 놓고 살아있을 거라니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저만 나옹이를 비웃은 게 아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첻’하며 고개를 돌렸지요. 그런데 말이에요.

정말 신기하게도 거꾸로 꽂은 나무에서 움이 트기 시작했어요. 잎이 자라고 키가 크고 625년동안 낙랑장송이 되어 마을을 지켜주었어요.

제가 증인이 될게요.

저는 나옹이가 태어날 때 날개를 덮어 살려준 까치 엄마의 하나뿐인 아들 까치 억울이거든요.

전 정말 억울해요.

엄마는 제일 잘한 일이 나, 억울이의 탄생을 지켜본 게 아니라 나옹이를 살린 거래요.

까랑 엄마가 나옹이를 더 좋아하나 봐요.

저 억울이의 억울한 사연을 들어주세요.

고려 충숙왕 7년(1320년) 나옹이 엄마가 나라에 세금을 못내서 잡혀가게 되었대요. 나옹이가 태어난 고려는 원나라의 지배를 받던 때였어요. 거둬들인 세금은 대부분 원나라로 보냈지요. 나옹이 엄마는 그때 만삭이었어요. 곧 아기가 태어날 것처럼 배가 아팠는데도 포졸들이 잡아갔대요.

“아기를 낳고 즉시 갈테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안돼. 당장 잡아오라는 분부가 있었어.”

나옹이 엄마는 사정사정했지만 들어주지 않았어요.

아기를 보호하느라 배를 팔로 감싸고 잡혀가다가 큰 웅덩이 옆에서 아기를 낳고 말았어요. 갓 태어난 아기를 버려두고 포졸들이 엄마를 끌고 갔지요. 엄마는 아기가 걱정되어 눈물을 흘렸어요.

까랑 엄마는 저를 보살피다가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대요. 아주 우렁찬 아기의 울음이었대요. 까랑 엄마가 놀라서 날아가 보았대요. 벌거숭이 아기가 두 발을 하늘로 차올리며 우렁차게 울고 있었어요. 까랑 엄마는 아기를 보자마자 얼마나 무서울까 하는 생각에 무조건 살리고 싶었대요. 까랑 엄마는 이웃 까치들을 불러모았어요. 그리고 두 날개를 포개서 아기를 덮어주었지요. 까치들의 따뜻한 체온에 아기는 금새 새근거리며 잠이 들었대요.

까치들은 아기를 나옹이라고 불렀어요. 아기가 ‘나옹’하며 울었대요.

사실이냐구요? 그건 저도 믿을 수 없어요. 아직 어려서 나옹이를 볼 수 없었거든요.

나옹이 엄마가 돌아왔을 때 아기는 편안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답니다.

까랑 엄마는 그때 이야기를 영웅담처럼 들려주었어요.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예요.

엄마가 저를 돌보는 대신 나옹이만 따라다닌 건 비밀로 할게요.

까치들이 저를 보고 억울해서 어찌누 하다보니 모두 저를 억울이로 부르게 되었답니다.

까랑 엄마의 사랑법은 유별났어요. 나옹이가 넘어지더라도 하면 주변에서 까악까악 울어댔으니까요.

엄마의 사랑을 둘로 나눈 저는 정말 억울해요.

어릴 때부터 함께 했으니 나에게 친구는 나옹이 뿐이에요. 나옹이도 까치인 저 말고는 친구가 없었지요. 그러다가 나옹이 여덟살 무렵에 친구가 생겼어요. 나옹이에게 친구가 늦게 생긴 건 까랑 엄마 때문이에요. 까랑 엄마가 졸졸 따라다니니 친구들이 가까이 올 수 있었겠어요? 나옹이가 놀다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머리 위에서 무섭게 소리쳐 다 도망가게 만들었어요.

까랑 엄마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요. 나옹이를 혼자 두는 것이 나옹이를 위한 길이란 걸 몰랐어요. 사실 저는 나옹이만 따라다니는 것이 힘들었어요. 전 까치 친구들과 노는 게 더 재미있는데 엄마가 나옹이만 따라다니라고 하니 친구가 없는 거였어요.

배나리에 거꾸로 자라는 반송 지팡이 이야기는 나옹과 친구 몽헌의 우정에서 시작됩니다.

둘도 없이 친한 사이가 된 나옹과 몽헌의 첫 만남을 이야기할게요.

여러분도 변치 않을 우정의 친구가 있나 생각해 보세요.

나옹의 이름은 아원혜였어요.

아버지는 하급관료였으나 부유하지 않았어요.

나옹이는 어머니를 도와 새벽마다 뒷산 형제봉에 올라 나무를 했지요.

형제봉은 높고 험했어요.

그날도 나옹이는 나무 지계를 옆에 두고 나루에 앉아서 한숨을 지었어요.

지계가 나옹이보다 더 컸어요. 땀감을 모아 지계에 지고 나루에 내려와 팔아야 곡식을 살 수 있었어요.

그땐 정말 가난했어요. 먹성 좋은 저, 억울이도 먹는 날보다 굶는 날이 많아서 배가 훌쩍해졌어요.

배나리 마을은 높은 산으로 둘러싸이고 마을 입구에는 바다로 흐르는 강이 있었어요. 강을 따라 무거운 나무를 실어나르는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마을 사람들은 산에서 나는 약초와 나무를 팔아서 생활했지요.

소나무는 곧고 높이가 자라서 배로 실어가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나루 근처에는 장이 서기도 했습니다. 장터 주변은 분주했어요. 기와집 기둥이 될 소나무들이 배로 옮겨질 때면 나루에 사람들로 소란스러웠어요. 아이들은 기둥이 될 나무를 베고 남은 가지를 주워 땀감으로 팔았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지만 배나리는 살기 좋은 곳이 아니었어요. 바닷물이 자주 넘쳤지요. 큰비가 오면 둑이 무너졌지요. 바닷물이 들어와 장터를 휩쓸고 지붕까지 차올랐어요. 된장 든 항아리가 물 위를 둥둥 떠다녔지요. 꼭꼭 숨겨둔 곡식이 비만 오면 흔적도 없이 떠내려갔으니 먹을 것이 부족했어요. 아침이 되어도 굴뚝에는 연기가 피어오르지 않았답니다.

아이들은 된장 푼 물에 보리를 넣고 끓인 죽으로 하루해를 보냈어요.

봄이면 냉이나 쑥을 끓여 보릿고개를 넘기기도 했지요.

아이들은 나물만 넣은 죽을 먹고 배앓이를 하기도 했어요.

저, 억울이도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늘 배가 고팠지요.

여름에는 강을 따라 은어나 황어가 올라오기도 했으니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나옹이는 나루에 벌러덩 누워 하늘을 보았어요.

푸른 하늘은 티없이 맑았지만 어린 나옹의 눈엔 희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사내 자숙이 뭐 한숨이고.”

힘찬 목소리와 당당한 표정의 사내아이가 말을 걸어왔어요.

“내 이름은 몽헌.”

몽헌이 폴짝 뛰어 나옹이 옆에 나란히 누웠어요. 몽헌은 풀피리를 잘 붙었어요.

“네가 까치소에서 태어났다는 그 아이로구나.”

나옹이는 까치소라는 말에 시무룩해져 옆에 잡히는 돌을 던졌어요. 동그란 눈으로 주변을 기웃거리던 고양이가 놀라 달아났지요.

“약한 동물 괴롭히면 안된다.”

나옹이는 ‘칫’하며 듣지 않았어요.

“까치가 널 지켜주었느니 너도 약한 동물편에 서야지.”

나옹이는 벌떡 일어나 몽헌을 바라보았어요. 몽헌이 하늘처럼 높아보였어요.

몽헌은 산중턱에 있는 작은 암자에 살고 있대요.

마을 사람들은 암자에 가려면 호랑이를 두어 마리 만나야 한다고 무서워했어요. 그런 산길을 몽헌이는 날다람쥐처럼 오르내리고 있었어요. 몽헌은 같은 나이인 나옹이보다 키도 크고 몸집도 컸어요. 나옹이가 작은 편이어서 그런지 몽헌은 형처럼 나옹이를 보살펴 주었어요.

“넌 겁이 없구나.”

나옹이가 부러운 듯 말했어요.

“까치가 지켜주는 너보단 겁이 많겠지.”

나옹이는 그때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마음먹기에 달린 거로구나.”

“금방 알아내는 걸 보니 넌 분명 큰 인물이 될 거야.”

“그렇게 말해준 사람은 네가 처음이야.”

나옹이는 친구인 몽헌이 좋았어요. 몽헌의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되었어요.

몽헌은 나옹이와 함께 형제봉을 오르내리며 땀감을 줍기도 하고 버섯을 따기도 했어요. 꿀벌들 몰래 꿀을 따기도 하고 토끼를 쫓아 산봉우리까지 올라가기도 했어요. 하루는 밭에 숨어든 사슴을 쫓아 산등성이를 넘기도 했답니다. 몽헌을 따라다니며 나옹은 건강한 청년으로 자랐어요. 둘은 언제나 함께였어요.

“원혜야, 넌 무엇이 되고 싶니?”

소나무로 지팡이를 짚으며 몽헌이 말했어요.

“몰라. 넌 무엇이 되고 싶니?”

“스님.”



몽헌은 주저하지 않고 말했어요

“스님, 왜?”

“중생을 구원하려고.”

“무슨 뜻이야?”

“아직 나도 몰라.”

나옹이는 몽헌이 벌써 큰 스님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스무살이 되어도 생계 걱정뿐인 나옹이는 몽헌을 보며 깨닫는 것이 많아졌어요. 나옹이는 나약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잘 깎은 지팡이를 건네주는 몽헌을 보며 베푸는 기쁨이 어떤 건지도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 지팡이를 쓰시게.”

지게 지팡이가 작아져 불편한 것을 알아차린 몽헌의 배려에 나옹은 감동했어요.

저, 억울이도 소소한 보살핌과 배려가 어떤 감동을 주는지 알 수 있었어요.

몽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바닷물이 들이닥친 마을의 독을 지키려다 물에 휩쓸렸어요.

물이 넘친 독 아래에는 초가집이 있었어요. 초가집에는 다리를 다친 할머니가 누워 있었지요. 몽헌은 독을 막겠다고 가마니에 흙을 넣어 옮기다가 거센 물에 떠내려간 거예요.

나옹은 가슴을 치며 울었어요.

저, 억울이도 나옹이를 따라 울었어요.

나옹은 친구를 잃은 슬픔에 물 한 모금 마시기 힘들었어요.

잠도 잘 수 없었고 밥 한 톨 넘기지 않았어요.

몽헌은 나옹에게 스승 같은 친구였으니 그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지요.

저, 억울이에게도 몽헌은 금쪽같은 친구였어요.

비가 그치자 다시 햇살이 가득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몽헌을 잊고 활기하게 다시 맞는 하루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해가 뜨면 부지런히 움직였고 해가 지면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나옹은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이 꿈만 같았어요.

몽헌이 없어도 세상은 예전과 똑같았어요.

문득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지요.

몽헌과 함께 다닌 산천을 돌아다녀도 보고 무서운 호랑이와 맞닥뜨려 보기도 했어요.

나옹이에게 해답은 쉽게 찾아오지 않았어요.

저 억울이도 나옹이를 따라다니며 함께 깨달음을 얻고자 했지요.

어느날, 나옹은 몽헌과 처음 만났던 자리에 소나무 지팡이를 거꾸로 꽂았어요.

“이 지팡이가 살아 있으면 내가 살아있는 줄 알고 죽으면 내가 죽은 줄 아세요.”

소나무 지팡이는 몽헌이 만들어준 그 지팡이였어요

지팡이를 꽂는 나옹의 눈빛은 호랑이의 눈처럼 부리부리했어요.

나옹은 배나리를 떠나 문경으로 걸음을 옮기며



어머니가 계신 쪽을 향해 큰절을 올렸지요.

나옹은 걸음을 옮기며 푸른 산에게 물었어요  
 밝은 달에게도 물어보았지요  
 홀로 지나가는 바람을 잡고 말을 건넸어요

사람은 죽어 어디로 갑니까.  
 몽헌의 말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 가면 그뿐.

까랑 엄마는 나옹이를 따라 강 건너까지 날아가며 눈물  
 흘렸어요

반송 가지에 까치집을 짓고 오랫동안 나옹을  
 기다리기도 했지요.

나옹이 원나라에 가서 지공스님의 제자가 되고  
 고승이 되어 백성들로부터 사랑받는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까치들은 나옹의 고향 마을을 뱅글뱅글 돌며  
 좋아했어요.

엄마를 보살피며 나, 억울이는 지금도 마을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랫마을에 둑을 만들어 이제 배나리에 배가 들어오지  
 않아요.

육백년을 살다 떠난 반송 지팡이를 대신해 다시  
 반송을 심기도 했구요.

하지만 거꾸로 자라는 반송은요

나옹이가 꽃은 그 지팡이 소나무뿐이에요.

소나무 가지가 마치 뿌리처럼 자라더라는 것은 이제  
 저만 아는 비밀이 되었어요.



## 장육사 가는 길

최정연

장육사 간다  
 청산가 흥얼거리니  
 운서산 골짜기 구름이 머무는데  
 어디서 아기 울음소리 들리는 듯  
 음력 정월 보름 송천천 개울가에  
 고운 까치들 날개 펼치며  
 반갑다 날아오네

나옹이 참선하다 입적한 이곳에  
 오늘은 국수 한 그릇 공양하며  
 까치소 경전같은 옛 이야기 듣는다

사랑도 벗어놓고  
 성냄도 벗어놓고  
 날아라 훨훨  
 장육사 환한 그늘아래  
 청산가 흐르네

진행 마을
창수면 신기1리
장소
신기1리 마을회관
인터뷰 대상
김귀자, 김옥기, 김장수, 김화순, 박영애, 박영자, 백경자, 백인수, 이정만, 박영남, 이상복이장님

나옹왕사는 태고보우와 더불어  
한국 불교계를 대표하는 종조로  
지공, 무학과 더불어 3대 화상으로  
추앙받고 있는 고승으로 고려 말  
공민왕과 우왕이 왕사로  
책봉되었으며, 조선 건국에  
기여한 자초 무학대사의  
스승이다. 왕사의 속성은 아씨,  
법명은 혜근, 초명은 원혜이며,  
법명은 나옹, 당호는 강월현,  
시호는 선각이다.

나옹왕사의  
탄생설화를  
살펴보면 영덕군  
창수면 가산리  
불미골에서  
아버지 아서구와  
어머니 정씨부인  
슬하에서  
태어났다.

어느날 어머니 꿈에 금색 새 한 마리가 날아와  
오색영롱한 알을 품속에 안겨주는 태몽을 꾸 다음  
임태하였다고 한다, 그 당시 세금을 내지 못하여  
어머니가 관가(영해부)에 불러가는 도중에 아이를  
낳았으나 관리들이 아이를 개울가에 그대로 두고  
십리가 넘는 관가(영해부)에 끌고 갔다고 한다. 부사가  
옷자락에 묻은 피를 보고 이상하게 여겨 연유를  
물어보니 도중에 출산한 아이를 그대로 두고 왔다는  
것을 알고는 관리를 크게 꾸짖으면서 빨리 보내라는  
부사의 엄명에 따라 그 자리에 돌아와 보니, 아이는 죽지  
않고 수십마리의 까치들이 아이를 보고하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자라서 왕사가 되었으며 지금도 그곳을  
까치소라고 한다.

20세에 친구의 죽음을 보고 인생 무상을 느껴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출가의 길을 떠나면서 이곳에 자신의 반송 지팡이를 거꾸로 꽂아 놓고 “이 나무가 살면 내가 살아 있는 줄 알고 이 나무가 죽으면 내가 죽은 줄 알라”하는 말을 남기고 문경 사불산 대승사 모적암에서 당대 명필인 요연선사에게 출가하였다.

그런데 신비하게도 이곳에 꽂아둔 반송 지팡이에서 움이 돋아 낙락장송이 되어 600여년 살다가 고사(1965년경)되었다고 한다.

영덕군에서는 왕사의 출가지 반송 유적지에 정자를 짓는 등 이 자리를 복원 정비하였으며 나옹선사 입적 632주년을 맞이하는 올해를 기념하여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큰스님께서 근찬하신 사적비를 세우고 고사된 소나무가 있던 그 자리에 반송을 심어 역사의 의미를 되새기게 되었다. 인근에는 왕사의 출생 전설이 있는 까치소와 20세까지 살던 불미골 그리고 왕사께서 창건한 운서산 장육사가 있다.

형제봉에서 땀감을 모아 지게나 소달구지에 싣고 장애 팔아 생계를 이어갔다.

창수면은 목재나 동물을 잡아서 팔았는데 관에서 가져가기 편하게 배로 이동했다. 차가 없을 때는 배를 타고 다녔다.

물이 자주 들어 살만한 곳이 아니었다.

아랫동네에 보를 만들었더니 황어, 은어가 들어오지 않는다. 예전에는 황어, 은어가 많았다.

신기리는 마을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강변이었는데 제방을 만들고 복개해서 마을을 만들었다. 조선시대부터 개간을 해서 지금의 모양이 되었다.

‘이재수의 난’이 일어났던 시기에 창수면에서 민란이 있었다. 신기리도 ‘이재수의 난’에 동참했다고 전해진다.

바닷물이 이 마을까지 들어왔다. 시집오자마자 바닷물이 들어와서 혼이 났다. 창단지까지 떠다녔는데 장독에 밀가루, 장가루 넣어둔 것이 물에 등등 떠다녔다.

물이 들어 동생을 업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데 어린 동생이 밑으로  
 빠져버렸다. 그것도 모르고 포대기만 업  
 고 가다가 동생이 없는 걸 알고 놀라서  
 다시 돌아가 보니 그 자리에 있었다.  
 동생을 업고 다시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

장터 만든다고 집을  
 옮기라고 했다. 가운데  
 장터를 만들고 주변에  
 집이 들어섰는데 장이  
 안되니까 몇 번 서고  
 없어졌다. 요즘은  
 장날이 없어졌다.

신기리는 배나리라고  
 불렀다. 배나루의  
 방언인데 이곳까지 배가  
 들어왔다.

새술막은 주막이 있던  
 자리이고 열고개는  
 열명이 모여야만  
 넘어갈수 있다고 붙여진  
 이름이다. 호랑이와  
 산적이 많았다.

나옹선사가 태어난  
 자리는 까치소,  
 나옹선사가 쫓던  
 지팡이를 거꾸로 꽂아  
 625년을 살았던 자리는  
 반송지이다.

반송은 우산처럼 가지가  
 거꾸로 되어 있고  
 쟁반처럼 생겨서  
 반송이라고 한다.

혼인

옛날에 이 길은 꽃가마 타고~ 라는 노래가  
 있는데 가마타고 시집오면 잘 사는 집이었다.  
 혼례식을 친정에서 하고 며칠 자면 가라고  
 쫓아낸다. 열흘 있다가 가는 사람도 있고  
 일년 있다가 가는 사람도 있었는데 대부분  
 하룻밤 자고 신행을 왔다. 가마가 없어서  
 산길을 걸어왔다. 산등성이를 타고 걸어서  
 배나리 시택에 오니 여기가 도시 같더라.

전쟁 때 한낱한시에 몰살당해서 제사가 같은 집이 많다. 음력 5월 초사흘날에 제사가 많다. 동네 청년들은 보이면 잡아가서 7명이 죽는 걸 봤다. 가마니로 덮어놨는데 누가 누군지도 몰랐다. 피가 온몸을 덮어서 입은 옷을 보고 시신을 찾아갔다. 얼굴 보면 못찾았다. 청년들은 빨치산이라고 오해해서 군인들이 죽였다.

피난 안가고 산에 숨어 있었는데 멍석을 깔아놓은 데서 하룻밤을 자고 쫓겨서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 콩 볶는 소리가 나면 사람들이 죽어 있었다. 시커멓게 공비들이 있었다. 무장공비들이 산을 타고 가다가 먹을 것이 없으니 마을로 내려왔다. 무장공비들은 산을 타고 장사까지 갔다.

신기1리는 태백산맥이라 북한군이 이 산줄기를 따라 북한으로 이동했다. 산에서 내려오면 빨갱이라고 군인들이 무조건 잡아다 죽였다. 군인들은 철모를 쓰고 산에서 내려왔는데 국군들이 더 무서웠다.

산에서 내려온 국군이나 빨갱이나 모두 따따따 소리 내며 총을 쏘고 보리쌀을 달라고 소리질렀다. 보리쌀이 없다고 하면 난동을 부렸다.

부모, 사촌, 언니들이 다 죽었다.  
 좀 크다 싶으면 데려다 죽였다.  
 열 살 이상인데 피난 안가면 죽고  
 피난 가면 죽을 고생을 했다.

피난 가다가 막내 동생을 잃었는데  
 논두렁에서 보리쌀 얻어먹은  
 기억이 난다.  
 부산까지 걸어가서 거기서  
 생활하다가 어른들이 집에 가자  
 하길래 다시 걸어서 왔다.



영해면 원구1리

## War of the Dragons

신현량

아주 까마득한 먼 옛날, 원구 마을 용당산이 하늘과 맞닿아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영해 용당산 용당샘에는 잘생기고 멋진 황룡이 살고 있었는데 영덕 오십천에 사는 청룡과 둘도 없는 친구 사이였어요. 황룡과 청룡은 매일 만나서 신나게 놀았지요.

“오늘은 뭘 하고 놀까?”

“저 바다 위에 우리 모습을 만들어 보자.”

“좋은 생각이야. 멋진 용 구름을 보면 모두 좋아할 거야.”

황룡과 청룡은 사이좋게 바다 위를 날아다녔어요.

푸른 하늘에 몽실 구름이 생겨나자 고기 잡던

어부들이 좋아했어요.

“아주 멋지구나.”



김건아

“하늘에 그림을 그려 놓은 것 같아.”

황룡은 자신의 모습을 구름으로 만들어 보여주었어요.

황룡은 자신의 외모가 멋진 걸 알고 있었어요.

힘세죠. 잘생겼죠.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게 없었어요.

황룡은 거드름을 피우며 말했어요

“청룡, 아하하하, 너, 너, 너무 못생겼어.”

황룡의 웃음에 청룡은 화가 났어요. 청룡도 자신이 못생긴 걸 알고 있었지만 가장 친한 황룡의 말을 들으니 자존심 상했어요

눈치 없는 황룡은 배를 잡고 깔깔 웃었어요.

청룡은 뻘컘 자라난 수염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청룡이 화를 참을 때는 수염을 만지는 버릇이 있었거든요.

“너 정말 나쁘구나.”

평소에도 청룡은 잘난 체하는 황룡이 미울 때가 많았지만 친구니까 참아왔어요.

손사래까지 치며 웃는 황룡을 보자 청룡은 참았던 부아가 솟아났어요.

황룡은 동그란 눈에 황금색 눈동자가 반짝거리 매력 있었어요. 길게 뻗은 뿔은 아주 멋있었어요. 황룡이 천천히 하늘을 날 때면 눈이 부실 정도로 비늘이 반짝거렸어요.

황룡은 거울 보는 걸 좋아했어요.

외모에 관심 많은 황룡답게 발톱은 잘 손질되어 있었고 목덜미 털은 비단보다 더 부드러웠어요.

하늘의 선녀들은 황룡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앞다퉈 선물을 주더라는 이야기도 들려왔어요. 황룡은 어딜 가나 인기가 많았지만 청룡을 좋아해주는 친구들이 많지 않았어요.

잘 생긴 외모에 가려 단점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황룡은 샘이 많고 생각이 깊지 않았어요.

상대의 기분을 살피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바로바로 말해버리는 거예요.

청룡은 사실 푸르스름한 자신의 색깔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반짝반짝 빛나지도 않았고 매일 깨끗이 씻어도 꼬질꼬질한 느낌이었어요. 눈은 양쪽으로 쪽 찢어져 무서워 보였고 멋진 뿔도 없었어요. 몸에 비해 날개가 작아서 파닥거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용은 멋있어야 하는데 청룡이 날개를 펴고 날면 우스꽝스러웠어요

황룡은 자신의 외모를 가꿀 줄만 알았지 친구인 청룡을 배려하지 않았어요.

인내심 많은 청룡도 외모 지적만큼은 참기 힘들었어요.

청룡은 황룡을 향해 소리 쳤어요.

“아니야, 네가 더 못생겼어.”

그 말을 들은 황룡이 피식 웃으며 빈정거렸어요.

“친구. 천년을 살았어도 그런 소린 처음 들어보네. 왜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그러니?”

황룡의 말투에 청룡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뭐? 말 같지 않은 소리?”

“네가 먼저 시비 걸었잖아?”

황룡의 대꾸에 청룡은 싸움이 커질 것 같아 집으로  
가버렸어요.

청룡은 집에서도 분을 참지 못하고 씩씩거렸어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속앓이하는 자신이 너무 못나  
보였어요. 바다와 맞닿은 영덕 오십천 바닥에 배를 대고  
누워도 화가 식지 않았어요.

“황룡을 이길 방법이 없을까?”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청룡에게 거북 할아버지가  
다가왔어요

“청룡, 넌 세상에서 제일 멋진 용이야.”

“황룡에 비하면 난...”

말을 잊지 못하는 청룡에게 거북 할아버지지가  
천천히 말했어요

“누구와 비교하는 건 좋지 않아. 네 모습 그대로  
사랑해야지. 외모보다 중요한 건 자신감일 거야.”

청룡은 거북 할아버지의 말에 용기가 생겼어요. 거북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살고 있으니 아는 게  
많았어요.

“그래. 난 황룡보다 힘이 세. 비도 내릴 수 있어.”

그동안 청룡은 자신의 외모에 자신감을 잃을 걸  
후회했어요.

물에 비친 청룡의 모습은 잘생기진 않았지만  
웅장하고 씩씩해 보였어요.

그래요. 진짜 용이라면 외모만 가꾸는 것보다 힘이  
있어야죠.

다음날 청룡은 맑은 용당샘에서 외모를 가꾸고 있는

황룡을 찾아갔어요.

“우리 내기 하자.”

“내기?”

“누가 더 멋진 모습인지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야.”

“어떻게?”

“우리의 모습을 평가 받아보자.”

“지면 어떻게 하지?”

“내가 지면 오십천을 줄게.”

황룡은 청룡의 제안이 싫지 않았어요. 용당샘은  
오십천에 비하면 너무 좁아서 답답했거든요.

“좋아. 내가 지면. 음.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이 용당샘을 줄게. 용당샘이 있는 용당산은  
하늘과 닿아 있어서 놀러 가기도 좋아.”

황룡은 선심 쓰듯 말했어요.

자신감이 생긴 청룡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황룡과 청룡은 용당샘이 있는 원구 마을을 한 바퀴  
돌아보았어요. 앞산에 남천이 흐르고 뒤로는 용당산이  
병풍처럼 둘러싸인 마을은 고즈넉하고 풍요로워  
보였어요

“원구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자.”

그때 당산목 아래서 편안하게 쉬고 있는 청년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 청년이 좋겠군.”

“좋아, 좋아.”

용들은 청년이 있는 하늘 위로 높이 날아올랐어요.



청년은 새벽부터 일어나 논에서 허리 굽혀 일한 탓에 피곤했어요. 곡식은 푸르게 자라고 있었지만 게으른 청년은 일하는 것이 싫었어요.

“저절로 농사가 되는 세상이었으면 좋겠어. 난 여기 가만히 앉아 있고.”

청년은 부자가 되고 싶었지만 벼 사이에 웃자란 잡초를 뽑는 것은 정말 싫었어요. 허리가 너무 아팠거든요.

“농사일은 끝이 없구나. 언제 창고마다 곡식을 가득 채울 수 있을까.”

청년을 투덜거리며 잠시 쉴 생각으로 당산목 그늘에 앉았어요. 나무 아래로 바람이 서늘하게 불어왔어요. 총격은 스스로 잠이 들었다 깨어났어요.

눈을 뜨니 하늘이 보였어요.

청룡은 청년이 깨어나길 기다리다가 먼저 하늘로 솟구쳐 올랐어요.

“내가 먼저 간다.”

청룡은 마음이 급했어요. 모르는 것이 없는 거북 할아버지의 말에 자신감이 충만해 있었거든요. 청룡은 자신의 거대한 몸을 그대로 드러낸 큰 구름을 만들었어요.

청년에게 위협을 주면 감탄사가 나올 거라 생각했지요. 깜짝 놀라며 청룡보다 힘센 용은 없을 거라고 박수칠 것 같았어요.

청룡은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구름을 부풀렸어요. 용 구름이 점점 커졌어요. 푸르스름하고 큰 구름이 하늘에 비치자 청년은 깜짝 놀랐어요. 하늘에



큰일이 일어난 줄 알았어요.

“뭘 일이지. 하늘에서 난리가 난 걸까?”

청년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 모습을 본 청룡은 이제 됐다 싶었어요. 이제 곧 청년이 감탄할거라 생각했지요. 청룡은 발톱을 바짝 세우고 곳곳하게 허리편 구름을 하늘 높이 띄워 올렸지요.

청년은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분명 마을에 큰일이 일어날 징조야.”

청년은 놀라서 허둥거렸어요.

“저런 구름은 본 적이 없어. 마을에 알려야 해.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거야. 어떡하지?”

청년은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듯 얼굴을 찡그렸어요.

청년은 당산목에 걸어둔 북을 크게 울렸어요.

“어르신들. 저 구름을 보세요. 큰일이 일어나려나 봐요.”

청년이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본 황룡이 화를 냈어요.

“청룡, 넌 눈치가 없구나.”

황룡은 청룡구름을 쫓아내고 두 날개를 활짝 폈어요.

온화한 황금빛 구름이 하늘에 넓게 펼쳐졌어요.

숨처럼 포근한 느낌이 드는 멋진 구름이었어요.

청년은 놀란 눈으로 다시 하늘을 보았어요. 무서운 구름이 걷히고 아름다운 구름이 하늘에 넓게 퍼져 있었어요.

청년은 눈을 비볐어요. 몽실몽실한 예쁜 구름에 이끌려 청년이 당산목을 지나 논으로 걸어 나왔어요. 청년은 자꾸 구름을 따라왔어요.

“아. 아름다워.”

청년은 자신도 모르게 감탄했어요.

청년은 황룡 구름을 보자 세상이 너무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을 사람들에게 저 구름을 보여주고 싶어.”

청년의 목소리에 몰라 달려오던 마을 사람들의 발길이 딱 멈췄어요.

모두 하늘을 보며 함박 웃고 있었어요.

청룡은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요. 청룡은 마을 향해 물을 뿜기 시작했어요. 청룡이 마을 위를 한 바퀴 돌아 마을 곳곳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비는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내렸어요.

“저 남천이 마을을 휩쓸어 버릴 것이다.”

황룡이 말렸지만 화가 난 청룡은 듣지 않았어요. 보름 동안 줄기차게 비가 왔어요. 마을 앞에 흐르는 남천둑이 무너지고 마을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익어가던 벼는 물에 잠겼고 나무에서 과일이 툭툭 터지며 떨어졌어요. 마을엔 먹을 것이 남아있지 않았고 물에 잠긴 집을 떠나 마을 사람들은 용당산으로 올라갔어요.

황룡도 화가 났어요. 내기에 진 청룡이 영덕 오십천을 내어주기는커녕 황룡이 보살피는 마을을 물바다로 만들었으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사소한 내기로 오랜 우정이 깨져버린 것도 속상했어요.

황룡은 청룡을 달래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내기 없던 걸로 하자. 넌 그대로 오십천에 있어도 돼.”

황룡이 간절히 말했지만 청룡은 듣지 않았어요.

이젠 황룡도 참을 수 없었어요.

황룡은 마을을 떠나 용당산자락에서 잠든 청년의 꿈에 나타나서 알려주었어요

“내일 낮, 정각에 내가 먼저 하늘로 치솟거든 따라올라오는 청룡을 향해 이 칼을 겨누어라.”

청년이 깨어나 보니 정말 머리맡에 칼 한자루가 놓여 있었어요.

청년은 마을을 살리겠다는 생각으로 용당산에 있는 용당샘을 찾아갔어요.

맑은 물이 사시사철 흐르는 용당샘에 신비한 기운이 가득했어요.

청년은 용당샘에 용이 살고 있다는 전설을 떠올렸어요.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던 이야기가 사실인가 봅니다.

정오가 되자 꿈에서 말한 대로 두 마리의 용이 거친 몸싸움을 시작했어요.

사이좋았던 두 용은 우정을 저버리고 치열한 싸움을 벌였어요. 두 용은 기세 좋게 엉켜붙어 싸우고 있었어요. 용의 비늘이 부딪힐 때마다 천둥이 울리고 번개가 쳤어요.

청년은 겁에 질려 두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청룡, 내기에서 졌으니 약속을 지켜라.”

“황룡, 이 마을을 지키지 못한 건 네 탓이다. 이제 와서



왜 남 탓만 하는 것이냐.”

“마을을 잠기게 하고 마을 사람들을 산으로 쫓아낸 건 네 탓이 아니냐.”

“그게 왜 내 탓이야. 저 청년 탓이지.”

청룡이 나무 뒤에 숨어 있는 청년을 찌려보았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던 청년은 너무 놀라 들고 있던 칼을 떨어뜨렸어요. 청룡의 푸른 입김이 하늘로 뿜어지자 붉은 불길 이 일었어요. 청년은 두 용의 싸움에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그때 꿈에서 들은 말이 기억났어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어요.

청년은 땅에 떨어진 칼을 주워들고 눈을 질끈 감은 채 하늘을 향해 겨누었어요.

“아아악.”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청년이 눈을 뜨자 황룡은 황금빛 눈을 감싸며 아래 떨어졌어요.

청년의 칼은 하늘로 먼저 솟아오른 청룡을 쫓아가던 황룡의 눈에 맞아버린 거예요.

청년은 영문을 모른 채 그 자리에 발이 붙어버렸어요.

황룡은 붉은 피가 흐르는 눈을 감싸고 용당샘 안으로 숨어버렸어요.

청룡은 그제야 정신이 들었어요. 오랜 친구였던 황룡을 질투한 것이 후회되었어요.

내기에서 진 쪽은 자신이었는데 황룡이 앞으로 아름다운 얼굴을 볼 수 없게 된 것이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인 것을 알게 된 거죠. 청룡은 오십천 모랫바닥에

숨어 더 이상 세상으로 나오지 않았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청년은 황룡을 다치게 한 마음의 죄를 씻지 못하고 마을을 떠났어요. 청년의 성씨를 가진 사람들도 마을을 떠나 뿔뿔이 흩어졌어요.

물이 빠진 원구 마을에 넓은 들이 생겼어요. 들판은 기름져 곡식이 잘 자랐어요. 가난하던 원구 마을은 곧 부유한 마을이 되었고 영양 남씨, 무안박씨, 대흥백씨 성을 가진 분들이 들어와 예와 충을 중시하는 마을을 만들었답니다. 원구 마을 사람들은 용들의 싸움에서 의로움을 배워 나라가 위험할 때마다 구국운동에 앞장섰습니다.

지금도 눈먼 황룡이 숨어 있는 용당산 용당샘에는 차고 맑은 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청년이 쉬었던 당산목은 보호수로 지정되어 매년 정월 보름이면 마을 동신제를 올려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 원구 용당샘과 당산나무

최정연

마을 앞 느티 한 그루  
중구봉을 바라보며  
온 몸으로 바람을 맞고 있다

남씨, 박씨, 백씨 성을 가진 이들이  
마을을 이룬 원구  
매년 정월 3일 금주를 치고  
용당샘 물을 길어 목욕재계하고  
여인들은 샘물로 따듯한 술을 빚었지

어느날 마을 청년의 꿈에  
황룡과 청룡이 싸워 용의 못이 생겼다는데  
차갑고 따듯한 그 샘물로 느티가 자랐어  
용당샘 전설의 마을을 바라 본  
원두들 600살 당산나무는  
오늘도 원구마을을  
온몸으로 품어주고 있네

진행 마을
영해면 원구1리
장소
원구1리 마을회관
인터뷰 대상
석미자, 이옥량, 이원경, 최문재, 남정태 이장님

원구1리는 중구봉 아래 자리 잡고 마을을 중심으로  
용당산을 끼고 남천이 흐르고 울티재에서 흘러온  
서천이 마을 앞에서 합류하여 송천을 이룬다.

내천자川자 지형을 이루고 있으며 둔덕진 들이  
있다하여 원두들, 원파, 원구라고 불렀다,

500여년전 영양남씨 종사랑 남중이 평해에서 왔고  
진성이씨 영모당 이선도, 무량박씨 박량기가 연산군  
연간에 왔으며 대흥백씨 족한당 백인국이 명종 15년  
마을로 입향한 후, 3성인 남씨, 박씨, 백씨가 마을의  
주류를 이루며 500년의 전통을 이어왔다.

학문과 예의를 숭상하고 나라가 위태로울 때 구국하는  
충성스러운 인재를 키워내는 명문대가로 서로 경쟁과  
화합으로 내려오고 있다.

필요한 물건이 있어도 타성 사람들에게는 빌리지  
않았다,

수령 600년 된 수종 느티나무인  
보호수와 그 옆에는 동신단이  
있다.

매년 정월 3일 청단일  
각성씨(남씨, 박씨, 백씨) 문중에서  
한명씩 부정없는 사람을 선정하여  
제관으로 삼고 13일 금주을 치고  
목욕제계하고 정월 보름날 제사를  
모신다.

제사상에는 육탕, 어탕, 소탕을  
올린다

담은 토종담을  
쓰고 암탉을  
쓰지 않고  
장담만 재물로  
쓴다.

여자들은 새벽에 용당샘에 가서  
제사에 쓸 물을 담아놓고 다시  
용당샘에 가서 몸을 씻은 후  
음식준비를 했다.

제사 들기 보름 전에는 백번 씻은  
쌀과 용당샘으로 술을 담가  
준비한다.

원구 나락은 참새도 먹을 게  
없어서 울고 갔다. 친정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가마 타고  
시댁에 오니 먹을 것은 하나도  
없고 양반행세만 하고 있었다.

새벽 4시에 나무하러 갔다가 아침  
먹고 점심 굶고, 소나무 떨감을  
해오면 저녁에 죽 써서 한그릇  
먹었다.

시집와서 밥하려고 쌀단지를  
들춰보니 쌀이 없을 정도로  
가난했다.

굶어죽어도 체면을 중시했다.

무안박씨, 영양남씨, 대흥백씨가  
모여사는 짐성촌이라 집안끼리만  
어울리고 필요한 걸 빌릴 때도  
타성집에 가면 혼났다. 타성 집에  
놀러가는 건 생각하지도 못했다.

생활이 어려워 장례쌀을 빌려왔다. 장례쌀은 현대로  
말하면 사채쓰는 것처럼 쌀을 빌려온 후 이자와 함께  
갚는 형태인데 열되를 빌려오면 이자만 서되를 줬다.  
고리대금이었는데 그때는 그것도 모르고 곡식을  
빌려서라도 먹을 수 있는 것에 만족했다.

용의 못이란 뜻으로 용당산 아래 샘이 있으며 이곳에 살던 황룡과 오십천에 살던 청룡이 싸움을 하게 되었다. 어느날 마을 청년의 꿈에 황룡이 나타나 내일 오시 정각에 청룡이 공중에 치솟거든 칼로 청룡을 겨누어라 하고 칼을 주고 갔다.

다음날 황룡과 청룡의 싸움에서 청년은 잘못 겨누어 황룡을 죽였다. 황룡은 샘에 빠져 죽었는데 이 샘을 용담샘이라 불렀다. 용담샘은 여름에는 매우 차고 겨울에는 따뜻하며 마을 사람들이 신성시 여겨 제관들이 마을 제사를 지낼 때 목욕재계하는 장소이다.



축산면 경정2리

## 차유마을을 만들어 온 오색 이야기

최하탁

초등학교에서는 지역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마을 이야기를 해당마을에서 마을 내력을 가장 잘 아는 분을 초청하여 학생들에게 들려주는 지역 바로 알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에게 지역에서 성장하면서 유래를 가장 잘 알고 고향을 사랑할 줄 아는 젊은이로 성장시키기 위한 인성 교육 프로그램이죠.

이번 시간엔 축산면 경정 2리 차유마을에 대하여 김수동 노인회장님을 모시고 다섯 가지 작은 주제를 통해 마을을 만들어 온 사람들의 오색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는 지역에서 자라나는 꿈나무 어린이들에게 우리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찾아온 경정2리 차유마을에 사는 김수동입니다.”

“안녕하세요!”라며 어린이들 모두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김수동 노인회장님은 크게 헛기침을 한 번 하시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경정2리는 자연부락 이름이 차유마을이에요. 영덕대계 원조 마을로 잘 알려져 있죠. 그리고 영덕대계 원조(元祖)<sup>1</sup>마을 기념탑도 있구요. 우리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다섯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겠습니다.”

와~~~ 학생들은 힘찬 박수로 즐거워했습니다.

“먼저 경정2리를 차유마을로 부르게 된 이유를 알려 주겠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궁금해요” 어린이들이 재촉하네요.

“이 이야기는 옛날 고려시대로 올라갑니다. 고려 제29대 충목왕 2년인 1345년에 지금은 영해라고 불리지만 그 당시는 예주라고 불렀어요. 예주 부사로 임명받은 정방필 부사가 관할 내 마을을 순찰하는 초도순시<sup>2</sup>를 하게 되었죠. 그땐 도로도 잘 정비되지 않은 신작로였어요.”

1 원조

어떤 사물이나 물건의 최초 시작으로 인정되는 사물이나 물건.

2 초도순시

한 기관의 책임자나 감독자 등이 부임하여 처음으로 그 관할 지역을 순회하여 시찰함.



“신작로가 뭐예요?”

“신작로는 새로 만든 길이라는 뜻이에요. 옛날엔 소달구지가 다닐 수 있도록 길을 닦는 것이 가장 큰 일이었죠. 지금은 자동차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넓게 새로 낸 길을 말합니다.”

“예. 그렇군요”

“이런 길로 예주 고을 원님<sup>1</sup>께서 바닷가의 우리 마을을 찾아오셨죠. 그래서 대게를 잡아 대접했어요. 그런데 부사께서는 맛이 아주 특별하고 맛있어서 마을을 구석구석 살핀다는 핑계로 하루를 더 머물게 되었죠.”

“대게 맛은 우리도 잘 알고 있어요. 아주 맛있으니까요.”

“그렇죠. 대게 맛은 최고니까. 그 당시엔 우리 마을 이름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마을 어르신들이 원님께 청하여 마을 이름을 지어 달라고 했답니다. 그랬는데 원님께서 한참을 고민하시다가 ‘차유마을’이라고 지어 주셨답니다. 수레 차(車)와 머무를 유(留)라고요.”

“아하~~~ 그래서 차유마을이라고 했네요.”

“그런데 문제는 일반주민들은 우리 마을을 ‘수구넘이’마을이라고도 했답니다. 이 말은 옛날 어른들이 한자나 글자를 잘 몰랐으니 ‘원님께서 수레를 타고 고개를 넘어간 마을’이란 뜻에서 ‘수구넘이 마을’이라 불렀다고 봅니다. 지금은 차유마을이라고만 불리고 있답니다.”

<sup>1</sup> 고을 원님

예주 고을을 관리하고 담당하는 최고의 수령. 즉 예주 부사.

“두 번째는 마을을 개척<sup>1</sup>한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재미있어요. 빨리 들려주세요”

학생들은 지역 마을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에 눈망울이 초롱초롱해지면서 옛날이야기처럼 듣고 있었습니다.

“우리 마을의 개척 연도는 알 수 없지만 ‘안씨 할배와 권씨 할배’가 처음으로 마을에 들어와 살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안씨와 권씨가 살고 있나요?”

“지금 우리 마을엔 안씨나 권씨 성을 가진 분들은 없어요. 그러나 마을에서는 동신제<sup>2</sup>를 지내고 있어요. 마을 중심부에 마을회관 있는데 그 뒤편에 두 분을 모시는 사당이 있고, 매년 정월대보름과 9월 9일 중구<sup>3</sup>에 동신제를 지내오고 있답니다.”

“동신제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바닷가 마을에는 10년 단위로 풍어제를 크게 지내고 있답니다. 풍어제는 고기가 많이 잡히고 어부들이 안전하게 어로작업을 할 수 있도록 용왕님께 제사를 지내는 풍습<sup>4</sup>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을엔 풍어제가



#### 1 개척

1. 거친 땅을 일구어 논이나 밭과 같이 쓸모 있는 땅으로 만들.
2. 새로운 영역, 운명, 진로 따위를 처음으로 열어나감. 즉 마을에 처음 들어와 마을을 가꾼 사람을 말함.

#### 2 동신제

마을 사람들이 마을을 지켜주는 신인 동신(洞神)에게 공동으로 지내는 제사.

#### 3 중구

세시 명절의 하나로 음력 9월 9일을 이르는 말. 이날 남자들은 시를 짓고 각 가정에서는 국화전을 만들어 먹고 놀았음.

#### 4 풍습

풍속과 습관을 아울러 이르는 말.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과 풍습.

없어요. 대신 정월대보름(음력 1월 15일)엔 마을총회와 동신제를, 중구(음력 9월 9일)엔 동신제를 매년 두 번씩 지내면서 마을의 평화와 안전 조업을 기원<sup>1</sup>드리고 있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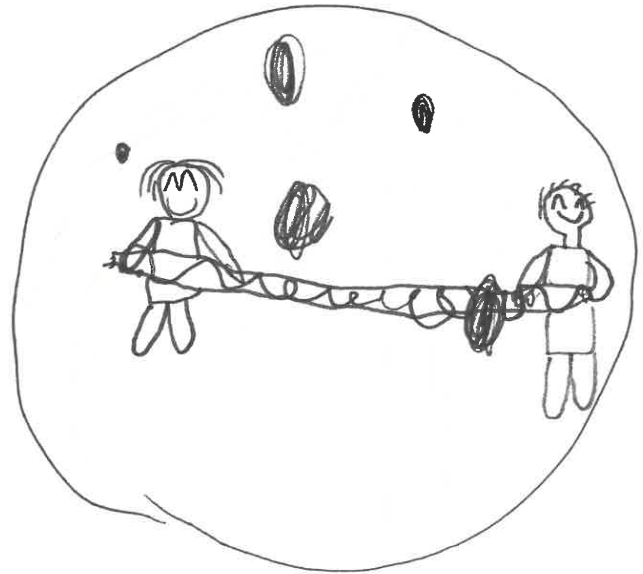
“이러한 이유는 풍어제를 어느 해인가 지내고 나서 마을에 많은 근심과 걱정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무속인들에게 물어보니 이 마을은 풍어제를 지내면 안 좋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 이후로 풍어제는 지내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무속인은 풍어제 대신에 마을을 개척하신 안씨와 권씨 할배가 풍악을 아주 좋아하니 정월대보름과 중구 때 풍악을 울리며 놀아줘 마음을 달래 주면 할배들이 기분 좋아서 동네를 편안하게 만들어준다는 이야기에 따라 지신밟기를 하고 있어요.”

“진짜 그랬을까요?” 어린이가 궁금해 하며 질문했어요.

“그렇게 풍악을 울리고 나면 마을에 근심과 걱정이 없어졌다고 해요. 이때 마을 중심부에 있는 마을회관을 기준으로 남쪽편과 북쪽편으로 갈라 출당기기도 하면서 마을 단합을 기원하기도 했습니다.”

경정2리는 이러한 지신밟기를 풍어제로 대신하고 있어요. 어촌마을 중에 풍어제를 지내지 않는 유일한 마을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는 마을에 젊은 층이 없고 고령화 되어 가고 있어 자체적으로 운영할 여력이

1 기원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빌.





없습니다. 20여 년 전부터 영덕대게축제 때  
풍악패가 회관 앞에 와서 재단을 향해 5분 정도  
놀아주고 가는 풍물패 놀이로 풍어와  
안전을 바라는 기원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500여 년 전 당파싸움에서  
밀려 내려와 살았던 김해김씨 후손들이  
주로 정착하여 대게잡이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게 원조마을의 유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려 태조 왕건이 서기 940년 동해안 지역을 순시  
때 누르스름하고 황금빛을 내면서 딱딱한 껍질을 가진  
아주 맛있게 먹은 해산물을 다시 한번 먹고 싶다고 해서  
신하가 찾아왔어요. 죽도산 인근 마을로 기억하면서요.”

“영덕대게는 아주 맛있어요.”

“맞아요. 대게는 좀 비싸지만 아주 맛있죠. 그런데  
대게 이름이 옛날에는 죽해(竹蟹)라고 했어요. 대나무  
모양의 긴 다리를 가진 벌레라는 뜻이지요.”

“이름이 우스워요”

“죽해라고 한 이유는 죽도산 앞바다에서 잡힌 맛있는  
해산물이어서지요”

“죽도산은 왜 죽도산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요. 죽도산은 본래 거기에 있던 것이 아니고  
대나무가 가득 심겨있는 산이 축산항 앞바다로  
떠내려와 자리 잡은 것을 어촌마을 사람들이 대나무가

많은 산이라고 해서 ‘죽도산(竹島山)’이라고 불리게 되어  
지금도 죽도산이라고 합니다.”

“와~~ 죽도산이 떠내려와 자리 잡았다고요. 진짜  
멋진 전설이네요.”

한참을 학생들과 재미있게 얘기하다 보니 다른  
방향으로 얘기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다시 대게  
원조마을에 대한 유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나라에서 내려온 신하는 죽도산 인근 마을을  
찾아야 하는데 작은 포구에 고운 모래가 가득한  
백사장뿐이었어요. 크게 걱정하며 주변을 살펴보니  
작은 배에서 고기를 잡아 오는 어부를 발견했어요. 급히  
다가가 잡은 해산물을 확인해 보니 죽해와 비슷하여  
어부에게 물어보니 대게가 맞다고 했지요. 신하는  
아주 반가워하면서 어부에게서 즉시 구해서 왕실로  
올라갔어요. 그런 후에 우리 지역에서는 입안에서  
사르르 녹을 것 같은 맛을 가진 대게를 임금님께 매년  
조공품<sup>1</sup>으로 드리게 되었지요.”

“임금님은 아주 맛난 음식만 먹어서 좋겠어요.”

키가 큰 어린이가 부러운 눈빛으로 말하자 모두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이렇게 영덕대게의 명성은 천 년 이상의 세월을  
흘러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1999년 4월 17일 제2회  
영덕군민의 날에 정식으로 ‘영덕대게 원조 마을’로

<sup>1</sup> 조공품

속국이나 제후국이 종주국이나 천자에게 예의를 표시하기 위해 바치던 물품.

명명하는 인증서를 받게 되었지요.”

“대단해요. 축하드립니다.”

“이후 영덕군 군지 등 문헌에 따르면 많은 돈을 주고 포항지역 대학교 교수에게 의뢰하여 그림을 그리고 지품면 속곡 지역의 꽃돌을 가져와 ‘대계 원조마을 표적비’를 지금 위치에 건립하였고, 영덕대계축제 때 기원제를 지내게 되었어요.”

이와 같이 영덕대계는 고려의 태조 왕건에게 조공을 시작했습니다. 그 세월이 1,100여 년을 흘러오고 있어요. 영덕군으로부터 원조마을 지정서를 받아 표적비까지 세움으로써 축산면 경정2리는 확실한 영덕대계의 원조마을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영덕대계축제 기원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올해 영덕대계축제는 제27회째입니다. 축제 시작을 알리는 최초의 행사가 기원제인데요. 기원제는 원조마을인 우리 마을에서 지내고 있어요.”

“기원제는 어떻게 지내는 거예요?”

“요즘 기원제는 대계원조마을 표적비 앞에서 간단한 제사만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15년 전부터 우리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지낼 때는 마을 중심부에 있는 사당과 마을회관 앞에서 풍악놀이를 하고 마을을 한바퀴 돌며 안녕을 기원하는 지신밟기를 하기도 했지요.”

“기원제에 특별한 행사가 있었나요?”

“질문 잘했어요. 깜빡 잊을 뻔했네요. 올림픽엔 성화 봉송 점화가 시작을 알리잖아요. 이와같이 기원제는

영덕대계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시작점이었죠. 처음에는 기원제를 지낸 다음 축산항에서 어선으로 강구항까지 가는 해상 퍼레이드를 진행했습니다. 축산항에서 출발한 5척 정도의 배는 강구항에서 마중 나온 배가 중간지점인 해맞이 공원 앞바다 부근에 도착하여 봉화를 어선 위에서 이송해 강구항에 도착하면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어선들의 해상 퍼레이드가 아주 멋졌겠네요?”

“그럼요. 맑고 푸른 동해 바다 위에서 펼쳐지는 모습이 아름답기도 했고 멋있었어요.”

지금도 기원제는 영덕대계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때 풍물패가 마을 서낭당 앞에서 한바탕 놀아 마을을 개척하신 분들을 위로하고, 차유마을의 평화와 풍어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는 마을에 기 받기 좋은 명당이 2곳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마을 이야기가 재미있어요. 빨리 해 주세요”

학생들은 마을 어르신이 하시는 이야기가 아주 재미있다면서 이야기를 재촉했습니다.

“마을 정기가 좋은 2곳은 마을 북쪽에 영덕 블루로드로 올라가는 입구 쪽 돌출부와 남쪽은 현재의 대계 원조 마을 표적비가 있는 곳이에요.”

“2곳 모두 마을 근처에 있네요”

“그럼요. 북쪽에 있는 돌출부는 부처님 연꽃

모양의 지형으로 마을을 지켜준다는 아주 좋은 명당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묘를 쓰면 후대엔 정승<sup>1</sup>이 나오지만 3대째는 망한다는 설이 있었대요. 그래서 한동안은 가묘<sup>2</sup>를 썼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자연 그대로입니다.”

“그럼 남쪽에 있는 기반기 좋은 곳은 어떠했나요?”

“남쪽은 6.25전쟁 때 경찰관을 파견하여 밤에 순찰하는 초소를 지으려고 땅을 팠더니 뼈가 나왔어요. 발굴된 인골이 아주 크고 튼실해서 장군감일 것으로 추정되었대요. 혹시 과거에 높은 벼슬을 하든 집안의 순장<sup>3</sup>지였을 수도 있었다는군요.”

“와~~~ 아주 전설 같은 얘긴데요.”

“거기에 요즘도 기 받기 좋은 곳이라고 하는 표지석이 있나요?”

어린이들은 궁금증이 많았습니다.

“음~~ 북쪽은 그런 표지석이 없는데 군부대 초소가 있어요. 그리고 남쪽은 영덕대계 원조마을 기념탑이 있구요. 기기서 조금 더 남쪽으로 가면 ‘경상북도 동해안

지질공원’이 있어요. 거기에 기 받기 좋은 곳이란 표지판이 서 있습니다.”

기 받기 좋은 명당 이야기는 영덕군에서는 관리하는 영덕 블루로드 코스를 지나는 길목입니다. 좋은 기를 받고 싶은 어린이들이 저마다 기 받으러 가겠다고 웅성거렸어요.

할아버지께서 친손주에게 얘기하듯이 노인회장님은 마을과 관련된 옛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주셨습니다.

#### 1 정승

고려 후기, 조선 때의 관직명 중 하나이다. 고려 때는 문하시중을 정승이라 불렀고, 조선 때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등 삼정승과 정승급 대신들을 정승이라 불렀음.

#### 2 가묘

조선시대의 사대부들이 고조(高祖) 이하의 조상 위패(位牌)를 모셔놓고 제사를 지내던 집안의 사당(祠堂).

#### 3 순장

왕이나 귀족 등의 죽은 사람을 매장할 때 그 하위계층의 사람들을 함께 묻는 풍습.

차유는 더 동쪽 바닷가 마을,  
그 옛날 나으리께서 수레타고 머물적에  
마을은 절로 차유(車留)가 되었다네

물바람이 지나는 수레 발자국 찾아  
오늘은 내가 왔네  
달달하고 고소한 집집마다 붉은 대계를 찌면  
흰 물결도 냅다 바람을 타고  
머무르고 싶은 차유언덕을 올려보았을 터  
달달하고 고소한 대계, 원조는 누가 뭐래도  
차유마을 대계지

오늘은 싱싱한 바다 한 상을 내가 받는다  
수레타고 머물다 간 그 나으리 마음도  
나와 같이 둥근 저 달을 밀어 올리신 걸까  
오늘 밤 굳은 몸 풀어 헤치고  
높고 환한 차유마을에 닿는다

진행 마을
축산면 경정2리
장소
경정2리 마을회관
인터뷰 대상
김수동(노인회장), 박성태(이장), 이봉(어촌계장), 김흥호(새마을지도자), 박광우(마을임원)

예주(영해) 부사 정방필이 부임하여 초도순시 때 소달구지를 타고 신작로를 따라 넘어 온 원님께 대게를 대접한 후 맛이 특별하여 하루 더 머물렀어요. 이때 동네 이름이 없어 마을 이름을 지어 줄 것을 청하였는데 차유(수레‘車’ 머무를 ‘留’)마을이라 이름을 지어 주었어요. 그 이후 차유마을이라 부르고 있어요.

그러나 옛날에는 ‘수구너미’ 마을이라 불렀어요. 왜 그러냐 하면 어른들이 한자를 제대로 모르고 풀어서 불렀는데요. 수레 타고 넘어와서 자기 동네 이름을 지었다 설명하다 보니 그렇게 불린거라고 생각한다.

그 시기가 고려 제29대 충목왕 2년 1345년으로 지금으로부터 679년 전의 일인데, 대게를 왕에게 진상했다고 해요.

영덕대게를 임금님께 진상했어요.

고려 태조 왕건 서기 940년 지역을 순시할 때 맛을 본 기억으로 대게를 좀 구해오라 했대네요.

대게를 한자로 죽해(竹蟹)라고 했어요. 게 다리가 대나무 마디처럼 곧고 쪽 뺏었다고 해서요.

어명을 받은 신하가 백사장만 있던  
조그만 항구인 지금의 축산항에 와서  
수소문 끝에 어촌마을에 사는 어부를  
만나 사정을 얘기하고서는 대계를  
힘들게 구해 가져갔어요.

1999년 4월 17일 제2회 군민의 날  
기념식에서 경정2리가  
대개원조마을임을 공식적으로 명하는  
임명장을 받았어요.

영덕군 문헌에 따르면 수천만 원으로  
포항 교수에게 의뢰, 그림을 그리고  
속곡의 꽃들로 현 위치에 기념탑을  
건립했어요.

죽도산에 설화가 있어요.

죽도산은 신라가 축산항에 왔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죽도산이 처음부터 산이 있었던 게 아니라  
산이 떠돌아다니다 여기 와서 붙어서 산이 되었다는  
설화가 있어요.

## 영덕대계축제 기원제는?

풍어제를 하지 않는 우리 마을이 2006년경부터 15년간  
마을 자체 경비로 기원제를 지내 왔지요.

그러다가 2021년부터 영덕대계축제에서 소액의  
지원금을 지원받아 지냈고, 2023년부터는  
영덕문화관광재단에서 주관하여 지내고 있지요.

기원제는 영덕대계축제를 알리는, 올림픽처럼 성화  
봉송의 시작점이 되었고, 처음에는 선상 이동을 통해  
행사를 했어요. 축산항에서 선박의 협조를 받아 해상  
퍼레이드를 진행했어요.

강구항 쪽으로 가다가 중간지점인 해맞이 공원 부근 앞  
해상에서 강구 쪽에서 마중 나온 5척의 배들이 마치  
올림픽 성화 봉송처럼 인수인계로 진행했어요.

## 영덕대계축제 기원제는?

개척연도를 알 수 없어요. 그래도 안씨와 권씨 였다고  
해요.

풍어제는 풍랑을 만나더라도 안전사고 없이 고기를  
많이 잡아 오게 해달라고 용왕님께 비는 것인데, 우리  
마을이 어촌마을 중 유일하게 풍어제를 지내지 않아요.  
그 이유는 마을 어르신들도 잘 몰라요. 짐작하기로는

어느 해인가 풍어제를 지내고 나서 마을에 우환이 들었고, 무속인들에게 물어보니 이 마을은 풍어제를 지내면 안 좋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 이후로 지내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요.

그 이후로는 정월대보름(음 1월 15일)엔 마을총회와 동신제를, 9월 중구(음 9월 9일)엔 동신제를 지내고 있죠. 동신제는 마을을 개척하였다는 안씨와 권씨 할배를 모시는 행사예요.

안씨 할배가 풍악을 아주 좋아했다는 무속인의 증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월대보름 때 풍악을 놀아줘 마을을 달래고 있죠. 그러면 할배가 기분좋아서 동네를 편안하게 만들어준다는 이야기 때문이지.

이때 마을회관을 기준으로 남쪽, 북쪽 사람으로 갈라 줄당기기를 했어요. 이것을 풍어제로 갈음했고, 어촌마을 중에 풍어제를 지내지 않는 유일한 마을이 되었죠.

현재는 영덕대게축제 때 기원제를 지내며, 풍악패가 와서 회관 앞 재단에서 5분 정도 놀아주고 가는 지신밟기로 갈음하고 있어요. 그것이 20여 년이 되었어요.

지금은 안씨와 권씨 할배 후손들은 살지 않고, 남, 북 당파싸움에서 진 후대인 김해김씨가 옮겨와 살며 북향재배하다가 사망했는데, 우리가 김수로 왕의 90대손이죠. 지금으로부터 약 500여년 전의 일이에요.

우리 마을에 정기가 좋은 곳이 2곳 있는데  
그 이야기가 재미있어요.

북쪽에 있는 지형은 부처님 연꽃 모양으로 마을을 지켜준다는 아주 좋은 명당이에요. 위치가 영덕블루로드길 올라가는 입구 쪽 돌출부고요. 이곳에 묘를 쓰면 후대에 정성이 나오지만 3대째는 망한다는 설이 있었요. 한동안은 가묘를 썼는데 이제는 없어졌어요.

남쪽은 현재의 대계원조마을 기념탑이 있는 곳이에요. 6.25 전쟁 시 경찰관을 파견, 야경 순찰하는 초소를 지으려고 땅을 팠더니 뼈가 나왔다고 해요. 발굴된 인골이 장군감이었다나. 그래서 혹시 과거 순장지 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영덕대게축제 기원제는 장소도 문제였어요. 2012년도엔 탑 밑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2014년도엔 탑 바로 앞인 위에서 제사상을 만들어서 지냈는데 해를 봤어요. 왜 그런가 다시 생각해보면 사람이 묻혀있는 곳에서 제사를 지낸 셈이지. 그 이후엔 다시 아래로 내려와 지내고 있죠.

식당을 운영하다 보면 다양한 손님들이 오는데, 풍수쟁이가 탑을 딱 보더니 “저런 현상이 잘 없는데, 기운이 좋다”라고 했데요.

이런 명당자리는 인기가 많은 영덕블루로드 코스가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인생샷의 사진찍기 좋은 곳으로 개발해도 좋을 것 같아요.

새천년기념숲을 만들었지요.

새천년기념숲은 새로운 천년의 시기가 온다고 해서 그것을 기념하여 마을마다 공터 중심으로 일정규모 크기로 만들어 나무를 심었어요. 우리 마을도 제3회 군민의 날인 2000년에 조성되었는데 지금 대계원조마을 기념탑 부지와 같이 있어요.

이 부지는 과거 노상 화장터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우리마을을 지나가는 영덕대계로가 개설되었지요.

영덕대계로는 예전엔 강축도로(강구~축산간 도로)라고 했는데, 기존 코스는 경정1리에서 염장 쪽으로 바로 넘어가는 도로였어요.

우리 마을을 지나가는 도로는 마을기금으로 만든 자체적인 신작로였어요. 지역의 사업자(신라건설)가 도움을 주어 건설하였죠.

그런데 강축도로가 확포장 된다는 소식을 접하자 마을 주민 모두가 우리 마을을 지나가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어요.

이때 지역 국회의원에게 부탁하여 반드시 차유마을을 경유하는 도로가 확포장되어야 한다고 마을 주민 모두의 뜻을 담아 강력히 부탁하여 현재와 같은 도로로 개설되었어요.

도로가 준공된 해인 1995년에 마을 입구에서 제일 높은 제인 다불제에서 준공식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지품면 용덕1리

나는 할머니나 할아버지께서 들려주는 옛날이야기를 들으며 잠 잘 자는 아이 덕용이입니다. 영덕군 지품면 용덕1리에 살고 있죠. 오늘은 할아버지께서 우리 동네에 전해져 오는 전설에 대해 들려주셨습니다.

“덕용아! 이리 오렴. 우리 마을에서 오랫동안 전해지는 재미난 마을 이야기를 들려줄게. 얘기 들으면서 자거라.”하면서 나를 불러 무릎에 앉혔습니다.

“우리 마을은 약 500여 년 전에 김(金)씨 성을 가진 사람이 개척<sup>1</sup>했단다.”

“우리 마을이 생긴지 500살이 넘었다구요!”

1 개척  
마을을 일구어 만들어 정착함.

“그럼. 오래된 전통 있는 마을이지. 우리 마을 앞을 흐르는 송천천은 멀리 주왕산에서 시작하여 상덕 마을<sup>1</sup>과 하덕 마을<sup>2</sup>을 지나 마을 앞을 흘러 오십천<sup>3</sup>으로 들어가는 물길이란다. 하덕 마을을 지나 우리 마을 뒤쪽 약 1km 지점에 아주 높은 절벽이 있는데 그리로 흘러 물이 커다란 폭포를 만들어 놓았지.”

“아하! 마을 뒤쪽 계곡에 있는 폭포 말이지요.”

“그래”

“그 절벽의 폭포 높이가 얼마정도예요?”

“음~ 한 20m는 되지. 요즘 아파트로 치면 6~7층 높이쯤이지.”

영덕군 지품면 용덕1리 마을은 영덕문화원이 발행한 지품면지에 따르면 구룡동(九龍洞)의 용(龍)자와 대덕동(大德洞)의 덕(德)자를 따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마을로 가는 길은 신양리 분기점에서 달산면 인곡리 방향으로 가는 도중 용덕교에서 갈라지는 101번 지방도로 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웃 마을은 서쪽으로는 용덕2리와 송천2리, 마고산을 넘어서면 늘곡리가 있고, 남쪽으로는 인곡리가 있습니다.

1 상덕 마을  
송천2리의 자연부락인 윗 마을 이름.

2 하덕 마을  
송천2리의 자연부락인 아랫 마을 이름.

3 오십천  
지품면 기사리에서 시작하는 하천과 포항시 상옥리부터 시작하는 대서천이 만나 영덕읍내를 흐르는 중심 하천으로, 오십여 개의 계곡물이 만나 흐른다고 해서 오십천이라고도 함.

16세기경 경주김씨 김귀일이란 분이 입주하여 마을을 개척했다고 하네요. 마을 서쪽에 장관을 이루는 폭포를 기준으로 마을을 둘러싼 산머리 아홉 개가 마치 용머리처럼 생겼다 하여 구룡기라 하였답니다.

“할아버지! 그 폭포에 특별한 이야기가 있나요?”

“그럼. 아주 특별한 전설이 숨어 있지.”

“얼른 얘기해 주세요. 궁금해요.”

“그래? 그러자꾸나. 잘 들어 보렴. 이 폭포엔 사시사철<sup>1</sup> 언제나 맑은 물이 가득해서 마르지 않았지. 그래서 이곳에 아홉 마리의 용들이 각자의 방을 만들어 살고 있었단다.”

“용이 아홉 마리나 살았다구요?”

“그래. 아홉 마리 형제의 용들은 서로 사이좋게 물놀이를 즐기면서 잘 살고 있었지.”

“에~이, 그냥 잘 살고 있었다는 게 다예요? 특별하지도 않구만.”

“허허, 그렇지. 서로 사이좋게 잘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데. 요즘 바라. 2~3명 밖에 안되는 형제들이 서로의 욕심을 채우려고 싸움을 한다는 소식들이 가끔 들리잖니? 그러니 사이좋은 모습들이 큰 행복이고 즐거움이지.”

“그건 그렇지요”

“그런데 이들에게도 한가지 바라는 소원이 있었단다.”

“그게 뭔데요?”

“그것은 하늘나라에 한번 가고 싶은 게 소원이었지.



김윤희

1 사시사철

봄·여름·가을·겨울 네 철 내내의 동안.

그래서 이들은 비만 오면 난리가 났단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비를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란다.”

나는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습니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재미있었습니다.

“예전 우리의 조상들께서는 농사일에 굉장히 신경을 쓰셨단다. 농사가 잘되어야 우리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쌀과 콩, 보리 같은 곡식을 많이 수확할 수 있었으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가끔은 비가 오지 않을 경우는 농작물이 말라 죽어버리든지 하여 수확량이 절반도 되지 않을 때도 있었단다. 그럴 때는 농부들의 마음이 많이 아파했단다. 그래서 가뭄이 계속될 때는 하늘에 제를 올려 비를 내리게 해달라는 기우제<sup>1</sup>를 지내기도 했지. 이러한 기우제는 마을에서 가장 신성한 곳에 가서 정성을 들여 하늘에 제사를 지냈단다.”

“비를 오게 하는 기우제를 지냈다는 얘기는 들어봤어요. 할아버지!”

“그래, 그런데 우리 마을의 기우제는 좀 특이했단다. 우리 마을에서 가장 신성한 곳은 바로 구룡폭포가 있는 곳이거든. 우리 조상들은 폭포가 있는 구룡기를 찾아가 제사를 정성들여 지내고 난 다음 폭포수 웅덩이에 오물을 던져 넣었다는구나. 그러면 그곳에 사는 아홉

1 기우제

고려·조선 시대에, 하지(夏至)가 지나도록 비가 오지 않을 때에 비 오기를 빌던 제사.



마리 용들이 깜짝 놀라 더러운 오물물을 벗어나기 위해 야단이었지.”

“호호, 재미있어요. 할아버지!”

“그렇게 아홉 마리 용들이 서로를 의심하면서 싸우는데 이른 모습을 지켜보는 하늘이 언젠가 하늘나라로 올라올 것인데 그렇게 참을성이 없다면 야단을 치기도 했단다.”

“그럼 비는 오지 않았나요?”

“아니지. 하늘에서 싸움을 진정<sup>1</sup>시키기도 하고 더러워진 폭포수 웅덩이 물을 맑게하기 위해 많은 비를 자주 뿌려 주었다.”

“아하, 좀 우스우면서 의미 있는 얘기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서로 사이 좋게 지내야 한다는 뜻도 있었단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참 재미있고 아름답지?”

“예.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참 부러워요.”

“그 이후부터 우리 마을을 아홉 마리 용들이 살아가는 마을이라고 해서 구룡기 마을이라고도 불렀단다.”

저는 할아버지께서 들려주신 우리 마을 구룡폭포에 담긴 재미난 전설을 들으며 어느새 잠이 들었습니다. 이튿날 단잠을 자고 난 저는 할머니께서 맛나게 차려주신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가 우리 마을의 구룡폭포에 대한 전설을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1 진정  
참되고 애뜻한 정이나 마음.



선생님과 아이들이 아주 재미있게 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담임선생님께서 우리 마을에 분교도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 할머니께 우리 마을 학교 이야기를  
해 달라고 보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할배가 더 많이 알고 있으니 나중에  
할배에게 얘기해 달라고 해라.”며 거절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당장 궁금한 걸 해결하고 싶어 다시  
졸랐어요. 그랬더니 저의 졸림에 못 이겨 옛 학교터가  
있는 마을 중앙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여기가 옛날 학교가 있었던 곳이란다. 1963년도에  
지품초등학교 용덕분교로 개교<sup>1</sup>했지”

“지금 이 2024년이니까 61년 전의 일이네요.”

“그럼, 개교 당시만 해도 우리 마을에 학생수가  
40명쯤이었고, 용덕2리까지 합하면 60명쯤 되었을걸.  
지금은 아이들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힘들지만.”

“그렇게나 많았어요?”

“그래, 한집에 3~4명은 보통이었지. 요즘은 1명이  
될까 말까지만.”

“할머니! 저는 우리 동네엔 친구가 없어요. 학교에  
가도 몇 명 되지 않아서 싫어요. 친구가 많았으며  
좋겠는데.”

“그러게. 동네 아이들을 볼 수 없어서 큰일이구나.

1 개교  
학교를 새로 세워 처음으로 운영을 시작함

그래도 덕용이가 있어 아주 다행이지. 착한 내  
손주니까!”

학교터는 마을 중앙에 텅빈 운동장 부지<sup>1</sup>만 남아  
있고, 교문이 있던 자리엔 교적비<sup>2</sup>가 건립되어 있어  
학교가 있었음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교적비 내용을  
보면 「지품국민학교 용덕분교장, 1963년 5월 1일  
개교하여, 졸업생 335명을 배출하고 1991년 3월  
1일 폐교되었다」라고 적혀 있어요. 1995년 3월 1일  
경상북도 교육감이 세웠네요.

할머니께서는

“학교에서 소풍을 가게 되면 우리 마을 뒤편에 있는  
구룡폭포로 도시락을 싸가지고 걸어서 갔지. 예전엔  
길이 오솔길이어서 소달구지가 겨우 지나갈 정도로  
좁은 길이었단다.”

“그럼 소달구지 타고 갈 수도 있었잖아요?”

“소달구지는 일을 해야했지. 집집마다 소를 한  
두 마리씩 키웠는데 모두가 농사일을 할 때 소를  
이용했단다.”

“소가 아주 중요했겠네요?”

“그럼. 소가 없으면 농사일을 하지 못했지. 밭을 갈고,  
논을 쓸어 모내기를 하고. 소가 하는 역할이 아주 고되고  
힘든 일은 모두 해결해 주었지.”

1 부지  
건물을 세우거나 도로를 만들기 위하여 마련한 땅.

2 교적비  
학교가 있었다는 흔적을 남기기 위해 세운 기념 비석



“아하~ 그랬군요”

“학교를 지을 때도 소를 많이 이용했단다. 운동장을 정리할 때도 그랬고, 교실을 세울 때 힘든 일은 소를 이용했더랬지.”

“지금은 소가 거의 없잖아요?”

“지금은 기술이 발달되고 해서 농기계가 농작업을 대신하고 있으니 소가 필요 없게 되었지. 또, 소를 키우려면 전염병 같은 것이 겁도 나고 해서 일부 농가들이 전문가가 되어 집단으로 사육하고 있지.”

“할머니! 우리 마을 학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내일 학교에 가서 또 자랑할 거리가 생겼어요. 고마워요.”

요즘 구룡폭포로 가는 길은 없어져서 하천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하천 변을 따라 300여m를 가면 폭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천 주변에 논농사를 짓고, 땀감용 나무를 했기 때문에 폭포로 가는 오솔길이 잘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력 3월 3일 삼짇날이 되면 이웃마을 청춘남녀의 만남의 장소로 이용 되었구요. 지품초등학교 용덕분교의 소풍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논이 묵고 나무도 하지 않아 가기가 쉬지 않아 숨은 폭포가 되었습니다. 어렵게 찾아간 길에 맑은 물에 노는 영덕황금은어를 만났구요. 물고기가 자유스럽게 노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구룡폭포가 있는 골은 황새골이며,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물은 폭포를 이루어 깊은 소(큰 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소 앞에는 물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물총바위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물총바위 뿌리엔  
 둔폭이란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둔폭(遯瀑)은  
 흘러지는 물줄기란 뜻이래요. 또, 절벽 위에도 글자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참고자료>

용이 사는 계곡의 용덕리 혼성암

구룡폭포로 가는 길 하천의 암석은 모두가  
 고생대 페름기 혼성암입니다.

출무늬가 마치 용처럼 보이는 암석으로 지하 깊은  
 곳에서 열과 압력을 받을 때 밝은 부분은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분리되어 나오고, 검은 부분은 고온까지  
 견딜 수 있으므로 검은 부분과 흰 부분이 분리됩니다.  
 따라서 혼성암은 고온 및 고압에서 암석이 완전히 녹은  
 상태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녹은 상태에서  
 만들어집니다. 우리나라에서 선캠브리아(약 6억년전)  
 이전의 혼성암은 비교적 많이 있으나, 고생대 페름기  
 시기의 암석은 상대적으로 적어서 이곳 용덕리  
 혼성암은 지질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 물소리를 듣는다

최정연

물소리를 듣는다

골짜기로 흘러 들어간 용덕리마을은  
늘 푸른 암벽이 두르고 있다

황새골 밤마다 불어나는 물소리  
푸른 바람 일으키며 사방이 물결치는 날  
산머리 아홉 개 달린 용이  
하늘로 솟구쳐 올랐다네  
아무도 본 사람은 없지만  
마을 할배들 그 물소리 자꾸 듣고  
옹지, 옹지  
이름을 구룡폭포라 불렀다

더 깊은 골짜기로 자꾸 흘러가는 물소리,  
그래, 그래  
마르지 않는 샘물 소리지

진행 마을

지품면 용덕1리

인터뷰 대상

김종영(이장), 김귀조, 김분란,  
김일호, 김종대, 김종인, 김종하,  
이옥자, 유금예

용덕1리의 가장 큰 전설 같은 이야기는 구룡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룡기라 불리는 것은 구룡폭포에 9마리 용이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9마리 용이 서로 승천하려고 했는데 모두 못했어요.

큰 가뭄 때 기우제를 지내게 되면 맑고 깨끗한 물에  
오물을 던져 넣으면 아홉 마리 용들이 더러움을 못이겨  
용트림을 치면 먹구름이 몰려와 비를 내리게 했다고  
해요.

구룡폭포가 있는 골은 황새골이에요.

황새골로 가는 하천엔 영덕황금은어가 살아가고  
있어요. 워낙 맑고 깨끗한 물이라 자연스럽게 볼 수  
있어요.

은어는 동해바다에서 큰물을 따라 올라와서는 가뭄이  
있을 때는 내려가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지요. 이들을  
육봉이라고 하기도 해요.

예전 황새골은 농사도 짓고 나무를 해서 땔감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하천 주변이 깨끗했어요. 그래서  
삼짓날에 주변 마을의 청춘남녀가 만남의 장소로  
이용했어요.

폭포로 가는 길도 흰했고 가기 쉬웠어요. 논을 부치고 있었고, 오솔길이 잘 나 있었어요.

지품 초·중등학교의 주된 소풍 장소이기도 했지요.

구룡폭포 가는 좌측 골은 사자골입니다.

지형과 산세가 사자를 닮았다 해서 사자골이라고 했데요. 그런데 몇 년 전 석산으로 이용되어 지금은 아주 웅한 모습이에요.

그나마 용덕2리로 가는 암석 절벽산 일부는 마을 주민들의 반대로 남아 있긴 합니다만.

구룡폭포엔 글자가 새겨진 바위들이 많아요.

폭포에 도착하여 큰 바위에 서면 둔폭(澗瀑)이란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그 뜻은 흘러지는 물줄기란 뜻으로 흘러진 물이 넘쳐 흘러간다는 뜻이지요.

폭포 옆 절벽 바위 위에도 글자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오랜 세월 때문인지, 낙석으로 보이지 않죠.

폭포 바로 앞에는 길게 드러누워 있는 모양의 물층바위가 있는데, 넘치는 물이 함부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소 앞에서 지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용이 사는 계곡은 수 억 년 전에 생성된 혼성암이래요.

이곳 혼성암은 경북동해안지질공원으로 등재되어 있지요.

계곡 바닥을 구성하고 있는 암석들의 모양이 줄무늬를 이루고 있어 마치 용처럼 보여요.

이러한 암석은 고생대 페름기 시기의 암석이라 상대적으로 적어서 용덕리 혼성암은 매우 중요한 장소라고 합니다.

용덕1리에 지품초등학교 용덕분교가 있었다.

교적비가 있는 자리에 가 보면 교실도 없고 부지만 남아 용덕분교가 있었다는 흔적이 있어요. 오래된 은행나무가 한그루 남아 있어요.

1995년에 경상북도교육감이 세운 교적비에 보면 지품초등학교 용덕분교장이라 하여 마을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어요.

1963년 5월 1일에 개교하여 졸업생 335명을 배출하였으며, 1991년 3월 1일 폐교되었다고 새겨져 있어요.



영덕읍 구미리

나는 구미리 할머니들이 가장 많이 애용하며 아껴 주시는 마을 경로당이야.

내가 든든하게 마을 중심에 사람들 눈길을 끄는 단정한 모습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해준 할머니 단체, ‘핑크 할머니 클럽’을 자랑하려고 한단다.

내가 지금처럼 마을 중심에 자리 잡을 수 있게 땅을 마련해 준 할머니들 젊은 시절의 억척스러운 활동은 그 당시 영덕의 여러 마을과 각 기관 단체에서 칭찬이 자자했으며 완벽하게 단합된 활동에 감탄했단다.

구미리 마을을 선구적<sup>1</sup>으로 변화시킨 할머니 클럽의 활동을 지금부터 자랑할 거야. 잘 들어 봐.

1 선구적  
어떤 분야에서 남보다 앞장서는 것.

부녀회장은 새벽 첫닭 울음소리가 들리자마자 일어나 마을 사람들이 공동 집으로 이용하는 곳으로 나갔다.

이곳은 옛날 택이 할머니가 사시다가 돌아가신 후 마을 사랑방이 된 곳이다.

오늘은 읍내에서 군 복사꽃 잔치가 있는 날이며 구미리 부녀회에서 맡은 일을 차질없이 완벽하게 해야 하므로 부녀회장은 일찍 서두른다.

군에서 이렇게 큰 행사를 하는 날에는 행사장에 오는 사람들 점심을 맡아서 봉사하면 부녀회 기금을 확보<sup>1</sup>할 수 있으므로 부녀회장은 삼월 초봄부터 아주 적극적으로 발품<sup>2</sup>을 팔아 결정권을 얻었다.

복사꽃잔치 진행 책임을 맡은 기관에서 구미리 부녀회에 한 번 일을 맡겨 보고는 아주 완벽히 만족해하며 그 후 신청하면 어렵지 않게 선택되었다.

부녀회장이 어제 미리 준비해둔 도구들을 다시 한번 더 살펴보고 있을 때 마을 이장 트럭 소리가 났다.

“아이고 회장님요, 오늘은 내가 회장님보다 일찍 올라 왔는데, 또 늦었네.”

“참, 이장님도. 이만큼 일찍 오셨으면 됐구마.”

두 사람이 주고받는 이야기로 봐서 손발이 척척 맞는다.

“어느 것부터 차에 실어까예.”

“무거워서 이장님 혼자 못 듭니다. 남자가 누가 한 사람 더 왔으므로 좋겠구먼...”

1 확보  
확실히 보증하거나 가지고 있음.

2 발품  
걸어 다니는 수고.

“한 사람 더 올 때까지 가벼운 것부터 들어 올릴게요. 회장님은 가만 계시이소.”

이 마을 이장도 갓 쉰 살이 넘겨 무거운 짐을 덤석 들어 올릴 힘이 약하지만 5년을 목표로 한 마을회관을 지을 땅 매입을 위해 구미리 부녀회의 봉사활동을 잘 알기에 적극적으로 돕지 않을 수 없다.

“아이고 이장님과 회장님, 벌써 나오셨네. 우리도 일찍 온다고 왔구먼…”

낮은 대문을 들어서서 부녀회 회원들 서너 명이 인사를 한다.

어제저녁 늦도록 손발 맞추어 빈틈없이 준비해 둔 것들을 마주 잡고 옮기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

It 트럭에 가득 실은 오늘 행사 준비물은 읍내 행사장까지 세 번은 왕복<sup>1</sup>해야 하기에 일찍 서두르는 것이다.

오늘 복사꽃잔치의 점심 봉사를 마지막으로 부녀회 목표 기금이 다 마련되는 날이라 이장과 부녀회 회원들이 더 설레는 날이다.

행사장 현장까지 세 번이나 왕복하면서 준비를 다 마친 부녀회원들은 일사불란<sup>2</sup>하게 움직이며 일을 척척 처리냈다. 행사장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부녀회 5년 계획이 너무나 힘들었지만, 목표를 달성한 기쁨은 말할 수 없었다.

1 왕복  
갔다가 돌아옴.

2 일사불란  
질서가 정연해서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음.

이장 트럭이 읍내 대서 사무소를 빠져나와 구미리 마을 입구까지 달릴 때까지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이장이 동네 입구 느티나무 옆에 차를 멈추며 “회장님요. 고생했니더. 진짜 고맙니더. 와~~ 내가 가슴이 떨리가 여<sup>1</sup>까지 우째 운전했는지 모르겠네. 휴~~~.” 하며 말문을 열며 조수석에 앉아 있는 부녀회장을 쳐다보았다.

부녀회장은 노란 서류 봉투를 가슴에 꼭 안고 눈을 감고 있었다.

그 모습이 너무나 경건<sup>2</sup>하여 다시 말을 걸 수가 없어 이장은 다시 조용히 차를 몰고 마을 공동 사랑방으로 왔다.

차 멈추는 소리가 나자 방문이 열리며 부녀회원들이 우르르 나왔다.

부녀회장이 차에서 내리고 방으로 들어와 앉을 때까지 모두 말을 안 하고 숨죽이고 부녀회장 얼굴만 바라보았다.

“장회장. 잘 됐나?”

직전 회장을 맡았던 흥시 할머니가 방안의 긴장감을 깨는 말을 던졌다.

그제야 부녀회장이 긴장감이 풀리는지

“휴~~~ 회장님요. 고맙습니다. 다 형님 덕분입시더.”

1 여  
여기

2 경건히  
공경하며 삼가고 엄숙하다.

하면서 노란 서류 봉투를 홍시 할머니 앞에 정중히 놓으며 인사를 했다.

순간 함성과 함께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인자 땅 살 수 있니더. 마을회관 지을 수 있니더.”

부녀회장의 울먹이는 소리와 회원들의 함성이 어우러져 낡은 집 지붕이 들썩거렸다.

“장회장 수고했다. 이장도 수고했네. 그동안 회원들 다 고생했어.”

홍시 할머니도 벅찬 마음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처음 부녀회를 결성<sup>1</sup>하시고 마을회관 건립<sup>2</sup>을 제안한 분이 홍시 할머니다.

큰 감나무를 가진 홍시 할머니는 감이 홍시가 될 때까지 누가 따면 혼을 내다가 홍시가 되면 누구라도 지나가면 홍시 한 개를 손에 쥐여 주어서 홍시 할머니라고 부른다.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이 농촌 계몽<sup>3</sup>의 목적으로 획기적<sup>4</sup>인 농촌 변화를 가져와 마을마다 자립정신을 키우는 사업이 크게 번창<sup>5</sup>했다.

초가집이 사라지고 마을 안길이 넓어지고 꽃길도

1 결성  
단체나 조직 따위를 만들.

2 건립  
물·동상·탑 따위를 만들어 세움.

3 계몽  
지식 수준이 낮거나 인습에 젖은 사람을 가르쳐서 깨우침.

4 획기적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시대를 열 만큼 뚜렷이 구분되는(것).

5 번창  
일이 잘되어 발전함.

조성<sup>1</sup>되고 마을의 곳곳이 새롭게 바뀌어 간 시절에 구미리 부녀회의 선구적인 활동은 마을의 자랑거리였다.

이장과 의견이 일치하여 마을의 부흥<sup>2</sup>을 위해 앞장서는 협동과 봉사로 큰 역할을 했다.

그렇게 마을이 변화되어 가는 것과 아울러 낡은 마을 공동 사랑방을 다른 마을처럼 근사한 건물로 바꾸자는 의견에 모두 마음이 모여 굵은일, 힘든 일, 어려운 일 등등을 마다하지 않고 부녀회 회원들이 5년 목표를 향해 뛰어난 결과에 감개무량<sup>3</sup>했다.

복사꽃 잔치가 끝난 지 일주일 지나고 땅 주인을 만나러 읍내 다녀온 이장이 풀이 푹 죽어 돌아왔다

“홍시 회장님요. 지금 우리 모인 자금으로는 택도 없니더. 땅 주인이 땅값을 얼마나 비싸게 부르는지 엄두가 안 나니더.”

이장 설명으로는 땅 주인이 자손이 없는 택이 할머니가 살아 계시는 동안 집세를 한 푼도 안 받았다고 땅값이라도 제대로 받아야 한다고 했다.

“얼마나 모자라더노.”

“지금 모은 것에서 삼 분의 일은 더 모아야 되겠니더.”

“머라? 삼 분의 일은 더 모아야 된다고?”

홍시 할머니가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몇 번을

1 조성  
만들어서 이름.

2 부흥  
쇠잔하던 것이 다시 일어남.

3 감개무량  
마음속에서 배어나오는 감동이나 느낌이 끝이 없음.



되물었고 이장을 기다리던 부녀회원들도 실망한 듯 서로 마주 보며 고개를 흔들었다.

“같은 영덕 살면서 그 사람 참 너무 하네. 시세<sup>1</sup>보다 더 비싸네! 참.”

“우리가 마을회관 지을라고 그 땅이 필요하다 카는 소문을 다 들었는 갑데예.”

“그 소문 들었으므로 더 싸게 팔아야지 우째 더 비싸게 팔라 카노.”

작년에 흥시 할머니는 마을회관 건립할 땅을 구해 놓고 부녀회장을 물려 주려는 계획을 지키지 못하고 부녀회장직을 물려 주었지만, 아직 그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는데 그 땅 주인이 꽤 씩했다.

같은 구미리에서 젊은 시절 같이 살았던 사람이 영토당토 않게 비싸게 땅을 팔려고 하니 고향과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아주 꽤 씩했다.

“그 사람 참 희한하게 변했구나. 고향도 모르는 사람으로 돈독<sup>2</sup>이 올랐나.”

“돈은 있는 사람이 더 무섭다 카잖아요. 할 수 없지 머.”

부녀회원들은 실망하고 한 사람 두 사람 집으로 말없이 돌아갔다.

흥시 할머니는 혼자 남아 이런저런 궁리를 해 보지만 지금은 뽀족한 방법이 생각나지 않았다.

1 시세  
그 당시의 형세나 형편.

2 돈독  
돈을 지나치게 밝히는 경향의 비유.

홍시 할머니는 부녀회 통장을 한참이나 바라보면서 5년 동안 부녀회 회원들이 불평 한 번 하지 않고 자기를 따라 주면서 고생한 모습들이 떠올라 눈시울이 붉어졌다.

부녀회원들은 집안일을 하고 나면 쉴 틈도 없이 농사도 지으면서 부녀회 일에도 빠지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힘을 합쳤던 5년.

어쩌다 홍시<sup>1</sup> 할머니가 생각한 대로 부녀회 활동이 좀 부족하다 싶을 때 앞뒤 가리지 않고 버럭 화를 내어도 참으면서 묵묵히 자기를 따라 주었던 회원들에게 아주 미안하여 혼자 중얼거린다.

‘야들아 내가 참 미안하구나. 너거들 참 고생 많았다.’

마을 어른답지 못했던 자기 처신<sup>2</sup>을 자주 사과했지만, 그때마다 회원들은

“아입미더 홍시 형님요. 앞장서 일 할라 카모 그래 되니더. 우리 다 이해합니다.” 하면서 도로 홍시 할머니를 위로하고 어깨를 주물러 주던 회원들에게 속으로 다시 한번 깊이 사과를 했다.

이튿날, 이장 집으로 홍시 할머니가 오셨다.

“이장, 내하고 지금 땅 주인집에 같이 가자.”

“지금요? 전화 걸어 보고 집에 있는가 알아보고 가는 기 맞지 싶은데요.”

“아이다. 지금 가모 있을 끼다. 내가 잘 안다 이 시간에는 지가 가게 지킨다.”

1 홍시  
흠뻑 익어 붉고 말랑말랑한 감.

2 처신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가져야 할 몸가짐이나 행동.

땅 주인도 예순 살이 넘은 어른인데 홍시 할머니는 이장 앞에서 아이 이름 부르듯 하니 이장은 살짝 혼란스러웠다.

사실 이장은 구미리가 고향이 아니고 도시에 살다가 복숭아 과수원에 일손 도우러 왔다가는 구미리 환경과 주변 사람들에게 반하여 도시에 있는 부인과 아이들을 모두 불러들여 십 년째 사는, 갓 손을 넘긴 중년<sup>1</sup>이다.

가끔 마을 어른들이 이장을 칭찬하면 자기는 구미 복숭아에 홀려 정신을 잃어버려 살게 되었다고 농담하면서 마을 일 뿐 아니라 어른들의 말동무도 되고 심부름도 미루지 않고 재바르게<sup>2</sup> 처리한다.

“예, 그라모 가입시더.”

“이장은 내가 이야기할 동안 차에 있거래이.”

이장은 홍시 할머니를 부축하여 조수석으로 안내하고는 영덕읍으로 출발했다.

영덕읍 중심가에 신발 가게를 하는 땅 주인은 가게로 들어서서 홍시 할머니를 보고는

“어? 누님이 이 시간에 우연 일인교?”

하고는 조금 당황한다.

“내가 장삿집에 좀 일찍 와가 미안한데……. 내가 할 말이 있어 왔다. 방에 좀 들어가자.”

“아, 예 들어 가입시더.”

땅 주인은 홍시 할머니를 깍듯이 대하여 방으로 안내한다.

1 중년  
청년과 노년 사이의 나이.

2 재바르게  
움직임이 조금 날래고 빠르게.

“어제 우리 이장이 왔다 갔제?”

“아~~ 예. 그 일로 왔는교.”

“그래. 영수야 니 와 그리 변했노. 내가 이해가 안 되네 참.”

“그래 말씀 하시모 서운 하니더. 거기 아니고예.”

“서운<sup>1</sup> 하기는 머가 서운노. 우리가 공짜로 돌라 카는 것도 아이고, 싸게 살라 카는 것도 아인데 와 그리 비싸게 받을라 카노 어이?”

“누님요. 내 말도 좀 들어 보이소. 내기 택도 없이 비싸게 팔라 카는 기 아이고예.”

“그래? 말 함 해 보라.”

흥시 할머니가 분위기를 압도<sup>2</sup>하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차분히 이야기를 시작하자 땅 주인은 겁먹은 듯 침을 꿀꺽 삼키고 숨을 가다듬었다.

“내가 택이 할때 살아 계실 때 10년이나 편리를 봐 주면서 아무 말도 안 했던 거 아시지예.”

“야야 그라모 그 세<sup>3</sup>까지 우리한테 받겠다든 말이가?”

“와 참. 아입니더 내 말 끝까지 들어 보이소.”

“그래, 그래. 알았다 해 보라.”

땅 주인은 한숨을 푹 쉬더니 입이 마른 지 입술에 침을 바르고는 억울하다는 말투로 설명한다.

1 서운  
섭섭하다의 사투리.

2 압도  
월등한 힘이나 능력으로 상대를 누름.

3 세  
남의 건물이나 물건 따위를 빌려 쓰기로 하고 내는 돈.

땅 주인은 어제 느닷없이<sup>1</sup> 구미리 이장이 찾아와서 그 땅을 얼마에 팔려고 하느냐고 묻길래 그 젊은이가 땅을 살려는가 싶어서 처음에는 시세 보다 조금 비싸게 불렀다고 한다.

그러자 이장이 참 어이없다는 말투로 촌구석에 다 쓰러져 가는 집을 왜 그렇게 비싸게 팔려고 하느냐는 등, 땅 하나 가지고 유세하느냐는 등, 촌사람이라고 바가지 씌울라고 그러느냐는 등 심사<sup>2</sup>를 살살 긁는 소리를 하길래 자기도 은근히 화가 치밀어 그 값 아니면 팔지 않을 테니 가라고 했다고 한다.

땅 주인이 더 말을 걸지 못하게 단호히 거절하자, 이장은 자기가 말을 잘못 했는 가 하는 걱정이 들어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고 했지만, 더 타협<sup>3</sup>되지 않았다.

땅 주인의 완강한 태도에 곤란해진 이장은 가게 앞에서 한참을 기다리며 다시 말할 기회를 엿보다가 땅 주인이 방에서 나오질 않자 어쩔 수 없이 돌아왔다.

흥시 할머니는 땅 주인의 말을 다 듣고는

“그랬나? 그라모 어젯밤이라도 우리 집에 전화 한번 걸어가 무슨 일인가 알아 봐야 안 되나?”

흥시 할머니 언성<sup>4</sup>이 살짝 높아진다.

1 느닷없이  
무엇이 나타남이 전혀 뜻밖이고 갑작스럽다.

2 심사  
마음에 맞지 않아 어깃장을 놓고 싶은 마음.

3 타협  
두 편이 서로 좋도록 조정하여 협의함.

4 언성  
말소리.

“니 고향 마을 일인데 머 때문에 그 땅을 팔아라 카는지 알아봐야 안 되나?”

홍시 할머니 말이 울아서 땅 주인이 고개를 살짝 숙인다.

“니는 택이 할매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우리가 그 집을 부녀회 사무실 겸 할매들 사랑방으로 쓰는 거 알제?”

“예, 압니더. 그래가 세도 안 받았니더.”

“그라고 그런 눈치도 없나. 와 지금 그 땅을 팔라고 이장이 왔겠노.”

“어제는 거까지 생각 못 했고요. 오늘 누님 보자 그런 생각이 퍼뜩 들었니더.”

땅 주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자 홍시 할머니도 화를 참으면서 말하셨다.

“어제, 내가 같이 오모 니가 더 곤란하지 싶어서 이장만 보낸 기라.”

“처음에는 이장인줄 몰랐니더.”

“누가 왔던 니 고향 일인인데 그리 생각이 모자라나. 참 답답다.”

“미안니더. 그라고 잘못 했니더.”

땅 주인은 고개를 더 숙이며 홍시 할머니 눈치를 본다.

“인자 알것제? 그 땅, 딱 얼마에 팔라 카노. 니 손해 보지 말고 말해라.”

홍시 할머니 목소리에 힘이 짝 번어 대답 안 할 수가

1 퍼뜩  
어떤 생각이 갑자기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모양.

없었다.

“누님이 주고 싶은 만큼 주이소. 마을 일이모 내가 기증<sup>1</sup>해도 해야 하는데, 내가 누님 성품<sup>2</sup>을 잘 아니까……. 준비된 대로 주이소.”

땅 주인은 완전 기가 죽어 낮은 자세로 홍시 할머니 앞에 앉아서 머리를 조아린다.

땅 주인과 홍시 할머니는 육촌지간<sup>3</sup>이며 담 하나 사이를 두고 자랐다.

시골은 지금도 육촌들이 가까이 사는 마을이 많다.

홍시 할머니는 오빠만 있고 남동생이 없어서 어릴 때 감자나 고구마를 삶으면 땅 주인인 영수를 불러 같이 먹었고, 흑 아버지가 영덕 장날 옛이라도 사 오시면 나누어 먹으며 자랐다. 땅 주인, 영수는 홍시 할머니 앞에서 꿈쩍 못 하고 공손하게 듣고 있다.

“내가 시세를 알아보고 시세대로 쳐 줄 테니 좀 섭섭해도 우리한테 팔아래이.”

“시세대로 안 쳐 줘도 되니더.”

“시끄럽다 마. 그리 알고. 내 간다.”

홍시 할머니의 단호한 어투에 땅 주인은 마냥 고개만 숙였다.

마을에 돌아온 홍시 할머니는 부녀회 총무를 시켜

1 기증  
선물이나 기념으로 물품의 값을 받지 않고 보내어 줌.

2 성품  
사람의 성질과 됨됨이.

3 육촌지간  
육촌관계.

통장에 모아 둔 돈을 그대로 땅 주인에게 송금하라고  
이르고는 영수증을 잘 보관하라고 신신당부를 한다.

부녀회원들은 흥시 할머니의 당당하고 단단한  
위세에 또 탄복하면서 파이팅을 외쳤다.

오후, 이장이 부녀회 현 장회장, 또 땅 주인과 같이 땅  
매입에 관련된 서류를 다 처리하였다.

“누님요. 땅 사는 사람 명의를 누님 이름으로 하까요?”  
대서방에서 땅 주인이 흥시 할머니에게 전화로 묻자  
“머라 카노. 와 내 이름으로 하노. 땅 주인은 핑크  
할매들인데.”

“머예? 핑키 할매요? 그 사람이 누군데요?”

“아이고 참. 말을 못 알아듣네. 구미리 부녀회 땅이라  
말이다. 그러니 이름 쓰는 자리에 ‘핑크 할머니들’이라고  
써야 한다 이 말이다.”

“하하하, 그 이름 요상<sup>1</sup>하네.”

처음 ‘핑크 할매들’이라는 소리를 못 알아 듣다가  
뒤늦게 이해한 영수 할아버지는 속으로 ‘과연 우리  
흥시 누님이다.’라는 생각이 들자 자기가 땅을 뜻있게  
팔았다는 생각이 들어 웃음이 계속 났다.

“흥시 할매가 명의자<sup>2</sup>란에 ‘핑크 할머니들’이라고  
쓰라 캄니다. 하하하.”

“머요? ‘핑크 할머니들’요? 거기 입력이 되겠나.”

대서방 직원들과 모두가 화기애애하게 일하는  
오후였다.

1 요상하다  
'이상하다'의 잘못.

2 명의자  
개인이나 단체를 대표하여 공식적으로 이름을 내세운 사람.

다음 날, 땅 주인이 수박과 빵을 사 들고 사랑방을  
찾았다.

부녀회 회원들이 다 모여 짐 정리를 하고 청소하는  
날이다.

어제 흥시 할머니가 땅 문제를 해결하던 당당하고  
위엄 있던 모습을 전해 들은 부녀회원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신이 나서 청소에 나섰다.

빨리 깨끗이 정리한 뒤 군 행정 담당자에게 마을회관  
건립에 대한 심사와 지도를 받아야 한다.

“핑크 할매들요. 시원한 거 드시고 하이소.”

“아이고, 영수 왔네. 고맙데이. 정말 고맙데이.”

너도나도 땅 주인에게 인사를 하느라 바쁘다.

“근데 누님요. 핑크 할머니란 이름을 누가 생각  
했능교. 참 멋지니더.”

“내가 생각했지. 맘에 드나?”

흥시 할머니는 오래전에 부녀회 명칭<sup>1</sup>을 속으로  
정해 두었다.

어디서나 칭찬받고 빛나는 부녀회를 그냥 구미리  
부녀회라고 부르기 아까워서

몇 날을 고심<sup>2</sup>하던 어느 날, 복숭아 따기 봉사하는  
모습을 보니 모두가 볼이 발그레하니 복숭아 속살 같이  
순간 복숭아 색깔 ‘핑크 할머니’ 말이 떠올랐다.

‘다음에 마을회관 지을 때 땅 주인 이름을 적어야

1 명칭  
사물을 부르는 이름. 호칭. 이름.

2 고심  
몹시 애를 태우며 마음을 씀.

하니, 그때 깜짝 발표해야지’

하고 꼭꼭 숨겨 두었다.

“정말 우리 흥시 회장님. 멋지다. 최고다 최고!”

부녀회원들은 흥시 할머니에게 힘찬 박수를 보냈다.

구미리 부녀회의 단합은 마을의 든든한 기둥이 되었고 큰 결실을 보았다.

나, 이 구미리 중심에 이 층으로 잘 단장 된 마을회관의 땅 주인 이름은 어디에서나 자랑할 수 있는 ‘핑크 할머니 클럽’이야.

엄지 척할 수 있는 ‘핑크 할머니 클럽!’

지금 핑크 할머니 클럽 회원들은 팔학년을 넘기셨지만, 여전히 마을의 주축<sup>1</sup>이 되어 어렵거나 굶은일의 해결사 역할을 마다하지 않고 든든하게 마을 이장과 척척 손발이 맞아 구미리를 영덕군 모범 마을로 멋들어지게 이끌고 있단다.

참, 이장님 소개를 잠깐 더 해야겠네.

우리 구미리 이장님은 핑크 할머니 클럽의 단적으로 구미리로 오시기 전에는 대도시 전문대학 행정실 과장으로 재직<sup>2</sup>하셨던 분이야. 그래서 마을의 필요사항이나 주민들 어려움과 희망 사항 등을 너무 잘 해결하셔서 박사라고 불러.

이장 부인도 젊은 핑크클럽의 회원을 선배 핑크 클럽 만큼이나 잘 이끌고 있단다.



1 주축  
주장이 되어 움직이는 사람이나 세력의 비유.

2 재직  
어느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음.

이제 고인<sup>1</sup>이 되신 흥시 할머니 산소도 마을회관이 잘 보이는 앞산에 자리 잡고 있어. 나랑은 매일 인사하며 우리 마을 소식을 전해 드린단다.

흥시 할머니 산소는 이상하게 겨울에도 잔디가 파랗게 빛난단다. 아마 내가 이런 자랑을 한다는 걸 하늘나라에서 아시고는 무척 흐뭇하신가 봐.

우리나라에 땅 주인 이름이 ‘핑크 할머니들’이라는 여섯 글자인 곳은 나, 구미리 마을회관뿐일 거야.

오늘도 핑크 할머니 후손들이 나를 깔끔하게 보살펴 주시고 다듬어 주시면서 화기애애하게 핑크빛을 발산<sup>2</sup>하고 있단다.

그리고 이층에는 핑크 할머니들의 건강을 위해 갖가지 운동기구와 안마의자를 영수 할아버지가 준비하여 기증해 주셔서, 젊은 핑크 회원들이 관리를 너무 잘해 핑크 할머니들이 더 오래오래 사실 수 있단다.

또 하나 더, 구미리에는 복숭아 과수원이 많고 품질이 우수하여 영덕 복숭아의 대표격으로 소문이 났단다. 나는 여기서 자라는 복숭아는 모두 핑크 할머니들의 품성을 닮아서 속살이 볼그레하게 익기 때문이라 생각해. 정말 맛있단다.

‘핑크 할머니 클럽’의 빛나는 헌신<sup>3</sup>과 역사를 나는

---

1 고인  
죽은 사람.

2 발산  
산을 뿜을 만한 정도로 강한 힘과 기세.

3 헌신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함.

자랑스럽게 품으며 구미리의 상징<sup>1</sup>이 되어 있어. 난 너무 행복해.

---

1 상징  
(사회 집단의 약속으로서) 말로는 설명하기 힘든 추상적인 사물·개념 따위를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냄.

새마을 운동 시절의 마을 부녀회 활동을 활발히 하였다.

처음엔 몸빼를 가져와서  
몸빼를 입고 산에 나무를 하러  
가기도 했었다. 그러다 지역에  
복사꽃잔치, 체육대회 등  
행사에 가서 음식을 팔고 돈을  
모았다. 부녀회 상도 받고  
쌀이랑 간장 집집마다 다 거둬  
들여서 같이 밥도 해먹고  
했다. 그만큼 단합이 참  
잘되었다.

밭에 일하러 안나온  
사람은 벌금을  
내기도 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다같이 모았다.  
그렇게 돈을 모아서  
지금의 마을회관을  
지을 땅을  
마련하였다.

호칭

서로를 부를 때 고향 지역을 넣어서 ‘~~댁’이라고  
불렀다. 대천댁, 원천댁 등

아이들이 아플 때

아이들이 아플 때 병원이 멀어서 데리고 가기도  
힘들었다.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미신적인 일을  
자연스럽게 했다. 아픈 아이가 있으면 ‘객구’라는 귀신이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해서 그 귀신을 없애기 위해 ‘객구

진행 마을

영덕읍 구미리

인터뷰 대상

감순귀. 김옥자. 오금광. 우재희.  
임옥란. 홍길순.  
성함을 알려 주시지 않는 5명.

물리기'를 진행했다.

#### 객구물리기를 하는 방법

지역마다 방법이 조금씩은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비슷하다. 바가지에 된장 혹은 밥, 소금, 고춧가루, 명태 대가리, 물을 넣는다. 칼로 아픈 사람의 머리를 세 번 훑고, 바가지에 침을 세 번 뱉게 한다. 그리고 아픈 사람을 거꾸로 눕히고, 마당으로 칼을 던진다. 칼끝이 방이나 집 바깥쪽을 향해 있으면 '객구가 나갔다'라고 여기고 물밥을 밖에 내버린다. 하지만 칼끝이 안쪽을 향해 있으면 객구가 아직 나가지 않은 것이므로 다시 칼 던지기를 한다. 칼끝이 밖을 향하게 되면, 칼로 땅에 열십(+)자를 긋고 칼을 꽂고 바가지를 엮어놓는다. 그런 후 객구를 물려준 사람은 인사도 받지 않고 그대로 가버린다. 객구물리기가 끝난 후에는 '수고 많았다' 또는 '다시 보자'라는 등의 인사말조차 주고받지 않는 게 원칙이기 때문이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 향토문화전자대전

#### 시집살이

울도 담도없는 가난한 집에 시집왔다.

(‘울’은 집이나 논밭을 지키느라고 둘러막는 것, ‘담’은 논밭 가를 막는 데는 쓰지 않고, 오직 집을 지키느라고 둘러막는 것.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울타리, 돌담 등으로 생각하면 된다.) 아무것도 할줄 모르고 시집와서 강구장, 영해장 등 생선 장사를 같이 다녔다.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었다.

좁쌀에 보리쌀 섞어서 겨우 동네사람들이랑 나눠 먹었다.

제사를 하면 동네사람 다 불러서 인심 좋게 나눠 먹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인심도 나빠지고 사람들도 많이 서먹해졌다.

출산 후 산후조리를 어른들이 안 챙겨 주셔서 혼자 하는 게 힘들었다.

시댁 어르신들이 손녀를 낳았다고 아이들 봐주지도 않았다. 그렇게 아이를 낳고 어르신들이 도와주지 않아서 너무 힘들었다.

#### 그 외

- 복숭아 나무 키우는 과정.
- 아이들 키우면서 겪은 여러 가지  
토속적 치유 방법.
- 6.25 때의 피난 이야기.

- 마을 도로 확장 이야기.
- 복숭아 나무를 심기 시작한 시절  
이야기.



강구면 강구리

## 강구항 속에 살아있는 삶의 현장 이야기

최하탁

담임 선생님께서 지역의 이름있는 곳을 방문해서 유래를 알아보는 숙제를 냈습니다. ‘강식’이는 절친인 ‘나비’와 의논했어요.

“나비아! 숙제 어떻게 할 거야?”

“글쎄? 어떻게 해야 할까?” 한참을 고민하던 나비는 좋은 생각이 난 듯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강구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강구항이잖아. 우리 여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그래! 강구항이 좋겠다. 우리가 강구에 살면서 강구항에 대한 역사나 유래도 잘 모르고 있었잖아.”

“그러게. 우리 이번 기회에 자세히 알아보자. 그런데 어디서 알아보지?”

“음~ 강구에서 할아버지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가자.”

“맞다. 그곳은 강구경로당에 가면 되겠네.”

강식이와 나비는 서로 뜻이 맞아 강구경로당으로 가서 강구항이 만들어진 내용과 어부들의 삶에 대해 자세히 여쭙보기로 했습니다. 둘은 경로당을 방문하기 전에 미리 궁금한 점들을 생각해서 메모해 가기로 약속했죠.

“안녕하세요? 우리는 강구에 사는 초등학교생들입니다. 강구항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학생들! 아주 잘 왔어요. 기특하네. 반가워요”

반갑게 맞아 주시는 할아버지들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마음 편하게 옛날이야기를 듣는 기분으로 궁금한 내용을 묻기로 했습니다.

강식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강구항이 만들어지게 된 역사가 궁금해요. 말씀해 주세요.”

“그래. 강구항의 역사는 아주 오래되었지. 우리가 태어나기 전 옛날에는 아주 볼품없는 조그마한 항구였단다.”

“지금은 이렇게 멋지고 아주 큰 항구인데요?”

“그러게. 지금 이렇게 변화하게 된 것은 그 역사가 깊기 때문이지.”

“그럼 그 역사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음~~ 강구항의 전설에 의하면 마을을 처음 개척한 사람은 맑고 푸른 동해 앞바다에서 고기잡이하든



어선이 큰 태풍을 만나 표류<sup>1</sup>하다가 이곳으로 대피한 안씨와 이씨라고 전해진다. 이들이 강구리의 주민으로 자리 잡았다는 얘가지.”

“그럼 강구항이 예전에도 이렇게 만들어졌나요?”

“그건 아니지. 옛날에는 아주 볼품없는 모양이었지. 강구라는 이름도 강 하구에 있다고 해서 강구(江口)라고 지었대요. 강구로 흘러오는 강은 저 멀리 달산면 쪽에서부터, 또 지품면 쪽에서부터 작은 하천 50여 개가 모여 흐르는 오십천이란 강이지.”

“그럼 옛날의 강구항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옛날 강구항은 아무런 시설도 없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었지. 그러니 태풍이나 집중호우<sup>2</sup>로 큰물이 내려오면 집이 잠기는 물난리를 매년 겪어야 했단다. 또, 태풍이 왔을 때 해일<sup>3</sup>이 일면 큰물이 바다로 빠져나가지 못해 더 큰 피해가 발생했어요. 말 그대로 강 하구에 있는 어촌이었기 때문이지.”

함께 이야기하던 또 다른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강구항은 일제강점기<sup>4</sup> 시대인 1900~1901년부터

1 표류(漂流)

물 위에 떠서 정처 없이 흘러감.

2 집중호우(集中豪雨)

비교적 좁은 지역에 짧은 시간 동안 내리는 많은 양의 비. 호우 또는 폭우(暴雨)라고도 함.

3 해일(海溢)

폭풍이나 지진, 화산폭발, 조석, 운석 충돌 등에 의하여 바닷물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육지로 넘쳐 들어오는 현상.

4 일제강점기(日帝強占期)

우리나라가 일본제국주위에 의하여 식민통치를 당한 35년간(1910~1945)의 시대.

현재의 모습으로 만들어 갈려고 했었는데, 이는 일본인들이 어업기지화를 위해서였지. 그 이후인 1930년에 조선총독부에서 고시<sup>1</sup> 제181호로 지정항으로 고시했단다. 그래서 지금의 항구 모습을 갖추 수 있는 시설공사를 본격 시작하게 되었지. 시설공사를 할 때 강구항에 철도 레일을 깔아서 작업을 했데요.”

“강구항에 철도가 있었다고요?”

“그래. 항만시설 공사에는 돌과 시멘트, 장비 등 무거운 짐들이 많이 있어야 하는데, 이들을 실어 날라야 하고, 작업하는 사람들이 좀 더 편하게 운반하려고 레일을 깔았데요.”

“와~~~ 신기하네요, 강구항에 철도 레일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강구항 위판장<sup>2</sup> 밑에 있을지 몰라요. 그렇게 힘들게 조금씩 작업해 왔으니까 지금 모습처럼 강구항이 항만 모습을 갖추어가게 되었지.”

“강구항이 그렇게 만들어져 갔군요.” 강식이 이해한 듯 말했어요.

나비는 “옛 강구항에 대한 추억 같은 것은 없어요?”라고 여쭙봤어요.

“하하. 재미난 얘기 하나 해 줄게. 강구항에 아무런 시설이 없을 때는 해안처럼 모두 모래밭이었지. 가끔이 모래밭에 멸치때들이 밀려 올라오곤 했단다. 멸치때는

1 고시(告示)

행정기관이 결정한 사항, 또는 일정한 사항을 공식적으로 일반에게 널리 알리는 일.

2 위판장(委販場)

고기를 잡아 와 위탁 판매가 이루어지는 시장.

큰 물고기들이 멸치때를 몰아 잡아먹으려고 하니가 도망을 치다가 모래밭까지 밀려오고 말았지.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가서 맨손으로 막 잡았단다. 그런 추억이 새록새록 나네. 고맙다. 나비아.”

재미난 강구항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나비가 또 질문했어요.

“할아버지! 강구항에 다리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오십천을 가로지른 처음 만들어진 다리는 나무다리였단다. 영덕읍 화수리에 있는 높은 산에서 커다란 나무를 베어 오십천을 따라 운반해 와서 만들었다고 해. 그런데 이 다리는 6.25 한국전쟁<sup>1</sup> 때 북한군의 폭격으로 파손되어 버렸지. 그래서 나룻배를 띄워 강을 건너고 했어요.”

“나룻배를 띄웠다고요? 그럼 그 위치는 어디쯤이었을까요?”

“그래. 나룻배는 줄배로 띄웠는데, 굵은 밧줄을 오십천을 가로질러 양쪽에 묶어 놓고 20명 정도가 탈 수 있는 뗏목 같은 배로 줄을 당겨서 오고 갔단다. 최소한 5명 이상일 때 배 관리인이 무료로 운행했다고 하네. 위치는 지금의 강구1리 풍물거리 끝 지점에서 오프3리 강구수협 유류 저장고가 있는 자리 부근이라고 해.”

“하하. 재미도 있었겠어요?”

1 6.25 한국전쟁(Korean Conflict, 六二五 韓國戰爭)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 공산군이 남북군사분계선이던 38선 전역에 걸쳐 불법 남침함으로써 일어난 한반도에서의 전쟁.



“그래도 위험하지. 뗏목 같은 배라서. 한쪽에서 사람들이 모이면 큰소리로 배를 부르면 와서 건너 주곤 했어요.”

“할아버지! 그럼 몇 년 정도를 운행했을까요?”

“우리가 10살 정도였는데. 약 3년 정도 운행했단다. 나무다리가 폭파되고 난 다음 콘크리트 철재 다리가 생길 때까지였지.”

이때 만들어진 콘크리트 철재 다리는 7번 국도의 중심다리로 수많은 사연을 안고 버텼지만 교량 안전진단<sup>1</sup> 결과 위험하다는 판단에 따라 철거가 되고 현재 재건설 중입니다. 그전인 1990년경에 강구신대교가 건설되었고, 그 위에 2009년에 범선이 설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강구해상대교가 강구항 최하단부에 건설 중입니다.

이렇게 다리 얘기가 끝날 무렵 할아버지 한 분이 강구항이 침수되었던 사라호 태풍<sup>2</sup>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1959년 여름철에 ‘사라호’란 큰 태풍이 왔단다. 아주 큰 태풍과 함께 높이가 10m는 넘는 파도와 해일이

#### 1 안전진단(安全診斷)

산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잠재적 재해 위험성과 안전 관리상의 문제를 찾아 사업장의 설비 따위를 진단하는 일.

#### 2 사라호 태풍(Sarah, 颶風)

1959년 9월 한반도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태풍. 경상도에 특히 큰 피해를 남김. 사망·실종 849명, 이재민 37만 3459명, 총 1,900억 원(1992년 화폐가치 기준)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음.

일어나서 강구와 오포리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겼지.”

“할아버지! 그럼 마을 사람들은 모두 무사히  
대피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급하게 몸만 피했지. 강구 사람들은  
뒷산으로, 오포 사람들은 나비산 쪽으로 말이야. 집안  
세간살이<sup>1</sup>는 모두 물에 떠내려가 버렸어. 커다란 배가  
마을 한복판에 올라와 있었지. 또, 큰 나무들이 마을에  
걸쳐져 있고 가축들의 사체도 떠내려갔지. 모두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요. 내 평생 처음 있는 일이었지”

“마을이 흔적도 없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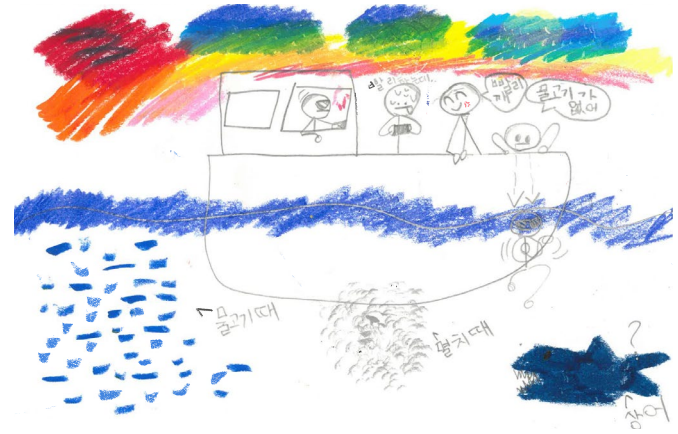
“그랬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강구 오일시장도  
다 잠기는 피해를 봤기 때문에 오포로 이전해서  
오일시장을 개설하였고, 강구에는 조그마한  
매일시장으로 변경 운영하게 되었지.”

“아하 그랬군요. 초등학교는 피해가 없었나요?”

“왜 없었겠어. 아주 큰 피해가 있었지. 교실까지  
물이 들어오고 해서 난리 났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계획되었던 수학여행도 취소되었지. 그때 많이  
서운했단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네.”

강구항의 재미난 이야기를 듣다 보니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래도 강식이와 나비는 강구항 어부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두 학생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질문을 더 하기로 했습니다.

1 세간살이  
집안 살림에 쓰는 온갖 물건.



“할아버지! 강구항에서 고기잡이하시는 어부들의 이야기도 듣고 싶은데요. 해 주세요.” 하며 강식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이어서 나비도 어부들의 생활 이야기도 듣고 싶다며 조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들은 커다란 너털웃음을 웃으시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참 기특하구나. 이렇게 조르는 데야 별수 있겠니? 그럼 우리 중에 선장을 하신 분들이 있단다. 그분들이 바다 이야기를 해 줄꺼야.”라며 승낙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선장을 하신 분들에게 고기잡이 경험담을 말해 주기를 권했습니다.

“70~80년대에 강구항에서 어로작업을 하는 배들은 크기가 4~10톤 미만인 소형이었단다. 그래도 거친 파도를 헤치며 북쪽으로는 주문진 먼바다부터 남쪽으로는 부산 기장 앞바다까지 고기잡이 다녔단다. 그 당시 우리 동해 앞바다에서는 어족자원이 풍부했지. 지금은 잘 잡히지 않는 어종 들인데 정어리, 오징어, 멸치, 쥐치, 노가리 등이 많이 잡혔지.”

또 다른 선장은 “그랬지. 워낙 많이 잡혀서 만선의 기쁨으로 오곤 했지. 그런데 일부는 욕심을 부리며 너무 많이 잡아 오다가 물길을 잘못 만나 배가 침몰해버려 인명피해도 있었단다. 또, 200해리라는 해역 경계선도 있었지만 일본 근해까지 가서 잡아 오기도 했단다.”

선장 할아버지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었습니다. 서로 경험담을 자랑삼아 얘기하기를 경쟁하듯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멸치잡이는 9명 정도가 한 조로 털기 작업을 하는데 5시간 정도씩 걸린단다. 그렇게 힘들어도 만선을 해 오면 기분은 최고였지. 어촌에서는 ‘고기가 많이 잡혀야 인심이 후하다.’ ‘물길이 하룻밤 사이에 만리를 간다.’는 말도 있단다.”

“또, 고기 때를 보면 물 색깔이 변해요. 고기잡이는 머리싸움이라네. 물길을 잘 봐야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바다 생물의 해적이라고 하는 불가사리를 보고도 바다 지형과 지물의 위치를 알 수 있단다. 그래서 ‘물길 박사’로도 불리었지. 특히, 해무가 많을 때는 앞이 전혀 보이지 안잖아? 이때는 파도의 곁을 살펴보고 뱃길을 파악할 정도란다. 예를 들어 등어리 기름이 올라오면 북동풍으로 판단한다는 식이지.”

“맞아. 배 밑으로 기름을 넣어두는 ‘네또질’ 하면서 뱃길을 찾았지. 육지에서는 독도법을 쓰는 것과 같은 원리란다.”

“어부들은 배를 한 번 타면 보통 3~4일씩 걸린단다. 그래서 충분한 물과 식량을 가져가야 했지. 물은 마을 우물에서 길러왔지. 배를 타면 선박에서 판매하는 물을 사 먹어야 했어.”

“강구항의 배들이 1980년쯤에 대형 어선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지. 처음 12척 정도가 고기잡이를 했어요. 강구수협을 통해 위판되어 나가는 것이 약 80% 정도 된다고 봐야지.”

선장 할아버지들은 자기 경험을 자랑스러워하며 아주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강식이와 나비는 감사 인사를 드리고 나왔습니다. 둘은 학교에서 강구항을 소개하면서 선생님께 수고했다는 칭찬을 들었고, 친구들에게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 <참고자료 I>

강구항은 근해의 풍부한 수산자원을 보유한 동해안의 주요 어항 중의 하나입니다. 1917년 최초로 강구항 호안공사를 시작하였고, 1936년(소화 11년) 강구항 확장공사 준공기념 자료(국회도서관 자료)에 따르면 1900년경부터 일본인들의 어선 30여 척이 입항해 왔으며, 항만시설 미비에 따라 확장 및 호안 시설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1995년 연안항에서 국가어항으로 변경된 후 1999년 항내 매몰 방지 대책을 수립하면서 현재의 항세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강구항을 2011년 3월 9일 공포된 항만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안항으로 지정됨에 따라 2012년 11월 28일 강구항 기본계획을 고시하였습니다.

#### <참고자료 II>

경북 영덕군 강구항은 영덕의 젓줄인 오십천 강 하구에 있다고 해서 강구리로 불리며, 영덕대계로 유명한 곳입니다. 또, 최근엔 한국관광공사<sup>1</sup>가 전국의 유명 관광지를 소개하면서 연간 3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아오는 곳으로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강구항은 영덕대계의 집산지<sup>2</sup>로써 고려 태조인 왕건 임금께 진상<sup>3</sup>했던 진상품입니다. 그 세월이 1,100여 년이나 되었죠. 그래서 매년 2~3월에 강구항과 해파랑공원 일원에서 펼쳐지는 영덕대계축제 때 고려 태조 왕건에게 진상하는 퍼포먼스를 재현<sup>4</sup>하면서 그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영덕대계를 가진 강구항이 이렇게 유명하게 된 계기는 27년 전(1997년경) 한 TV의 주말연속극이 인기리에 방송되었고, 그 촬영지가 강구항이었기 때문입니다.

- 1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의 아름다운 국내 여행지는 물론 국외 여행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
- 2 집산지(集散地)  
생산물이나 여러 곳에서 모여들었다가 다시 다른 곳으로 흩어져 나가는 곳.
- 3 진상(進上)  
진귀한 물품이나 지방의 토산물 따위를 임금이나 고관 따위에게 바침.
- 4 재현(再現)  
다시 나타냄. 이미 경험하거나 학습한 정보를 다시 기억해 내는 일.

이후 촬영지를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 편의시설<sup>1)</sup>을  
갖추기 위해 영덕군과 주민들이 협력하여 강구항을 잘  
가꾸어 온 결과라고 봅니다.

그리고 영덕대계란 단일품목으로 집단화된 식당이  
200여 곳 넘게 운영되는 지역이 바로 강구항 일원으로  
전국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특색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곳이 영덕군에 있어 자랑스럽습니다.

---

1 편의시설(便宜施設)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 취약 계층을 포함하여 다양한 사람들이 건축물,  
교통수단, 도로, 정보통신망 등에 편리하고 안전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시설.

최정연

새벽 어선들이 집결한다  
대게 위판장으로 사람들이 몰려든다  
대게 거리 동해일출 사장님도  
새벽은 꿈틀거린다  
새파래지는 강구,  
해파랑공원은 바다만큼 넓다

강구항 남쪽으로부터  
오십천 강 물결이 만들어진다  
파도를 업고 동해 먼 바다로 빠져 나간다  
동해바다가 매일 출렁이는 이유다

오십천 은어 떼가 돌아오고  
강 그림자에 대게거리 불빛들  
길게 늘어진다

비 내리는 강구항, 갈매기들 더 높이 날아올라  
먼 바다 소식을 귀뜸해준다  
큰 거 하나 올라온데요,  
산전수전 다 안다는 듯  
바람이 항구를 들었다났다 한다  
강구는 끄떡없다

간 밤 떠난 배가 아침에 들어온다  
만선이 꿈이예요  
강구 대게거리, 오늘도 뜨거운 숨 들이쉬며  
찬란하게 일어난다

진행 마을
강구면 강구리
장소
강구 경로당
인터뷰 대상
서태복(회장), 김광석, 김인규, 김정웅, 김학봉, 박태수, 배양일, 서상조, 심해섭, 이광준, 이근우, 이종탁, 이태영, 임화식, 장기덕, 조상탁, 조영인, 최대웅, 최천득, 하용택, 황영조, 안종일(강구1리장)

철로가 있었다고 하데.

일본인들이 강구항  
호안공사를 하면서  
무거운 짐들을 쉽게  
운반하기 위해 레일을  
깔아서 운반했다고  
하더구만.

그래서 지금도 위판장

밑에 있을지 모르겠네.

부두만들 때 레일을  
깔아서 만들었다. 등대도  
만들고. 강구수협에 사진  
자료가 많이 있을거야.

강구항은 일본인들이  
기반 시설을 했지.

강구항에서 살아가는 어부들의 일상생활 이야기

옛날 강구항은 항만시설이 억수로 미비했지. 그래도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이 저들 편하자고 항만시설을  
하고 강구항을 이용했으니까 이렇게 발전한 계기가  
되었지.

강구3리 쪽에는 일본식 집이 많았다.

우리들 고기잡이 배 크기는 4~10톤 미만으로  
소형이었다. 그래도 북으로는 주문진까지, 남으로는  
기장까지 고기 잡이를 다녔지. 그러다 만선으로  
돌아오다가 물길을 잘못 만나면 침몰하기도 했다.

200해리라는 해역 경계선도 있었지만 일본 근해까지 가서 대게도 잡아 오고 했지.

주로 잡힌 어종은 정어리, 오징어, 멸치, 쥐치, 노가리 등이 많았다. 지금은 거의 잡히지 않지만.

과거 강구항 지역의 토양은 대부분 모래밭이었다. 그래서 모래밭에서 멸치 맨손잡이를 하기도 한 추억이 생각나네.

멸치잡이는 9명 정도가 한조로 해야 해. 털기 작업을 하는데 5시간 정도씩 걸리기도 했지.

어촌에서는 ‘고기가 많이 나야 인심이 후하다. 물길이 하루 밤 사이에 만리를 간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 그만큼 마을 공동체가 좋았다는 얘기지.

강구항에서 살아가는 어부들의 일상생활 이야기

한 번 배 타면 보통 3~4일은 기본으로 걸린다.

배를 타고 나가면 물이 굉장히 중요하지. 그래서 마을 우물이 중요하단다. 배를 타면 물장수에게 사 먹어야 해. 선박에서 판매했지. 산에서는 샘물을 먹겠지만.

그래. 해무가 많을 때는 파도의 결을 따라 보고 선로를 파악할 정도였다. 예를 들어 등어리 기름이 올라오면 북동풍으로 판단한다.

고기 때를 보면 물 색깔이 변했어. 고기잡이는 머리싸움이고. 불가사리를 보고 지형, 지물 위치를 알 수 있었지. 그래서 박사라고 불렸어.

또 다른 방법은 네또(기름을 밑에 넣어두어)질 하면서 뱃길을 찾았어. 육지에서는 독도법을 쓰는 것처럼.

강구항에 나룻배가 운행했다고?

강구항의 오십천을 건너는 노송으로 나무다리를 만들었지. 근데 6.25 전쟁 때 파손되어 나룻배(줄배)로 건너다녔지.

그 위치는 아마 지금의 오포3리 수협 유류저장소와 강구1리 풍물거리 끝지점인 사계절대게 식당 부근일 거야.

우리가 10살 정도 때 2~3년 정도 운영했지. 한 번에 20명 정도 탈수 있었어. 최소한 5명 이상 일 때 관리인이 무료로 운영해 주었지.

아이고 말도 마라. 사라호 태풍 때는 난리가 난더랬지.

그래 맞다. 사라호 태풍이 1959년 가을에 왔지. 학교가 침수되어 복구하느라 수학여행도 취소되었지.

오포3리 마을 한가운데에 큰 배가 올라갈 정도였다. 큰 소나무가 마을에 걸쳐졌고 가축 사체가 수없이 많았다.

파도 높이가 10m 정도는 되었을 거다. 해일이 있어 더 큰 피해가 났지.

강구사람들은 뒷산으로 도망가고, 오포 사람들은 높은 대로 피난을 갔었지.

강구시내 대계촌 중심에 오일시장이 있었으나 사라호 피해 이후 오포로 가고, 매일 시장으로 변경되었지.

우리 부모님들은 어부였지만 자식들 교육에는 일은 대단했지.

부모님들의 교육열이 대단했다. 초등학교 이후 중학교를 졸업시키고 고등학교는 포항 등 외지로 많이 보냈단다.

그래. 대부분 강구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하지만, 공부 잘하는 아는 포항으로 가고 했다.

나는 영해 출신인데 일제 강점기엔 만주에서 생활했다. 결혼 후에 강구항으로 이사를 왔다. 남정초등학교가 강구보다 먼저 생겼다.

내가 고등공민학교 1회 졸업생이지. 포항 동지상고를 졸업했고

대계잡이는 왕돌잠이 최고지.

동해 바다 왕돌잠이 대계의 보고지요. 왕돌잠 수심을 7m 정도예요. 배가 우회하지 않으면 사고가 날 수 있어.

가끔은 대계잡이로 24시간을 달려 일본해역까지 갈 때가 있지. 금지구역이지만.

80년대 들어서 대형어선이 12척 정도 있었어.

위판은 수협 계통으로 80% 정도를, 20% 정도는 자율 판매되더라고.



달산면 덕산2리

## 니들, 덕산 손두부 맛 다 알지?

이영숙

안동댁 할머니는 아픈 다리를 천천히 움직이며  
부엌으로 갔다.

할머니가 사시는 덕산리는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산이 높아 다른 마을보다 해가 늦게 떠, 북쪽에 있는 부엌  
안이 아직도 어둡다.

‘내 새끼들, 잘 잤나? 오늘도 우리는 머 하고 하루를  
보내꼬?’

할머니는 큰 가마솥을 쓰다듬으며 혼자 중얼거린다.

‘내가 다리만 안 아프모 너거들 하고 덕산, 이 동네를  
들썩거리며 살킨데…….’

할머니 외로운 한탄<sup>1</sup>이 가마솥<sup>2</sup> 뚜껑 위로 쏟아진다.

1 한탄

원망을 하거나 누우침이 있을 때에 한숨을 쉬며 탄식함.

2 가마솥

크고 우묵한 솥.

“영감, 어제 멧들<sup>1</sup> 청소 깨끗이 했능교.”

할머니는 오늘도 새벽부터 멧들부터 챙긴다.

“이 사람아, 몇 신데 벌써 일어나노. 내가 언제 멧들  
청소 대강하든가?”

할아버지는 또 필요 없는 새벽부터 잔소리하는  
할머니가 언짢아 돌아눕는다.

할머니는 못 들은 척하며 부엌 옆 작은 천막으로  
간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예순 살이 넘었지만 멀리  
포항까지 소문이 난 손두부 장인<sup>2</sup>이다.

안동에서 젊은 시절을 보내다 할아버지 고향으로  
늦게 돌아온 두 사람에게는 농사지을 땅이 없어 자식들  
키우며 살아가기가 늘 힘들었지만, 할머니가 생활력<sup>3</sup>이  
강하여 집안을 꾸려 나왔다.

처음에는 땅을 빌려 밭농사를 조금씩 짓다가 험난한  
산밭을 개간하여 여러 사람에게 물어 가면서 담배  
농사를 지었다.

담배 농사를 지으면 일 년 만에 방 벽이 누렇게 될  
정도로 여자 힘으로는 다른 농사보다 매우 힘들었지만,  
이 년 만에 목돈이 마련되어 안동에 가서 소 두 마리를  
샀다.

1 멧들

곡식을 가는 데 쓰는 기구.

2 장인

손으로 물건 만드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

3 생활력

사회생활을 해 나가는 데 필요한 능력 《특히, 경제적인 능력을 일컬음》.

안동 우시장으로 소를 사러 갈 때, 친정 집안의 사람에게 소 고르는 법을 철저히 배워서 갔다. 그 덕에 좋은 소를 골라 어느 정도 키워서 되팔아 더 많은 목돈이 생기자 할머니가 소원하던 밭을 샀다.

자기 밭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기쁨으로 몇 날 잠이 오지 않았다.

밭농사 수확이 차츰 늘어나자 할머니는 자식들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에 엄마로서 최선을 다하며 더욱 알뜰하게 집안을 꾸려나갔다.

할머니의 헌신적인 가장 역할에 살림살이가 나아졌을 뿐 아니라 자식들도 엄마의 성실함을 닮았는지 제 몫을 헤쳐나가며 모범적인 사회인으로서, 효자로 칭찬받는. 할머니가 원하는 자식으로 손색<sup>1</sup>없이 자랐다.

할머니가 억척스럽게 집안을 꾸려나가며 산 밭에 할머니가 마음 다잡고 정성을 기울여 농사를 지으면 이상하리만큼 농사가 잘되었다.

할머니보다 농사를 더 오래 지어 본 사람들보다 수확량이 많았다.

“안동댁 할머니 손은 요새 말로 미다스의 손<sup>2</sup>인 겁제.”

이장이 면사무소에 가서 자랑을 많이 하여 안동댁 할머니는 작은 마을 유명인이 되었다.

할머니가 예순 살이 되던 해, 콩 농사가 생각보다 훨씬 잘 되어 손두부를 만들어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1 손색  
서로 건주어 보아 못한 점.

2 미다스의 손  
행운을 잡는 손.

주었다.

“상도야, 이 두부는 매실 할매 갖다 드리고, 이 두부는 이장님 드리고 온다. 얼른 갖다 와가 또 돌리야 된데이.”

“알았나더. 근데 나도 시간 없는데, 현도한테도 좀 시키소.”

“오냐. 한 번만 더 가래이.”

그날, 손두부는 마을에서 맛있는 음식으로 인정되어 마을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였다.

할머니는 수확한 콩 자루들을 살펴보면서 뿌듯하였다.

어제, 영해 콩 도매상인이 할머니가 농사지으신 콩을 다 매입<sup>1</sup>해 가겠다고 계약했기 때문이다.

마을에 손두부를 몇 번 돌리고 나 한 보름쯤 지난날, 늦게 일 마치고 집으로 온 상도가

“어무이요, 우리 손두부 만들어가 팔모 안 될까?”

“머라? 손두부 장사?”

“그래요. 그때 어무이가 만드신 손두부 묵은 우리 친구들이 다 맛있다 캡니다.”

“하하하. 맛있다 카더나. 그라모 또 만들어 돌려 보까?”

“아니, 만들어가 노나주지 말고 팔아 보입시더.”

“야야, 우째 파노. 또, 팔라 카모 많이 만들어야지. 우리가 우째 많이 만들 수 있노. 기계도 없는데…….”

할머니는 그렇게 이 년 동안은 가끔 손두부를 만들어 마을에서 나누어 먹었다.

1 매입  
물건 따위를 사들임.



김지현

할머니 농사 기술은 더 늘어가고 수확도 늘어 갈 뿐 아니라 할머니 농산물은 우수하다고 도매상인들 사이에 인기가 많았다.

할아버지도 이제는 집안일을 곧잘 거들어 할아버지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

“계십니까.”

어제 늦게까지 콩 자루를 정리하고 어깨가 아파서 늦게 일어나 앉은 할머니를 부르는 소리에 할아버지가 문을 연다.

“아, 계시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디서 오셨습니까?”

할아버지가 마루로 나오시며 손님을 맞이한다.

“할머니 계십니까?”

그 소리에 안동댁 할머니가 마루로 나와 손님과 마주 앉는다.

손님은 할머니를 보자 아주 반가워하며 찾아온 용건을 설명한다.

할머니가 가끔 만들어서 마을에 나누어 준 손두부 만들어 자기에게 팔라는 말이다. 하루에 많이는 말고 한 열판만 만들어 두면 자기가 와서 다사 가겠다는 이야기다.

“아이고 우리가 늙어서 그렇게 많이 못 만들어요.”

그렇게 옥신각신하다가 손님은 생각해 보시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다.

늦은 아침상을 마주하자 할아버지가

“할멈. 우리 두부 만들어 볼까? 내가 맷들에 부지런히 콩 갈모 안 될까?”

하고 넌지시<sup>1</sup> 묻자, 할아버지 얼굴을 한참이나 바라보던 할머니가

“우쨌네 일로 먼저 일한다는 말을 하능교?”

하며 반갑다는 듯이 웃으며 응수<sup>2</sup>를 한다.

점심을 먹자마자, 할아버지가 콩 한 자루를 꺼내어 깨끗이 씻기 시작한다.

할머니는 가마솥을 살펴보며 주변을 정리하며 불 땀 준비를 한다.

“콩이 많아서 몇 시간 불리야 되는지 모르겠네. 할멈은 알제?”

그날부터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손두부를 만들기 시작했다.

안동댁 할머니가 예순 살이 된 가을이었다.

첫닭이 울자 할아버지가 먼저 일어나며 묻는다.

“오늘은 몇 판 주문 들어 왔소?”

“세판 만들어야 하니더. 콩도 얼마 안 남았는데…….”

어젯밤에 물에 담가 둔 콩을 다시 한번 헹구어 내고 천막에 전등을 켜고 맷돌을 다시 점검<sup>3</sup>하는 허리 굽은 할아버지를 바라보다가 할머니는 고개를 돌린다. 마음이 아프다.

손두부 만든 지 벌써 9년 째라 이제는 손두부 만드는

1 넌지시  
드러나지 않게 가만히.

2 응수  
상대편이 한 말이나 행동을 받아서 마주 응답.

3 점검  
날날이 검사함.

순서를 눈감고도 척척 안다.

이제는 주문 대로 만들어 판매가 쉬운 대신에 주문량이 많아서 쉴 시간이 없다.

“참 어제 내린 간수<sup>1</sup> 함 살펴보소. 너무 짜모 안 됩니더.”

“간수 맛은 할멈이 더 잘 보잖소. 나는 요새 맛보는 거는 영 틀렸소.”

처음 손두부를 만들기 시작할 때, 간수 농도<sup>2</sup>를 기가 막히게 잘 맞추던 할아버지가 나이 들수록 그 기능이 둔해져 가는지 가끔 손두부 응고<sup>3</sup>가 다른 날이 있었다.

할머니 집 굴뚝 옆, 이빨 빠진 장독 뚜껑 위에 걸쳐진 굵은 나무 작대기 두 개 위에는 일 년 내내 소금 자루가 얹어져 있고 거기서 맑은 물이 장독 뚜껑에 고였다.

이 간수가 우리나라 오는 준비는 아직도 할아버지가 다 하시지만, 간수 농도 맞추는 일을 할머니가 맡기 시작한 것은 이년 전부터다. 간수는 손두부 만드는 데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두 사람은 그 어떤 작업보다도 정성을 들인다.

“야, 간수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어서 콩부터 갈아 주시오.”

할아버지는 불린 콩을 맷돌 입에 한 숟가락씩 떠 넣으며 맷돌을 돌린다.

1 간수  
습기가 찬 소금에서 저절로 녹아 흐르는 물.

2 농도  
어떤 성질이나 요소가 깃들어 있는 정도.

3 응고  
액체 따위가 엉겨 뭉쳐 딱딱하게 굳어짐.

멧돌 박자에 맞추어 잘 넣어야 멧돌 자루에 부딪치지 않는다. 콩이 자루에 부딪히면 사방으로 콩이 튀어 일거리가 더 많아진다. 콩을 멧돌 입에 넣으면서 멧돌 자루를 잡고 당기고 돌리는 기술을 터득<sup>1</sup>하기가 처음에는 무척 어려워, 할머니 핀잔<sup>2</sup>을 들어가며 반년 이상 걸렸다.

멧돌 옆구리에서 삐죽삐죽 흘러나오는 콩가루는 한없이 느리다.

멧돌 가는 할아버지가 팔에 힘이 없어지는지 자꾸 어깨를 두드린다.

할머니는 가마솥에 손을 넣어 물의 양을 다시 살피고 땀감도 확인한다.

손두부 만들기 시작한 지 13년째지만 두부 맛을 걱정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다.

콩물이 서너 차례 끓고 나면 고소한 냄새를 풍기며 보글보글 몽글어진 덩어리가 멧힐 때 할머니는 벌써 두부 맛을 알아차린다.

할아버지도 그 시간을 잘 알아서 간수 바가지를 들고 할머니 지시를 기다린다.

할아버지가 들고 있는 노란 박 바가지도 윤기가 자르르 흐른다.

손두부를 처음 만들 때 할아버지가 손수 만들어 준 나무 상자와 지렛대<sup>3</sup>는 지금은 이용하지 않고 있다.

1 터득  
깊이 생각하여 이치를 깨달아 알아냄.

2 핀잔  
맞대 놓고 언짢게 꾸짖는 일.

3 지렛대  
거운 물건을 움직이는 데에 쓰는 막대기.

끓인 콩물을 자루에 옮겨 지렛대로 돌리면서 걸러 내고, 걸러진 콩물을 하얀 면포로 싸서 나무 상자에 담아 누름판으로 눌러 그 위에 무거운 돌을 얹어 두 시간 이상 지나면 두부가 완성된다.

그 작업은 사람 손이 엄청나게 들어 두 사람이 힘들어하자 장남이 기계 틀을 마련해 주었다.

할머니 두부 한 판은 정사각형 30모가 나온다, 처음 두부 만들 때는 한 판만으로도 다 소비가 되었는데 자꾸 주문이 늘어서 어떤 날은 다섯 판을 만들어야 할 지경이었다. 그 다섯 판을 만들고 난 뒤 두 사람은 며칠 호되게 몸살을 앓았다. 그러고는 다시는 주문을 많이 받지 않았고, 명절 때만 네 판을 만들었다.

명절에 필요한 할머니 손두부를 사려면 며칠 전에 주문해 두어야만 살 수 있었다. 그것도 한 사람당 두 모 이상은 살 수 없었다.

할머니 손두부는 고소한 맛뿐 아니라, 엄청 부드러워 입에 넣으면 샤프레나 푸딩처럼 사르르 녹는다. 그것은 간수의 농도를 아주 적절하게 맞추기 때문이며, 콩을 멧돌에 가는 정도와 콩을 끓이는 시간이 기막히기 때문이라 했다.

그런 손두부 맛이 소문이 나서 인근 군에서도 주문이 쇄도<sup>1</sup>할 정도였다.

그리고 영덕군에서 특산물 장인으로 선정하여 좀 더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지원을 할머니에게 제안했지만 할아버지 건강이 여의치 않아 받아들이지 못했다.

1 쇄도  
한꺼번에 세차게 몰려들.

할아버지가 시간이 지날수록 차츰 쇠약해지고 할머니도 무릎이 심하게 아파서 수술까지 한 후부터는 손두부는 더 맛볼 수 없게 되었다.

할머니 연세가 일흔다섯 되는 해였다.

안동댁 할머니 손두부는 십오년 동안 덕산 2리 마을의 자랑이었다.

“아이고 내 새끼들. 내가 세수시켜 줄게.”

할머니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옛날 손두부 만들던 시간이 되면 아픈 다리를 천천히 움직이며 부엌으로 나가 가마솥을 물걸레로 닦으신다.

가마솥 먼지를 다 닦고 나면 그 옆에 나란히 세워진 나무상자, 나무판, 지렛대를 순서대로 깨끗이 손질하고, 장님이 마련해 준 누름기계통 먼지를 닦는다.

“부뚜막에 또 고양이 놈이 다녀갔네. 머 목을 것도 없는데 밤마다 와 자꾸 오노.”

마을 길고양이가 다녀간 흔적도 귀신같이 알아차리고 부엌 정리하는 일로 할머니 일과가 시작된다.

혼자 생활하는 할머니는 집안일이 많지 않은데도 손두부 만들 때처럼 새벽부터 일어나 할아버지 자취를 더듬으며 순서대로 집안을 한 바퀴 돌아 본다.

손두부 고소함이 구석구석에 남아 있는 덕산 2리 할머니 집.

오늘도 할아버지가 25년 전에 만들었던 콩물 누름 나무상자와 지렛대. 나무 노름판에서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린다.

‘할멈, 더 건강하게 자식들이랑 오래오래 살아야 하오.’



김지현

진행 마을

달산면 덕산 2리

장소

마을 회관

인터뷰 대상

김분이, 김분행, 김순영, 김영자,  
김용석, 박옥순, 임진업, 최동엽

철로가 있었다고 하데.

일본인들이 강구항  
호안공사를 하면서  
무거운 짐들을 쉽게  
운반하기 위해 레일을  
깔아서 운반했다고  
하더구만.

그래서 지금도 위판장

밑에 있을지 모르겠네.

부두만들 때 레일을  
깔아서 만들었다. 등대도  
만들고. 강구수협에 사진  
자료가 많이 있을거야.

강구항은 일본인들이  
기반 시설을 했지.

강구항에서 살아가는 어부들의 일상생활 이야기

옛날 강구항은 항만시설이 역수로 미비했지.

그래도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이 저들  
편하자고 항만시설을 하고 강구항을  
이용했으니까 이렇게 발전한 계기가 되었지.  
강구3리 쪽에는 일본식 집이 많았다.

우리들 고기잡이 배 크기는 4~10톤 미만으로  
소형이었다.

그래도 북으로는 주문진까지, 남으로는 기장까지 고기  
잡이를 다녔지. 그러다 만선으로 돌아오다가 물길을  
잘못 만나면 침몰하기도 했다.

덕산리 근처에  
'청련사'라는 절이 있다.  
사람들이 와서 절하고  
가기도 한다.

산세가 좋고 마을이  
깨끗하고 물이 좋아서  
그런지 허리 굽은 사람도  
없다.

마을에서 나고 자란, 이 마을의 역사와 같은  
97세 김용석 할머니가 마을을 지키고 계신다.

옛날에는 담배가 돈이  
됐다. 그래서 담배를 찌서  
팔았는데, 담배를 잘못  
찌서 시퍼렇게 말린 건  
돈도 안줬었다.

절임배추 작업을 하여  
동네 수입이 늘었다.

개인 이야기

양반집이라고 시집 왔더니 쌀은 하나도 없고 보릿재를  
갈아서 수제비처럼 만들어 끼니를 때웠다. 처음에  
그런걸 하는 것도 부끄러워서 시동생이 오면 숨곤  
했었다.

첫 아이를 낳고 수족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자 남편이  
여러 마을을 다니며 좋은 약을 구해 달여 주어 병이  
나았다 그 후 사남매를 낳아서 잘 키웠다. 하늘이 준

복이라 생각하고 남편에게 고맙다고 생각하며 걱정없이  
노후를 잘 보내고 있다.  
시집을 와 10년 이상 시어머니랑 같은 방에서 생활했다.

두부할머니

안동에서 태어나 몇 군데로 이사 다니며 살다가 영덕  
달산면 덕산으로 들어 와서 살고 있으며 소장사, 담배  
농사 등 먹고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썼다. 그러다  
손두부도 만들어 팔기 시작했다. 손두부 장사를  
시작하고 점점 유명해져서 생활 형편이 나아지기  
시작했다. 이 두부는 영덕에서 정말 유명했다고 한다.  
영덕에서 행사할 때면 이 할머니께 주문해서 판으로  
주문하곤 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청송, 부남 등 다른 지역에서도  
명절 때면 어떻게 알았는지 주문이 들어왔다.

김동엽 할머니

전라도가 고향인데, 창원에서 살다가 며느리 직장 따라  
영덕 덕산 2리로 왔다.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했다.  
그래서 책을 보려고 불 앞에 있다가 치마를 태웠던 적도  
있었다. 어머니한테 과거시험 보러 가려고 그러냐고  
욕을 먹기도 했다. 그렇게 아이들 키우며 잇고 살다가  
아이들을 다 키우고 문화생활 겸 노인대학을 다녔다.  
거기에서 봄소풍을 갔는데, 선생님들이 종이를  
나눠주면서 시를 쓰라고 줬다. 그때 소나무를 보고 시를  
썼는데 그게 채택이 되어서 상도 탔다. 그때부터

문학반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다. 아들이 사준 컴퓨터로 글을 쓰다 보니 글이 많아졌고, 그 작품들을 보더니 아들이 책으로 내줬다. 그 책을 오빠가 보더니 '니가 일 때문에 중학교를 못간 게 내가 너무 미안하다' 하시며 안타까워하며 항상 책을 머리맡에 두고 잔다고 말씀하셨다. 그래도 할머니는 국민(초등)학교 나와서 이름 석자도 쓸 줄 아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며 오빠를 위로했다.

이 할머니가 쓰신 작품 한편이 부록에 수록되어있다.





## 거미와 나와의 인연

최동엽

아침에 거미가 내려 온다  
오늘은 좋은 일이 있으려나 보다  
나와 거미는 인연이 있는 것 같다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거미가 내려오는 날이면  
꼭 좋은일이 있다

아침에 거미가 거미줄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다  
아침에 거미가 내려오면  
그 날은 좋은 일이 생긴다.  
그 이유는 모르지만  
나와 거미는 인연이 있다.

남정면 남정리

## 할미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이영숙

“지금부터 나를 용이 할매라 부르지 말고 ‘김분임씨’라고 불러야 합니다. 알겠소?”

“아, 잘 알았소, 김, 분, 임 씨.”

용이 할아버지는 빙그레 웃으며 대문에 걸린 할머니 허리춤까지 오는 길이의 나무판을 바라보며 용이 할머니 이름을 또렷이 다시 부릅니다.

“김, 분, 임 씨, 글씨 아주 잘 썼소.”

“글치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글자를 배웠는데…”

그러고는 대문에 걸린 길이가 일 미트쯤 되는 나무판을 쓰다듬습니다.

검정 페인트로 ‘김분임이 집’이라고 할머니가 직접 쓴, 할아버지 문패 보다 스무 배나 더 큰 나무판.

할아버지도 흐뭇하게 웃으시며 쓰다듬어 봅니다.

할머니는 자기 이름을 태어난 지 86년 만에 쓸 수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용이 할아버지가 오토바이 타고 강구 장에 가서 검은색 페인트 작은 통, 한통과 붓을 사 왔습니다.

어제 문해교실<sup>1</sup>을 다녀오자마자 몇 번이나 검은색 페인트와 붓을 사 달라던 할머니 부탁을 명심<sup>2</sup>하고 페인트를 사 온 할아버지는 아침도 먹지 않고 헛간<sup>3</sup> 구석에 있는 나무판부터 챙겼습니다.

“이만하면 되겠소?”

할아버지는 할머니 부탁대로 경로당 출입문에 달린 ‘남정리 경로당’이라고 쓰인 판자 크기만큼 자른 나무판을 들고 부엌으로 가 할머니에게 보였습니다.

“아니 벌써 잘랐네. 페인트는 사 왔능교?”

“사 왔지요. 누구 명령이라고. 늦으면 안 되지. 하하하.”

“그런데 나무판이 너무 작지 않나?”

“이것보다 더 크면 이상하지. 내 문패 보다 스무 배나 크는데.”

“그런가? 아침 묵고 대패<sup>4</sup>로 좀 다듬어 주소.”

“아니, 지금 바로 다듬어 줄 테니 아침 준비하소. 멋지게 다듬어 줄 테니…”

1 문해학교

초등학교 교육을 받은 수준에 해당하는 읽기·쓰기·셈하기의 기능을 가르치는 학교.

2 명심

잊지 않도록 마음속에 새겨 둠.

3 헛간

문짝이 없는 광.

4 대패

나무를 곱게 밀어 깎는 연장.

할아버지 솜씨를 믿는 할머니는 생긋 웃으며 아침상 준비를 하며 할아버지 대패질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상 차리는 할머니 손길이 나비처럼 팔랑거립니다.

두 사람은 아침상을 물린 후 평상에 신문지를 깔고 그 위에 어제 문해교실에서 쓴 할머니 이름을 연습한 공책하고 나무판과 페인트, 붓을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자 보소. 내가 동그라미 표시해 둔 자리에 연필로 먼저 쓰고 그 글자 따라 페인트로 써야 실수가 없거든. 그래 하소.”

할머니는 할아버지 시키는 대로 공책을 보면서 연필로 먼저 동그라미 안에 ‘김, 분, 임이 집’이라고 또렷이 씁니다.

“야, 정말로 잘 쓰네. 우리 김분임씨, 아자! 자, 붓 잡고 페인트를 우선 조금만 적셔 보소.”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페인트 통에 조금 넣어서 살살 흔듭니다.

“그렇지, 우리 분임 씨 잘하네. 과연 내 각시네. 하하하. 인자, 붓으로 써 보소.”

할머니는 연필로 쓴 글자 위를 조심스럽게 붓으로 따라 씁니다.

‘김’ 자가 완성되자 할머니가 깊은 숨을 내쉬며 허리를 쪽 찹니다.

할아버지는 대견<sup>1</sup>하다고 할머니 어깨를 쓰다듬어 줍니다.

“잠깐 쉬었다가 그다음 글자 씁시다. 물 좀 갖다

1 대견하다  
흐뭇하고 자랑스럽다.

줄까?”

재빠르게 부엌에서 물 한 컵을 가져다주자 긴장했는지 할머니가 벌컥벌컥 순식간에 마셨습니다.

그 모습이 안쓰러운지<sup>2</sup> 할아버지가 다시 할머니 등을 토닥거렸습니다.

할머니도 진땀이 나는지 붓을 페인트 통에 담그고는 나무판 옆에 앉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한 번 쓰다듬었습니다. 잠시 쉬어야겠는지 허리를 다시 쪽 찹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한글을 몰라 자기 이름도 쓸 줄 모르고 살아온 답답했던 86년이 후딱 하늘로 날아가 버린 후련함에 할머니는 큰 숨을 내쉬며 다시 붓을 잡습니다.

“인자 쉬지 않고 바로 써 볼란다. 잘 보소이.”

“그라소. 나는 옆에 가만히 있을 테니.”

할머니는 입을 꼭 다물고 천천히 ‘분’자를 쓰고, ‘임’자를 쓰고, 연이어 끝까지 팔에 힘을 주며 숨도 참으며 써 내려갔습니다.

페인트가 골고루 묻지 않아서 두껍게 쓰인 부분도 있었지만, 할머니는 여간 흐뭇한게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잘 썼구나. 정말 수고했소. 우리 할멈. 장하다 장해.”

“진짜 잘 썼지요? 빨리 말라야 때문에 걸 낀데…”

“아 걱정하지 마소 이 페인트는 기름이 섞여 곧 마르고 비가 와도 끄떡 없소.”

1 긴장  
마음을 가다듬어 정신을 바짝 차림.

2 안쓰럽다  
힘없는 사람이나 손아랫사람의 딱한 형편이 마음에 언짢고 가 없다.

한 달 전, 마을 이장이 경로당에서 문해교실과 한글을 배울 수 있다는 설명을 할 때 마을 할머니들 반응은 심드렁<sup>1</sup>했습니다

“다 늙어가 인자 글자 배우모 우리가 알것나.”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늙은 우리를 누가 가르쳐 주것노.”

“한 삼 년 더 걸리야 우리가 글자 알것제?”

경로당에 모인 여러 할머니가 한마디씩 하는 말들은 문해교실을 반기는 분위기가 아녘습니다.

“그래도 함 해 보입시더. 일단 자기 이름 쓸 줄만 알아도 좋지 않능교.”

이장이 다시 할머니들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설득<sup>2</sup>하려 하자, 가장 나이가 많은 용이 할머니가,

“그래, 이장 고맙네. 이장이 우리 위해가 신청했다 카이 우리 함 배워 보자.”

하며 할머니들을 쓱 둘러 보셨습니다.

“형님이 배우신다 카시는데, 우리도 같이 해야지.”

경로당에서 암전하다고 인정하는 찬이 할머니가 거들자 다른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문해교실이 시작되어 열 한 명의 할머니 학생이 매주 월요일, 목요일 이틀간 공부를 하였습니다.

학생들 평균 나이가 83세이십니다. 마을의 자랑거리가 싹 트기 시작하였습니다.

1 심드렁하다  
마음에 탐탁지 않아 관심이 없다.

2 설득  
여러 가지로 설명해서 납득시킴.

문해교실 첫날, 이장이 처음 문해교실 한글 공부를 제안했을 때 대답하지 않으시던 할머니들이 더 일찍 오셔서 기다렸습니다.

“아이고야, 9시도 안 됐는데 벌써 왔나?”

“하하하 형님도 9시 안 됐는데 오시네요. 우리만 일찍 온기 아니구만.”

“내야 할 일이 없어가 그냥 일찍 왔제. 너거들 하고 다르지…”

서로 일찍 온 것을 탓하지만 모두 문해교실 입학이 설레고 기대되었기 때문이랍니다.

“나는 공부라 카는 걸 처음 해 본다. 우짜는 긴지 참 궁금하네. 후후, 떨린다.”

모두 문해교실 선생님이 궁금하고 처음 하게 되는 공부에 긴장되나 봅니다.

열 한 명의 할머니들은 개인마다 앞에 놓인 얇은뱅이책상 위에 필통을 몇 번이나 고쳐 놓고는 시계를 보고 또 보았습니다.

그 얇은뱅이책상은 영덕 노인회에서 할머니들 공부를 위해 마련해 주었습니다.

허리가 고부라진 할머니들을 위해 높이가 보통 상보다 좀 높아 보입니다.

이장님이 틀림없이 10시까지 모이라고 했는데 9시도 되기 전에 할머니들은 다 모여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 제안  
의안을 내어 놓음.

“와 이리 안 오노.”

“아니고 이 할망구야. 인자 9시 28분이다.”

꼭 초등학교 일학년 아이들이 모인 교실  
같았습니다.

그때 경로당 마당으로 자동차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 소리 났제? 선생님 오시는 갑다. 전부 일어나가  
있자 어서.”

제일 어른이신 용이 할머니 말에 따라 할머니들은  
아픈 다리를 힘겹게 움직이며 겨우 일어났습니다.

문이 열리며 이장과 노련한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오셨니더. 와, 다 일어나가 계시네예. 하하.”

두 손 모으고 정중히 서 있는 할머니들을 보고  
이장은 재미있다는 표정이고,

뒤따라 들어오시던 선생님도 걸음을 멈추고  
할머니들을 둘러 보았습니다.

경로당 안이 순간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와, 일찍 오셨군요. 다리도 불편한데 다들 왜 서  
계십니까. 모두 앉으십시오.”

문해교실 선생님은 긴장하고 서 있는 할머니들을  
보니 죄송하여 몸을 낮추어 인사를 드렸습니다.

“앉으십시오. 모두 다 연세가 많아서 계시기  
불편한데 앉으셔도 됩니다.”

처음 만나는 선생님 목소리가 아주 다정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언지예. 인사하고 앉으께예.”

연세가 가장 많은 용이 할머니가 긴장감을 풀고 용기  
있게 대답하자



“아 그럴까요? 그럼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읍내 고등학교 교감 선생님께서 퇴직<sup>1</sup>한 선생님이 자기소개하고 자리에 앉자 할머니들도 편히 앉아 선생님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선생님요 어디서 마이 봤는 사람이네요. 우리 손자 고등학교 앨범에서 봤는가……?”

원구댁 할머니가 쑥스럽기도 하지만 친근감 있게 한마디 하자, 할머니들 사이에 웅성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하하하. 맞습니다. 저가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영덕을 떠나지 않고 70 몇 년을 영덕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저를 아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 대신에 장에도 잘 가니 장에서도 저를 보셨지 싶습니다 하하하.”

문해교실 선생님과 의 첫 대면은 동네 사랑방에 모여 격의<sup>2</sup> 없이 담소<sup>3</sup>를 나누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문해교실 선생님이 낯설지 않자 할머니들 특유의 사투리로 너도나도 한마디씩 하자 잠시 소란스러웠습니다.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던 선생님이 일어나 칠판 앞에 서더니,

“자, 여러분. 저에 대해 잘 아시는 것 같으니

1 퇴직  
현직에서 물러남.

2 격의  
서로 티놓지 않는 속마음.

3 담소  
웃으면서 이야기함.

다행입니다. 저는 선생님이라기보다 어르신들과 함께 나이 들어가면서 여러분의 불편한 생활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고맙니더. 잘 가르쳐 주이소.”

하며 할머니들이 손뼉을 쳤습니다.

우렁찬 할머니들의 대답과 박수 소리가 어우러져 경로당은 마을 잔치하는 날인 것 같았습니다.

한 시간 정도로 입학식을 같은 상견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용이 할머니는 손자에게 전화하려다가 ‘어이구, 지금 근무 시간이네. 저녁에 해야지.’

하면서 가방을 벽이 걸어 두고 점심 준비를 하러 부엌으로 나가자 마침 오토바이 소리가 나며 용이 할아버지가 오셨습니다.

“어! 학교 벌써 끝났소? 혼자 밥 챙기 물라꼬<sup>1</sup> 왔는데……”

“오늘은 공부 안 하고 일찍 마쳤니더.”

점심상을 마주하자마자 용이 할머니가

“우리 선생님, 읍내 교감 선생님이었다네. 잘 가르쳐 주겠습디더.”

“그래? 그라모 용이 고등학교 때 선생님 아인가 모르겠네.”

“안 그래도 저녁에 용이한테 전화해 불라고 합니다.”

“전화는 무슨. 담에 물어보소. 전화하모 할매 공부한다고 또 머 사 출라칸다. 아이들 돈 쓰게 하지 마소.”

1 물라꼬  
‘먹으려고’의 사투리.

단호한 할아버지 말에 용이 할머니는 더 이상 대꾸를 안 했습니다.

“할멈 공부하는데 필요한 거는 말만 하모 내가 다 사다 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할아버지는 목소리를 조금 부드럽게 낮추며 할머니 뽀로통해진 눈길을 피합니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이 되면 경로당 문을 이장은 다른 날 보다 더 일찍 열어 두어야 했습니다.

공부하는 날이 하루 이틀 쌓여가자 열 한 명 할머니들의 학구열<sup>1</sup>은 대단했습니다. 아침 먹자마자 경로당으로 와서는 받아쓰기 복습을 하거나 읽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달소리 흘소리 공부를 닦새 만에 할머니 학생들이 다 깨우쳤습니다. 선생님도 너무 기쁘셔서 그날은 자장면을 사 주셨습니다.

“야~~~, 우리 학생들 최고입니다. 이렇게 똑똑한 학생들, 내 처음 뵙니다.”

“다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신 덕분인 기라. 담에는 우리가 자장면 대접 할게예.”

문해교실 대표격인 용이 할머니가 고맙다고 인사말을 하자 또 큰 박수가 터졌습니다. 할머니들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자장면을 먹은 날입니다.

달소리 흘소리를 다 깨우치고 나자 할머니들이 제일 원하는 이름 쓰기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1 학구열  
학문 연구에 대한 정열.

“와~~, 우리 선생님 최고다. 내 이름 얼마나 쓰고 싶은데, 다 내 맘하고 똑같제?”

두 번째로 나이가 많은 정임이 할머니가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좋아했습니다.

선생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이름을 써 주시며 따라 쓰기 시간을 주자 경로당 안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필순<sup>1</sup>을 살펴봐 주시고 글자형도 바로 잡아 주셨습니다.

마을 대부분 할머니는 어린 시절 가정 형편상, 또는 부모님의 무관심, 아니면 여자라서 학교에 다니지 못했습니다. 부모님 말씀 따라 집안일만 하다가 시집가서는 시부모님 모시고 생활하다 보니 자신보다는 다른 식구들만 챙기며 살아왔습니다.

경로당에 모이는 할머니 중 아주 드물게 글자를 읽을 줄 알고 자기 이름 쓸 줄 아는 할머니 서너 명을 모두 부러워했습니다.

선생님이 용이 할머니 공책에 ‘김분임’이라고 써 주시자 할머니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이기 내 이름 인교.’라는 소리가 목에 딱 걸려 나오지 않아 순간 숨을 꿀꺽 삼켰습니다. 연필 잡은 손이 떨려 바로 따라 쓸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할머니들도 연필 친 손이 떨리는지 곧바로 따라 쓰지 못하고 선생님이 써 주신 자기 이름을 한참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1 필순  
글씨를 쓸 때에 획을 긋는 순서.

“와, 떨리네! 내가 인자 내 이름 쓰는 날이네. 와 이리 떨리노.”

평소에 경로당 할머니 심부름을 제일 잘하는, 나이가 가장 적은 상국이 할머니 말에 선생님이 손뼉을 쳐 주셨습니다.

그 손뼉 소리가 무슨 신호라도 되었는지 할머니들 이름 따라 쓰는 연필 소리가 삭삭나기 시작했습니다.

용이 할머니는 공책 세 페이지째 이름을 쓰면서 연필 한 번 놓지 않았습니니다.

팔이 아프지도 않았습니니다. 입을 꼭 오므리며 한 자 한 자 정성을 기울이며 안 보고 쓸 수 있도록 머리에 새겼습니니다.

‘아, 오늘 집에 가자마자 말해야지. 용이 할배는 내 말 다 들어 줄 까다.’

용이 할머니가 네 페이지째 자기 이름을 다 쓰고는 싱긋 웃었습니다.

“선생님요. ‘집이라는 글자는 우예 쓰능교.”

“집이라는 글자? 써 드릴까요?”

“예, 여<sup>1</sup> 옆에 좀 써 주이소.”

선생님은 용이 할머니가 ‘집’이라는 글자를 왜 써 달라고 하는지 영문을 모르지만 써 주시자 용이 할머니는 만족스럽게 공책이 뚫어질 정도로 바라보았습니다.

집에 가자마자 할아버지에게 부탁할 일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1 여  
‘여기’의 사투리.

‘글치 그걸 준비해가 써야지. 내가 먼저 해야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용이 할머니가 손에 더 힘을 주면서 이름을 다시 또박또박 정성껏 이름을 썼습니다.

문해교실이 끝나자마자 집으로 온 할머니는

“용이 할배요 어디 있는교? 내 좀 보입시더.”

용이 할머니가 숨찬 소리로 할아버지를 찾자 방문을 연 할아버지가

“와 그라요. 무슨 일 있나?”하시며 놀라셨습니다.

“내 머 좀사 주소. 꼭 사 줘야 되니더.”

“이 사람아, 숨이나 좀 쉬고 말하소. 방으로 들어오소.”

마루에 걸쳐 앉은 용이 할머니가 책가방에서 공책을 꺼내더니

“이거 보이소. 나도 인자 내 이름 쓸 줄 압니더. 오늘 문해교실에서 배웠니더.” 하며 얼굴이 상기 되어 공책을 펴 보이며 자랑하였습니다.

“아이고잖아. 함 봅시다. 김분임. 잘 썼네! 하나도 안 틀리고 이쁘게도 잘 썼네.”

할아버지 칭찬에 할머니는 자신이 더 대견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대문 앞에 내 이름 써 붙이고로 페인트하고 붓 좀사 주이소.”

“어? 대문 앞에? 가만... 그라모 문패 같은 거 말이가?”

“예, 맞니더. 근데 쯤맨한 거 말고 경로당 간판만 하게 써 볼랍니더. 나무판도 하나 다듬어 주고요.”

“용이 할매요, 가만히 좀 있어 보소. 문패는 하나 써 달라 카모 되제. 머 할라고 힘들고로 직접 쓸라 카노.”

할아버지가 할머니 눈치를 보면서 달래듯 말하니,

“아 참, 내가 직접 써야 내가 내 이름 쓸 줄 아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잖소.” 하며 직접 써야 하는 이유를 밝히고 눈을 살짝 흘기며 섭섭한 마음을 전 합니다.

그제야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마음을 알아채고는 미안해 하시며 “아아, 맞다 맞네. 내가 그 뜻을 몰랐네. 글치 그렇네. 알았소. 내일 강구 장날이니 새벽 일찍 가서 사 오겠소.”

할아버지는 더 다른 말을 하지 못하고 공책을 다시 보고는 “오늘 하루 배웠는데 이리 잘 썼구나. 우리 할멈 똑똑하네.”

할머니를 다시 칭찬하셨습니다.

“내가 나무판도 크게 해 달라 카는 이유는 경로당 간판만 하게 ‘김, 분, 임이 집’이라고 쓰지요. 선생님께 내만 몰래 ‘집’자도 배웠거든.”

“그랬구나. 나는 이 ‘집’자는 뭐고 했제. 생각 잘했네. 하하하.”

용이 할머니는 자기 생각을 또 칭찬해 주는 할아버지가 고맙고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거절하지 않고 다 사 주겠다는 할아버지가 정말 감사하여 점심상을 더 정성 들여 차렸습니다. 내일을 생각하니 더 신나고 밥맛도 있었습니다.

다른 날은 문해교실 다녀오면 피곤하여 낮잠을 잤는데, 그날 오후에는 피곤한 줄도 모르고 손빨래도 하고 집 안 청소를 구석구석 했습니다.

그리고 세제를 탄 물과 긴 청소 솔을 가지고 대문을 철저히 문지른 다음, 호스로 물을 뿌려 깨끗이 청소하였습니다.

“내가 도와줄까요?”

할아버지가 거들어도 괜찮다고 끝까지 혼자 하였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도 “내일 약속 꼭 지켜야 하니데이.”

할머니는 몇 번이나 할아버지에게 다짐<sup>1</sup>을 받고야 공책을 머리맡에 놔두고 잠들었습니다.

이름을 쓴 지 한 시간쯤 지나자 페인트가 다 말랐습니다.

할아버지는 ‘김분임이 집’이라고 쓴 길이가 꽤 길쭉한<sup>2</sup> 나무판과 연장 상자를 들고 대문 앞으로 나가자 부엌에 설치하던 할머니가 쪼르르 따라 나왔습니다.

“내 부르지요. 나도 언제 마르나 하고 기다렸구만.”

하면서 연장 상자를 잡아 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길쭉한 나무판을 두 손으로 들고는 어디쯤 달면 좋은지 대문 여기저기에 대 보며 할머니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어데 달면 좋은가 뒤에서 잘 보소.”

“영감 문패<sup>3</sup> 바로 밑에 달았으면 좋겠네예.”

“내 문패 밑에?”

“글치요. 여자 이름을 우째 남정네 이름 위에 달아 두는교. 안 그래도 나무판이 커서 미안하구만...”

“하하하, 나무판 큰 거는 아는가 베.”

1 다짐  
이미 한 일이나 앞으로 할 일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거나 강조하여 말할.

2 길쭉하다  
조금 길다.

3 문패  
주소·성명 따위를 적어 문 옆에 다는 패.

“어제는 크게 하고 싶어가 그랬는데 해 놓고 보니 너무 커네요. 미안하너.”

할머니가 고개를 약간 숙이며 할아버지 눈치를 보는지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하하하, 그래도 괜찮소. 우리 할멈이 이름 쓸 줄 아는기 나도 자랑스럽고 기분 아주 좋소.”

할아버지는 할머니 이름 판 네 군데에 못 구멍을 뚫어 자기 문패 아래쪽에 굵은 못질을 하면서 달았습니다.

대문 벽이 아주 단단한 돌이라 못이 튕겨 나가지 않고 바르게 들어가도록 할아버지가 힘주면서 정확하게 망치질을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나무판이 움직이지 않도록 꼭 붙잡고 못질로 생기는 진동을 즐겼습니다.

할아버지는 솜씨가 좋아 전동<sup>1</sup>으로 못질하는 연장<sup>2</sup>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네 군데 못질이 무척 힘들었지만, 할머니를 위해 할아버지는 정확하고 바르게 할머니 이름 판을 반듯하게 달았습니다.

“자 한번 보자. 야~~ 인자 우리 집 대문이 더 모양새 나네. 신태평. 김분임이 집. 아주 멋지다. 우리 동네 최고 집이다.”

“용이 할배요, 고맙심더. 이리 멋지게 내 이름 적인 판을 다 달아 주고 정말 고맙심 더.”

1 전동

전기로 움직임. 또는 전력을 동력으로 이용하는 일.

2 연장

어떤 일을 하는 데 쓰는 도구.

할머니가 울먹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엄마가 이걸 봤으면 말도 못 하도록 좋아 할텐데…. 나를 학교 못 보내 맨날 미안하다 카면서 시집 보냈는데…….”

“어허, 좋은 날. 와 그라노. 이것 빨리 정리해 놓고 농협 갑시다.”

할아버지가 연장들을 상자에 담으면서 뜬금없이<sup>1</sup> 농협 가자고 하시자 할머니는 “농협요? 와요? 내가 갈 일이 있는교?”

“일이 있제. 따라가 보모 알끼요. 어서 준비하소.”

용이 할머니는 오늘만큼은 할아버지 말을 거역<sup>2</sup>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설거지를 빨리 끝내고 나갈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오랜만에 할아버지 오토바이 뒤에 탄다는 것만으로도 즐겁습니다.

할아버지가 가방 하나를 할머니에게 주면서 단단히 붙잡고 가자고 당부하며 헬멧도 씌워 주었습니다.

집에서 강구<sup>3</sup> 농협까지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 10분이 채 걸리지 않는 거리였습니다.

농협 창구에 앉은 경태네 둘째 딸이 의자에서 일어나 반갑게 인사를 하며 번호표를 뽑아 주었습니다.

“잠깐 기다리시면 됩니다. 요구르트 하나

1 뜬금없이

갑작스럽고도 엉뚱하다.

2 거역

윗사람의 뜻이나 명령을 어겨 거스름.

3 강구

남정리 가까이 자리잡은 면소재지 이름.



드릴까요?”

이곳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시면 꼭 요구르트를 대접하였습니다.

“26번 손님. 3번 창구로 오세요.”

이쁜 목소리에 끌려 할아버지가 가시더니

“우리 할멈, 통장 하나 만들라고.”

하시면서 아까 할머니께 맡겼던 작은 가방을 들어 보였습니다.

순간, 용이 할머니 귀가 번쩍 뜨여 무슨 말인가 싶어 할아버지 옆으로 갔습니다.

“우리 할멈이 한글 공부를 해가 자기 이름을 인자 쓸 줄 알 거던. 그래가 내가 우리 할멈이 직접 자기 이름 쓴 통장 하나 만들어 줄라 칸다.”

용이 할머니는 순간 그 자리에 몸이 꺾어지며 꿈쩍할 수 없었습니다.

“와, 할아버지 멋지다. 할머니, 축하합니다.”

이쁜 목소리가 귀가에서 웅웅거리고, 이름 하나 제대로 쓸 수 있게 되니 완전 다른 세상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여기저기서 하는 축하 인사를 받으니 박사라도 된 기분이었습니다.

“인자 이름 겨우 쓰는데 용이 할배가 좀…….”

용이 할머니는 좋아서 배시시 웃으면서 겸손한 척하셨습니다.

통장에 직접 이름을 쓰는 용이 할머니 손이 또 바르르 떨렸습니다.

통장을 건네받고 집으로 돌아보면서 용이 할머니는 오토바이 뒷자리에 앉아 용이 할아버지 허리를 더 꼭

붙잡았습니다.

집 앞에 오토바이를 멈춘 용이 할아버지가

“자, 우리 ‘김분임이 집’에 다 왔습니다. 내리십시오.”

라 하시며 꺾꺾 웃으셨습니다.

용이 할머니는 통장이 든 작은 가방으로 이름 판을  
또 쓰다듬어 보았습니다.

‘김분임이 집’은 그날 온 동네에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자꾸 드나들었습니다.

아마 다음 월요일 문해교실에서도 웃음꽃 피는  
이야깃거리가 될 것입니다.

2016년부터 문해교실에 4년 다닌 남정리

할미꽃들이 활짝 피어 ‘찾아가는 한글  
교실’이라는 문집<sup>1</sup>을 발간<sup>2</sup>하였습니다.

이 문집에는 할머니들의 시와 일기, 자식들에게  
쓴 편지글 등등이 실려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꽃보다 제일 아름다운  
할미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지금도 남정리 할머니들은 문해교실을  
그리워하고 그때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주신  
선생님을 잊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문해학교에 다녀셨던 할머니들 중 몇 분은 고인이  
되셨습니다.

그 분들이 마을 뒷산에서 봄이면 더 윤기<sup>3</sup>나는  
할미꽃으로 돌아나고 있을 겁니다.

1 문집

시나 문장을 모아 엮은 책.

2 발간

책·신문·잡지 따위를 만들어 냄.

3 윤기

반들거리는 기운.



진행 마을
남정면 남정리
장소
마을 회관 (경로당)
인터뷰 대상
강갑경, 강춘자, 권말순, 권오정, 김만봉, 김순남, 김옥자, 김해주, 김화선, 박수태, 박필영, 양정숙, 윤영희, 이영자, 이자용, 장말선, 최수옥, 최윤우

마을이 모두 초갓집이었다.살기가 어려운 빈농이었다.

6,25 때는 포항까지 걸어서 피난 갔다.

마을에 불이 자주 나서 화재를 방지 하기 위해 매년  
정월 대보름날 '달뽕뛰기'라는 놀이를 하였다.

마을에 화재가 자주 일어난 이유는  
시죽 끓인다고 가마솥에 불 피워 두고는 여자  
혼자 몸으로 집안일 이것저것 다하다 보니 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불초가집이라 불이  
번진거다.사실은 저절로 불이 난 것이 아니다.

논이 별로 없었고 산비탈 밭에서 일하다 보면 집집 마다  
보릿단 태우는 소리가 타닥타닥 나면 저녁 하러 집으로  
급하게 달려 오는 세월을 살았다.

쌀 서말도 못 먹고  
시집갔다. 모두 가난했다

남정면은 옛날부터  
민족운동을 하신 분이  
많았다. 마을에 쌀이 귀해  
논농사를 짓기 위해  
마을에 저수지보다 작은  
소(沼)가 많았다.

마을 규모는 작아도  
남자들은 거의  
남정면이나 강구면으로  
학교 다녔다.

쌀이 귀해 도토리 밥.  
대두밥, 좁쌀밥, 등으로  
끼를 때웠다.

남정리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전승되어 온 달봉놀이는 월봉놀이라고도 한다.

조선 중엽부터 이 마을에 화재가 잦아 그 원인을 알아보니 마을 앞산이 화산(火山)이 충천한 산이므로 산의 지력(地力)을 약화하고 화기를 억제하는 그 방비책으로 달봉놀이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마을 뒤 산봉우리에 다섯 말짜리 항아리를 10m 간격으로 열 군데에다 묻고, 바닷물을 가득 채운 뒤 그 항아리를 넓고 무거운 뚜껑으로 덮어 두어야 산의 힘과 화기가 약해져 화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방비책을 어느 스님이 알려 주었다고 전한다.

마을의 화재를 막기 위한 이 방비책을 따르기 위해 음력 정월 14이면 주민들이 남호리 앞바다까지 가서 바닷물을 길어 와 항아리를 가득 채운 다음 산에서 나무 방망이를 이어 던지면서 마을로 내려와 풍악을 울리고 지신을 밟았다고 한다.

이런 마을 행사가 마을 주민들의 정월 대보름 전통놀이를 발전하여 달봉놀이가 이어져 왔다.

달봉놀이는 마을을 웃마(上里)와 아랫마(下里)로 나누어 각 마을에서 고른 고목에 20m 사이로 나무를 연결하여 기(旗)를 세웠다.

그리고 웃마는 총각, 아랫마는 처녀로 상징하여 음력 정월 열나흘(14일) 저녁에 아랫마 기(旗)가 있는 곳에 웃마 기(旗)가 장가드는 형식을 갖추고 한 곳에 옮겨 모셔두고 정월 대보름날 마을 뒷산 가장 높은 봉우리인 월봉(月俸)에 올라가서 웃마 아랫마에다 각각 지정한 장소에서 던지기를 잘하는 청년들을 산봉우리까지 줄을 세웠다가 보름달이 떠오르는 순간부터 방망이를 던져 겨주하여 기(旗)를 먼저 맞는 쪽이 승리한다는 놀이다.

이 경기에서 이긴 편이 풍악 울리면 진 편에서는 술을 제공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하여 빈번했던 화재(火災)가 예방되어 마을이 무사했다고 한다.

이 전통놀이는 일제 말엽에 중단되었다가 1983년부터 다시 이어왔지만, 지금은 마을 인구 감소로 전국 유일한 행사가 중단되어 매우 아쉽다고 했다.

감사합니다

김영해

내 이름도  
전화번호도 (모르던 내가)  
한글을 배워서  
내 이름도 쓰고  
전화번호도 외우고  
혼자 이름도 씁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고독사 및 사회적고립가구  
사회적관계망 형성 연계프로그램

# 어르신들의 인생이야기

## 내 고향 갈미봉에 소쩍새 울면

최정연

사암리는 영덕군 남정면 바데산 동쪽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다. 장사리 지나 도촌리를 지나 달산으로 연결되는 큰길을 하염없이 달리다 보면 굽이굽이 숲길이다.

깊은 산골 고향마을로 들어와 홀로 오래된 한 사람을 만나기로 했다. 파란색 지붕을 이고 있는 작은 집을 바로 찾았다. 낯설지 않다. 이곳에 구순을 바라보는 김재진시인이(1938.08.12.~) 살고 있다.

초록 담장을 휘두르며 자라고 있는 담쟁이 울타리가 제법 튼실하다. 마당으로 들어서니 낮은 돌담 아래 한 뼉 정원이 눈에 들어온다. 이 무더위에 잡풀이 무성할 수도 있겠으나 풀밭이 아닌 너무나 정갈한 텃밭 정원이 잠시 시선을 끌었다.

어느 해 늦가을로 기억된다. 지역 문우들과 함께 김재진시인을 찾아 짧게나마 인사를 드린 적이 있다. 불청객마냥 불쑥 찾아온 지역 문우들을 선생은 반갑게 맞으며 책 꾸러미를 주섬주섬 선물로 주셨다. 좋은 날 다시 와서 트랙 시 낭송을 해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일행과 귓속말로 주고받은 건 쌀랑한 겨울바람 탓이었던가. 무심히 몇 해를 흘려보내고 오늘 다시 이 텃밭을 마주하니 송구하다.

소일거리로 직접 가꾼다는 그 텃밭 마당에는 여름 한낮의 짙은 초록만이 빈집의 열기를 오롯이 견디어내고 있었다.

선생은 이미 오래전부터 홀로 되었다. 일찍이 시인이라는 이름을 얻어 텃밭을 가꾸며 산마을

변방에서 시을 짓고 있다. 몸소 가꾼다는 텃밭정원은  
어쩌면 선생의 벗이요, 영적 교감의 존재로 충분했겠다.  
한 뺨 정원으로 자라나는 식물들에게 선생의 동반자적  
의미를 내 맘대로 부여해 보았다.

마당을 나와 대문 밖으로 몇 발짝 걸음을 옮기니  
마을경로당이 보인다. 예감대로 선생은 경로당에서  
더위를 식히고 계셨다. 올해 여든 일곱을 훌쩍  
넘기셨는데도 선생의 기억은 명민하고 또렷하다. 마을  
이야기며 옛사람을 추억할 때면 이야기보따리가 제법  
즐비하시겠다. 선생이 청춘 시절부터 키워 온 삶의  
역사가 고스란히 호명되기도 할 것이다.

남정면 사암1리 마을은 스무 가구 정도가 올망졸망  
이마를 맞대고 살아가는 김녕 김씨의 집성촌이란다.  
사암리라는 이름에서 ‘사암’의 원뜻은 본디 ‘적암’ 붉은  
바위라는 뜻을 품고 있는데 일제 치하 때 일본인들에  
의해 마을 통합 과정에서 마을 이름의 한자 기록이  
영동하게 표기된 것으로 선생은 기억하고 있었다. 마을  
앞에는 지금도 붉은 바위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음이  
증명된다.

홀로 남은 생을 꾸려가는 선생에겐 더없이 푸근할 고향  
마을 사암리, 선생은 젊은 시절 군 복무를 끝내고 잠시  
도시 생활을 제외하고는 줄곧 이곳 사암마을 고향에서  
정착하고 있다고 한다.

## 귀족도 울음으로

영덕군 남정면 사암리 50-3번지에서 김재진  
선생은 아버지 김학규, 어머니 이봉생의 사이에서  
태어났다. 이후 포항에서 영흥초등학교, 동지중학교,  
동지고등학교를 거쳐 서울성균관대학교 국문학과에  
입학, 월탄 박동화 교수에게 2학년까지 수학하였다.  
성균관대 2학년 재학시절은 박정희 정권 시기였는데  
복무를 위해 입대를 하는 과정에서 군 기피자로  
분류되어 복학이 불가능, 기이한 사정으로 선생은  
안타깝게도 대학공부를 끝까지 마칠 수 없었다.

선생은 불교철학에 관심이 많았으나 오직 시의 길을  
걸고자 불교에 귀의함을 포기하기도 했고 아버지  
친구분의 집안 어른 소개로 혼처가 있었으나 어머니의  
강한 반대로 더 이상 인연을 만들지 않게 되었다 한다.  
이후에는 정말 혼인의 운이 없어졌는지 지금까지  
독신으로 살고 있으니 선생에게 자녀가 당연히 없는  
이유이겠다. 마음 한편으로는 독신자로 살아가기  
위함에는 오로지 시인 지망생으로서의 목적이  
따로 있었다 하니 듣는이의 마음이 순간, 잔해지는  
대목이었다.

문학청년이었을 당시의 인생 열정, 또는 희로애락의  
파란만장한 시대 스토리가 흘러나올 것 같아 나는 몇  
차례 더 사암리 마을을 방문했다.

선생께서 회고하기를 시의 세계를 알기 위해

부지런히 습작을 하다보니 영남의 문향이며 대구에서 발간되는 범시민 동인지[죽순]과 부산에서 발간되는 [남부문학]지로 추천 등단했고 그 이후에는 포항 [해동문학]에 다시 평론이 추천되어 문단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고 한다. 젊은 시절에는 주로 화진포해변을 무대로 작품 활동을 했고 당시 포항회원으로서 하회마을 등 경북 각처를 다녔다고 한다.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오로지 문학 인생으로 되돌아봤을 때 삶의 이정표는 진정 무엇이었나 여쭙어보니 주어진 생에서 얻게 된 삶의 이정표는 평생토록 자연인처럼 살면서 절대 고독의 삶이야말로 생애 유일한 희망이었노라 담담히 말씀하셨다.

사암마을 입구, 시비에 새겨진 시 <귀촉도>는 선생이 군 복무를 모두 끝내고 고향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 밤새도록 울어대는 새 울음 소리에 도무지 잠이 들지 못해 시로 짓게 된 청년 시절 작품이었다 한다. 선생의 말을 직접 빌리자면 귀촉도 시비를 바라보는 본인은 “내 고향 마을의 따뜻한 인심이 일궈낸 시비라고 생각한다”고 직접 마음 표현을 하셨다. 변방의 시인이랄까 할지라도 시를 쓰는 사람으로서 진한 고향 사랑이 진정 묻어나지 않을 수 없겠다.

오래 된 지역신문 기사를 찾아보았다. ‘향토문인 김재진 시인, 고향 남정면 사암리 마을에 시비 제막식’ 2014년 10월 14일 사진 속에 등장한 지역 문인들 이름을 직접 듣고자 선생에게 확인해보니 시비 제막식에

참여한 이장희 시인에 대한 회고를 깊이 간직하고 계셨다. 이미 작고하신 이장희 시인과의 추억을 떠올리는 선생의 음성이 고요한 물결 같다. 순수문학 서정문학을 꽃 피우던 동시대 한국문단을 회상하며 선생이 가장 존경하는 문단 선배를 꼽는다면 영덕 출신의 이장희 시인과 문단 선배로서 한 인간으로서 진정 용기를 북돋워 주신 서정주 시인을 첫 번째로 꼽겠노라 주저 없이 말씀하셨다.

2018년에 발행된 문단야화 [노변정담]에서 김재진 선생은 서정주 시인 편에서 이렇게 회고하고 있다. “가을 들국화가 온통 흐드러지게 만발할 무렵이면 불현듯이 떠오르는 미당 선생, 세기적인 불세출의 시성(詩聖)으로 자타가 공인하고 있다”

김재진 선생의 문단야화 [노변정담]은 이미 오래 전 지역신문과 잡지, 중앙지에 장기간 연재하였다. 작고한 문인들의 생전 일화들을 정직하게 진솔하게 피력해 놓았는데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전 생애를 통해 각고의 노력으로 수확한 문학사적 산물이라고 책머리에 그 감회를 표현해 놓으셨다. 또한 2021년에 펴낸 평론집 [구도의 시학]에서는 자신의 간절한 소망 때문에 허송세월 다 보내고 이제 와 미완의 평론집을 상재 하면서 인생의 험준한 가시밭길을 안심하고 무사히 통과하기 위해서 칠전팔기의 정신으로 혼신의 정진으로 거듭하고자 부단히 노력했다는 소회를 밝히고 있다.

선생께서는 지금까지 <한탄강에 달이 뜨면>외 7권의

시집을 출간하셨다. 시선집으로는 <하동포구>가 있고, 자전 에세이집으로 <세월을 엮어놓고>와 평론집 [구도의 시학]과 문단야화 [노변정담]이 있다. 3인 공동시집으로 <비학산 가는 길>이 최근에 출간되었다고 한다.

요즘 문단의 시 흐름에 대해서 선생께서 말하기를 현재 한국 문단은 서정(전통서정, 자연)을 노래 안 하고 잡다한 책만 쏟아져 나오는 시대라고 솔직한 비판의식으로 문단을 지적하셨다. 요즘도 시를 구상하는지 궁금하다 하니 건강상의 문제로 이제는 시 구상을 못하고 스스로 건강을 돌보는 중이라고 하신다. 담담한 선생의 목소리에 세월의 무상함이 느껴졌다.

천애고아 마냥 혼자 몸이 되어 생의 불우를 극복해가며 변방의 작은 오두막에서 살아가고 있는, 감히 독거노인으로 칭하기는 너무나 송구한 가난한 예술가에게 참을 수 없이 힘들고 어려웠던 점은 없으셨던가 하니 문인으로서의 경제활동이라고 솔직하게 서슴없이 말씀해주셨다. 과거 문청 시절에는 노숙자가 될 뻔한 인생을 글쟁이 친구들이 방을 얻어 주고 문학 동호인들이 자발적인 도움을 많이 베풀어 주었다고 한다.

새 울음소리에 잠 못 이루던 사암 마을의 청년 김재진을 상상해보며 귀촉도 시를 한번 읊어달라 하니 그 밤 고향에 대한 시를 하나 적어야겠다고 걱정하고 완성한 시였음을 슬쩍 귀뜸해 주셨다. 귀촉도를 쓰고 오랜 세월이 지나 간절한 시비 하나를 세우기 위해 문중 사람들이 돌을 구하러 그렇게 구석구석 다녔다고 한다.

결국 슬픈 사연을 품고 있는 돌 하나를 발견해서 문중 동생과 함께 이 사암리 마을로 업고 온 사연을 가슴에 고이 품고 살아가는 듯 하다.

김재진 시인이 청년 시절에 구상을 하고 오랜 퇴고를 거쳐 완성한 ‘귀촉도’라는 시의 전문을 옮겨보았다.

#### 귀촉도

내 고향 갈미봉에  
소쩍새 울면  
빈 달구지가가는 봄날의  
황사바람 일고  
어머니 젖줄같은  
석교천 흐르네

#### 노래의 날개 위에

선생께서는 시의 세계가 알고 싶어 청년 시절부터 부지런히 습작을 하였고 지방지이긴 하지만 자존심을 잃지 않고 다시 [해동문학]에 평론이 추천된 것은 큰 행운이 아닐 수 없었다, 라고 회고하였다.

지역민의 예술활동이나 평소 개인의 예술관에 대해 어찌 생각하는지 들려달라 하니 예술이란 작가 한 사람의 개인의 주관을 초월한 세계라고 생각하는 반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일반 대중인 지역민 모두가 한결같이 공감을 해야 되는 것으로 여겨야 되지 않는가

강조 하셨다.

선생은 내성적인 성격으로 말미암아 지역문화인들과 서로 정답게 교류를 하지 못한 나머지 생산적인 사회활동조차 등한시하였다고 고백하였다. 또한 선천적인 부끄러움 때문에 동무도 없이 홀로 외롭게 자란 탓이라 친한 선후배도 없다 거듭 말하셔서 심리적인 고립감에 힘들었던 적은 없으셨는지 안타까웠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노출되어 있고 혼자 사는 노인인구 증가 수치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독거 생활자로서 가장 위태로운 부분은 선생의 건강이 가장 큰 걱정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셨다.

지금 선생이 거주하고 있는 사암리 고향 집은 예전 초가삼간 오막살이에 지나지 않았노라시며 박정희대통령 정권 당시 군복무를 마쳤으나 다니던 대학에는 복학의 길이 막혀 도시 생활을 여기저기 전전하는 행색이 되어버렸다 한다. 그 환경의 불안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귀향해서 지금까지 문학과 더불어 생활인으로 살아가며 간단한 아침을 손수 지어 드시고 마을 경로당에서 하루하루의 여가를 이웃분들과 동고동락하며 지내고 계신다 하니 다른 부락보다 주민 간의 소통이 매우 양호하고 정답게 모여서 살고있는 곳이라 그 점은 만족하신다는 뜻이리라.

지금까지 작가로 살아오면서 작품으로 인한 경제활동이 현실 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큰 영향을 받으셨나 궁금해하니 우선 동호인들의 후원을 통해 대부분 판매가 아닌 기증으로 소비하고 있는 실정이라

경제적 도움은 전무하다 하셨다. 긴 인생 여로에서 예술가로서의 남루한 삶의 여운이 느껴진다.

우리 지역의 행정복지시스템이 현실적으로 전문예술인을 위한 제도권에 있다고 느끼시는지 예술인을 위한 복지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 진중하게 들어보고자 했는데 선생께서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에게 개별적으로 지원해주기보다 단체를 통해 지원함은 관계기관이 앞으로 고민해 주어야 할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며 솔직한 답을 주셨다.

지금까지 문학의 가치를 추구하는 한 사람으로 살면서 오로지 변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일까. 이 질문은 하지 못했다. 방황, 좌절, 슬픔, 상실... 이런 것들 앞에서도 결코 타협하지 않고 결코 변화되지 않은 순애보가 있다면 진정 무엇이었을까. 시였을까. 사랑이었을까. 종교였을까.

선생이 나고 자란 이 지역을 위해 마지막 소망 같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달라 했더니 자신이 사후 남겨질 유품에 대한 당부를 남겨주셨다. 웰다잉을 준비하는 자의 고해성사 같이 들렸다. 집에 있는 소장품 일부는 정리하고 현대문학 관계 작품들은 꼭 생가에 보존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 오셨다. 선생에게는 단 한 명의 가족조차 없기에 사후 일 처리까지 스스로 걱정하고 결정하는 이런 시간들이 참으로 멍멍했겠다. 자신이 나고 자란 흔적을 고스란히 고향 집에 기록하고 저장하고자 하는 의지는 독거노인이 아닌 작가주의에서 나온 마지막 자존감 이리라.

환한  
그늘

우리 삶의 사각지대는 도처에 있다. 청소년사각지대, 여성사각지대, 노인사각지대. 하나 더 덧붙이자면 전업 예술인 사각지대까지. 현실적으로 지역 복지시스템의 역할이 구석구석 손 닿지 않을 수 있는 일이다.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화를 누리면서 결혼은 하지 않으려는 비혼주의자가 늘어난다. 이 현상은 미래 독거노인이 더 증가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이기도 한 것이다.

나는 요즘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자주 한다. 그러나, 어떻게 죽을 것인지에 대한 생각은 아직 해보지 못했다. 웰다잉, 이제 우리는 아름다운 죽음도 스스로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

사암리 김재진선생을 통해 시대 정신을 문학 읽이로 한 세월 엮어간 노익장의 삶을 통해 가족이나 친구간의 상호작용이 적어지면서 외로운 일상 생활의 1인 가구 어르신들의 한 단면도 함께 들여다보게 되었다.

홀로 사는 어르신의 신체의 건강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은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적 교류의 기회 제공이나 경제적 지원에 대한 지역 복지 시스템의 절실함으로 읽혀졌다.

우리 사회는 인구감소에 이미 급격한 고령화 시대에 진입하였다. 통계청에 의하면 2052년에는 우리나라

가구의 절반 이상이 노년 인구가 된다고 한다. 이에 따른 노인 문제인 고독사로 인한 사회 현상을 거듭 직시하며 경제적 지원, 주거지원, 건강지원 관련 사회적 합의와 규범이 강하게 요구되면서 노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다양한 치유프로그램 또한 절실함을 느낀다.

노인 대상의 다양한 치유복지서비스는 노인의 정신건강은 물론이고 신체적 건강을 예방하게 하는 사회적 차원의 부양으로 경제적 부담, 국가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미래 돌봄 안전망 구축의 대응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마을 앞에 다시 섰다. 배롱나무 붉은 꽃그늘 아래  
뜨거운 여름을 온몸으로 다 받아적고 있는 시비 하나를  
물끄러미 들여다보았다.\*



강 같은 평화, 바다 같은 사랑으로

신현량

“나 같은 늙은이 이야기를 들어 뭐할라고.”

코스모스를 연상케 하는 남영숙 여사가 수줍은 미소로 손사레를 쳤다. 집에 오는 길에 배롱나무꽃이 피어있더라는 말을 건네니 그저 고개만 끄덕인다.

남영숙 여사의 기억이 점점 멀어지는 중이다. 지금은 어디쯤 머물러 있을까. 두어달 전 찾아뵈었을 때보다 더 어릴 적 이야기를 신나게 들려주신다.

“저 기억하세요? 전에 찾아뵈었는데.”

“몰라.”

해맑게 웃으시며 모른다고 답하신다.

“언제 태어나셨는지 기억하세요?”

“몰라.”

기억하려고 애쓰다가 모른다고 답할 때는 살랑살랑 손까지 흔들며 보이며 웃으신다. 보드랍고 흰 목화솜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 듯 하다. 어린 모습 뒤로 웃고 있는 조그마한 눈에 그녀가 살아온 삶이 눈빛에 어린다. 강하고 당당한 모습이다.

올해 85세(39년생)이신 남영숙 여사는 모태신앙을 갖고 태어나셨다. 부친은 축산면 칠성리에 있는 충성교회와 인연이 깊다. 남영숙 여사의 기억에 오류가 있을 듯하여 충성교회 사모님이신 이경희 보호사의 도움을 받아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경희 보호사는 진료보건소장으로 퇴직 후 홀로 있는 남영숙 여사를 돌보기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8월부터 돌봄을 시작하고 있었다.

남영숙 여사는 1939년 추운 겨울, 포항시 송라면 화진리에서 태어났다. 부친 남병세의 고향은 축산면

칠성리였으나 송라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송라도의 감독으로 취업하여 대부분 화진리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남영숙 여사는 아버지가 도로 감독이어서 남부럽지 않게 살았다고 기억한다. 모친 윤순악 여사와의 사이에 2남 3녀를 두었는데 남영숙 여사는 셋째딸이었다. 이후 아버지의 재가로 1남 1녀의 동생이 있다.

큰오빠는 결혼 후 돌아가셨고 작은 오빠는 6.25 전쟁 중에 돌아가신 걸로 기억한다. 위로 두 언니는 예쁘고 여성스러운 성격이었으나 남영숙 여사는 호기심이 많았고 활달해서 주변의 부러움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언니들은 큰 눈과 뚜렷한 이목구비를 가진 서구형 외모였다. 남영숙 여사는 선이 가냘픈 외모와 달리 적극적인 성격이라 언니들이 질투했다고 전한다.

남영숙 여사는 기억의 흔적이 있으나 늘 화진초등학교를 다니던 무렵으로 귀결된다. 초등학교를 당시에는 국민학교라고 불렀는데 지금도 여사는 국민학교라고 부른다.

“화진리는 100여호 넘는 큰 마을이었어. 학교에서 운동회를 하면 온 마을이 시끌벅적했지. 동네마다 체육대회를 했는데 우리 마을은 늘 일등이었어. 달리기도 일등, 씨름도 일등, 줄다리기도 일등, 일등을 놓치는 법이 없었지.”

“학교 다닐 때 학용품 사신 적은 없었겠네요.”

“그럼 그럼. 난 달리기를 잘해서 늘 우수상을 탔지. 학용품은 산 적이 없어. 양말, 목도리도 상으로 받았어. 학교 다닐 때 뭘 사서 간 적이 없어. 공부도 일등,

달리기도 일등. 상품으로 받아서 쓰고도 남았지. 우리 동네에 여자 동갑이 13명이 있었는데 나를 이긴 친구는 한 명도 없었어. 공부도 일등. 달리기도 일등.”

엄지손가락을 추켜세우고 후렴처럼 일등이라는 말을 되풀이하신다. 어디까지가 여사의 옳은 기억일까. 당시 송라도는 1896년(고종 33) 1월 대한제국 칙령 제9호 ‘각 역 찰방 및 역속 폐지에 관한 건’에 따라 폐지되었으나 영덕을 지나 영해에 이르는 북쪽으로 이어진 구간은 7번 국도가 통과하니 그녀의 기억에 있는 화진리의 추억은 얼추 맞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때의 기억만 또렷한 걸로 봐서 남영숙 여사의 가장 즐거웠던 때가 그 무렵이 아니었을까 유추해 본다.

남영숙 여사는 작은 오빠 이야기를 하면서 표정이 밝아졌다.

“작은 오빠는 인물 좋고 운동 잘하고 공부 잘했지. 포항고를 다녔는데 전쟁 때 일찍 돌아가셨어.”

남영숙 여사의 감정이 널뛰듯 좋았다가 갑자기 우울해졌다. 작은 오빠의 죽음이 얼마 전의 일인 것처럼 가슴 아파하셨다. 여사는 6.25 전쟁이 났을 때 멀리 가지 못하고 인근 산속으로 피난했단다. 마을이 없는 깊은 산속에 숨어 있었는데 아버지의 영향력으로 고생은 크게 하지 않았단다. 하지만 오빠를 잃고 마음 둘 데 없어진 어머니가 힘들어했단다.

여사는 포항여중에 입학했으나 졸업하지 못했다. 이유는 밝히지 않았으나 당시 여자에게 제약이 많은 시기라 먼 거리를 혼자 학교에 다니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영숙 여사의 도전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길을 걸었던 것으로 보인다. 선교사의 도움으로 경안고등성경학교에 입학했다. 경안고등성경학교는 일제에 의해 안동성경학교가 폐원된 후 법상동 예배당(안동교회) 하층에 설립한 학교이다. 1954년에 선교사회의 도움으로 기숙사를 무상으로 공급받아 학생들이 수학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이 무렵 남영숙 여사도 입학한 것으로 보인다. 일년은 중학교 과정을 배우고 3년동안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했다. 4년을 다녔다고 강조하셨다. 경안고등성경학교는 국어, 영어, 동서양사, 음악 외에 신구약 성경, 구약사기, 강도학등을 가르쳤다.

남영숙 여사는 남편 강재준을 만나기까지 과외를 했다고 말씀하셨다. 27세의 늦은 나이에 혼인을 할 때까지 가르치는 일이 재미있었다. 기억이 사라지고 있는 중에도 배우고 가르치는 일만 생각하면 기운이 솟고 웃음이 난단다.

“다시 태어난다면 선생이 되고 싶어. 지금도 할 수만 있다면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은데 이젠 안돼. 나이도 많고 아는 것도 없고.”

남영숙 여사에게 가르치는 일이란 무엇일까. 다시 태어나면 선교사가 되고 싶을 거라 예상했는데 뜻밖에도 선생님이 되고 싶단다. 결혼 후 생활고를 겪으며 방문교사를 해서 자녀들을 대학까지 공부시켰다. 옆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듣던 이경희 보호사는 몇 년 전까지 성경구절을 영어로 외우셔서 발표하셨다고 자랑한다.

“권사님, 시편 23장 영어로 발표하신 거 기억하세요?”  
“몰라.”

수줍은 미소로 고개를 흔든다.

이경희 보호사가 시편의 첫 장을 외우자 남영숙 여사는 바로 받아서 줄줄 외워나간다. 본능적으로 기억하는 것이다.

“여호와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쉼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남영숙 여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잘 살았단다. 하나님이 계시니 여사가 있었고 우리 모두가 있는 거라고. 이제 하나님 품에 간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안하단다. 남영숙 여사의 손을 쓰다듬고 있는 이경희 보호사에게 웃으며 말을 건넨다.

“그동안 내 참 잘 살았지?”

이경희 보호사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그럼 우리 권사님, 하나님 안에서 아주 열심히 사셨지.”

남영숙 여사는 남편 강재준 사이에 딸을 셋 낳았다. 남편은 북한에 어머니를 홀로 두고 아버지 손을 잡고 전쟁 무렵 남하했다. 남편은 평생 어머니를 그리워했고 가슴에 불덩이 같은 한을 갖고 있었다. 그 한이 불쑥불쑥 올라와 옥하는 기질이 생겼단다. 화통하고 재미있고 불같이 급했다고 이경희 보호사는 기억한다.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남영숙 여사의 기억에 남편은 무능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남아 있는 것이 안타깝단다. 여사는 딸인 목화, 성화, 인화가 불같은 아버지를 닮지

않고 자신을 닮아서 다행이라고 말씀하셨다. 선생을 닮아 외모도 예쁘고 공부도 잘했단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미소를 지었다. 남편이 마음에 안드는데 왜 결혼하셨느냐는 물음에 살포시 웃으며 대답하신다.

“잘 생겼어. 인물만 봤지.”

남녀가 만나 혼인하여 평생을 함께 했는데 나쁜 일만 있었겠는가. 남영숙 여사의 기억에 남편의 어떤 모습이 각인되었는지 모르겠지만 5년 전에 사별한 남편을 50대에 헤어진 걸로 기억하고 말도 못 꺼내게 하신다. 남편이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일찍 돌아가셔서 여사 혼자 딸을 키워내느라 안해본 일이 없으시란다. 고생만 시킨 남편을 생각하고 싶지 않단다. 그만큼 남편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미우나 고우나 남편에게 의지했던 한평생의 반어로 먼저 간 남편을 나쁘게 기억하며 지금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닐지. 남영숙 여사가 배롱꽃처럼 화사하게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은 긍정에서 비롯되는 듯도 하다.

바쁜 딸들 대신 손주들을 남편과 잘 키워냈다. 막내 인화의 아들을 지금 살고 있는 대곡리에서 성장시킨 후 서울로 보냈다. 이경희 보호사는 노부부가 손주를 가운데 두고 양손을 꼭 잡고 다닌 것과 손주가 먹고 싶어하는 것이라면 천 리를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 사오더라는 말을 전했다. 애지중지 키웠던 손주가 서울로 가고 남편이 세상을 뜨면서 기억이 점점 퇴색되어 갔다.

남영숙 여사가 영덕으로 온 것은 둘째 딸네 자식들을 키워준 후였다. 둘째 딸이 살던 거창에서 부친의 고향인 축산면으로 이주했다. 축산면 칠성리는 영양남씨 집성촌이었다. 아직도 영양남씨 재실인 화재(花齋)와 육영루가 남아있고 부친이 남긴 땅이 있다. 총성교회 부지도 부친의 땅이었다. 남영숙 선생은 아버지의 고향에 와서 제일 먼저 교회를 찾았다. 부친 때부터 이어진 총성교회와의 인연이 다시 시작되었다.

대곡리에 직접 집을 짓고 복숭아밭을 일궜다. 이때도 남편은 손도 까딱 안하더라고 전했으나 사실과 다른 모양이다. 집 뒤편에 우물 판 이야기는 몇 번이나 반복하셨다. 직접 마당을 파서 지하수가 나왔는데 수질 검사를 했더니 일급수였다고 자랑하신다. 수도꼭지만 열면 물이 팔팔 나오도록 연결했으니 꼭 물맛을 보고 가란다. 오늘같이 더운 여름에 마시면 냉장고물보다 훨씬 시원할거란다.

남영숙 여사가 대곡리에 정착하여 일궈낸 일은 많았다. 교회 일에 게을리하지 않고 남권사님, 강집사님으로 매주 예배를 보면서 손주를 잘 키워 서울로 보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친부모보다 더 애뜻하게 돌봐주시는 것만 봐도 남영숙 여사가 하신 일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복숭아밭을 일궈 하루도 빠짐없이 농사를 지었고 손수 미장을 하고 기둥을 올려 집을 지었다.

총성교회를 새로 지을 때 직접 벽돌도 만들어 올렸단다.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아닌지 중요하지 않다. 지금 남영숙 여사가 말하는 모든 것은 그녀 기억에 분명

있었던 일이고 모두 진심이다.

다시 태어난다면 가르치는 일을 하겠다는 남영숙 여사가 아닌가.

그녀가 곱게 주름진 손으로 노트를 보여주신다. 영어가 빼곡히 적힌 노트였다. 성경책을 영어로 옮겨 적으셨단다. 그 옆으로 부끄러운 듯 일어가 가득 적힌 노트도 밀어 놓는다.

영한 성경책은 한쪽에는 한글, 다른 편에는 영어로 적힌 성경책이다. 성경책을 펼치자 선생은 영어를 줄줄 읽어내려간다. 신나서 영어단어가 적힌 노트도 읽어주신다. 몇해 전만 해도 공부할 때가 가장 즐겁고 행복했는데 이제 몸이 좋지 않아 책 읽기가 어렵다고 하시면서도 노트를 내려놓지 않는다. 일어를 어떻게 배웠냐고 물으니 일제강점기를 보냈으니 일어를 할 줄 안다고 자신 있게 일한 성경책도 읽으신다.

남영숙 여사는 힘들 때마다 성경책을 읽고 필사했다. 어느 순간, 기억이 현재에 머물지 않고 자꾸만 자신의 세계 안에 가두고 있는데도 알지 못했다. 이경희 보호사는 그것이 여사의 한 때문이라고 말한다. 여든다섯 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응어리가 가슴에 맺혔을까. 일제강점기, 6.25전쟁을 거치며 굴곡진 역사와 함께 이 땅에 여자로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경희 보호사는 여사의 마음에 남아있는 한을 다 꺼내지 못하고 하나님 품으로 갈 것이 걱정되어 요양보호사가 되었다. 가슴에 품고 차마 하지 못했던 말을 하루에 하나씩 꺼내놓도록 연습을 시키고 있다고. 간호사로 평생 공직에 있던 분이 방문요양보호사가

되기 싫지 않았을 텐데 싶은 마음에 필자의 눈도 젖어 들었다.

세상은 따뜻하다. 종교의 힘을 넘어서 이웃의 힘이 대단하다.

“딸이 세 명이나 있는데 딸들에게 가고 싶지 않으세요?”

남영숙 여사는 단호한 눈빛으로 고개를 저었다.

“여기가 아버지 고향이고 내 고향인데 가긴 어딜 가. 내사 여기가 좋다.”

고집스럽던 눈빛은 어디로 갔는지 다시 해사한 웃음으로 입을 오물거리며 냉장고에서 두유를 찾아 마신다. 천진난만한 어린아이 같다.

남영숙 여사의 삶을 듣다 보니 살아있는 역사였다. 여자의 힘으로 세상과 맞서 잠시도 쉬지 않고 달려온 근현대 여성사였다. 힘든 일을 헤치며 쉬지 않고 달려온 남영숙 여사의 말 한마디는 보석이었고 도서관의 책이었다. 고생 끝내고 이제 좀 쉬만하니 기억이 말썽이다. 모든 일이 그렇지 않은가.

노트에 영어로 적은 시편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옮겨본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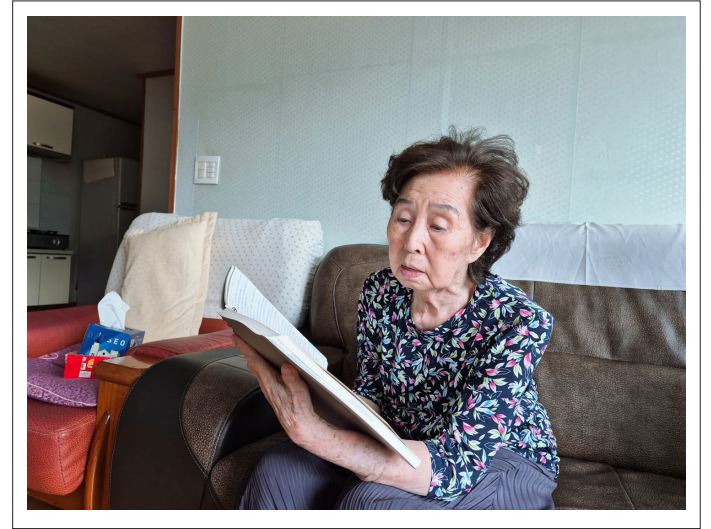
그녀의 집이 혼자 있어도 혼자 같지 않은 포근함이 느껴진 건 하루도 빠짐없이 늘 함께 걱정해주는 이웃이

있고 자주 안부를 묻는 자녀들이 있으니 하나님 품 안에서 내일을 걱정하지 않기 때문인 걸 알겠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샘 솟는 기쁨.”

여사의 노랫소리가 점점 커진다. 작은 체구인 남영숙 여사와의 시간이 유독 평화로웠던 건 믿음, 소망, 사랑 안에 다정한 이웃이 있기 때문이다. 이경희 보호사와 같은 분을 만남으로 강 같은 평화와 바다 같은 사랑을 지켜낼 수 있었다. 모든 사람을 참 좋은 사람으로 기억하는 남영숙 여사의 마음도 따뜻하기 때문인 걸 알겠다.

인터뷰를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창문 너머 하얀 손을 흔드는 여사가 보인다. 여사가 작은 개울 너머 손수 지은 집에서 해맑게 오래도록 웃을 수 있도록 시나브로 지켜주고 싶다.



## 작가의 말

1  
병곡면 덕천리

### 염밭들의 노래

이 이야기는 병곡면 덕천리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든 동화입니다. 덕천리에 있는 염밭들은 소금을 만들던 곳이고 마을 옆을 흐르는 송천강에는 재첩이 많았다고 합니다. 덕천리는 홍수가 나면 연꽃처럼 떠서 재해를 피해 연꽃형이라 했답니다. 아이들의 놀이터였던 서 있는 바위와 누워서 자라는 소나무의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덕천리 어르신들이 어린 시절 마을에서 뛰어놀며 꿈을 펼친 이야기를 동화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2  
창수면 신기1리

### 물같이 바람같이

이 이야기는 창수면 신기1리 반송지에 내려오는 전설을 재구성하여 만든 동화입니다.

반송지는 고려시대 고승인 나옹선사가 친구의 죽음을 슬퍼하며 지팡이를 거꾸로 꽂고 출가한 데서 유래합니다. 거꾸로 꽂은 지팡이에서 움이 트고 낙락장송이 되어 625년을 살았습니다.

현재 반송정이란 정자를 지어 나옹선사를 기리고 있으며 창수면에서 나옹이, 까랑이, 억울이 캐릭터를 만들어 나옹선사 이야기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3  
영해면 원구1리

### War of the Dragons

이 이야기는 영해면 원구1리에 내려오는 용당샘 이야기를 재구성한 동화입니다. 아득히 먼 옛날 용당샘에 살던 황룡과 오십천에 살던 청룡이 싸운 이야기로 용당샘은 물을 관장하는 용이 머물렀던 신선한 공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원구 1리는 영양남씨, 무안박씨, 대흥백씨의 3성이 서로 경쟁과 화합을 통해 오백년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마을입니다.

4  
축산면 경정2리

### 차유마을을 만들어 온 오색 이야기

이 이야기는 영덕군 축산면 경정2리 차유마을 어르신들이 들려주신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경정2리를 차유마을로 부르게 된 이유와 마을을 개척한 분들의 이야기, 영덕대게 원조 마을의 유래와 영덕대게축제 기원제에 대한 이야기, 마을에 있는 기 받기 좋은 명당에 관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  
지품면 용덕1리

### 구룡기九龍基와 용덕분교 이야기

이 이야기는 영덕군 지품면 용덕1리 구룡기 마을 어르신들이 들려주신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동화입니다. 용덕리는 구룡동(九龍洞)의 용(龍)자와 대덕동(大德洞)의 덕(德)자를 따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마을 뒷쪽 하천에 있는 구룡폭포에 사는 아홉 마리 용들에 대한 이야기와 용덕분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꼭 기록해 두자는 말씀에 따라 만들었습니다.

6  
영덕읍 구미리

### 핑크 할매 클럽

이 이야기는 1980년 이후, 우리나라 농촌 부흥을 위해 일어난 새마을 운동의 한 일환으로서 영덕읍 구미리 부녀회의 활동 사례를 듣고 동화로 꾸몄다.

그 당시 온 국민이 더 나은 생활을 위해 단결하여 발전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농촌부흥에 앞장섰던 어른들의 희생정신과 애乡심을 소개하고 싶은 내용이다.

지금도 구미리 마을 단결심은 변함 없으며 그 숭고한 정신으로 빛고 있는 복숭아 맛은 단연 자랑거리다. 마을 구석구석을 살펴본 느낌은 무척 고귀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7

강구면 강구리

### 강구항 속에 살아있는 삶의 현장 이야기

이 이야기는 영덕군 강구면 강구리에 있는 강구항에 대한 이야기를 강구경로당에서 마을 어르신들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강구항은 일제 강점기부터 개발되어 지금까지 발달해 온 역사와 강구항에서 어로작업을 하며 살아오신 선장들의 경험담입니다.

8

달산면 덕산2리

### 니들, 덕산 손두부 맛 다 알지?

이 이야기는 영덕군 달산면 덕산 2리에 살고 있는 김분행 할머니 덕 부엌에 아직 잘 보존된 손두부 만들던 여러 가지 도구가 궁금하여 살펴보며 들은 이야기를 각색하였다.

타지에서 40대에 덕산으로 귀농하여 생활력이 강했던 김분행 할머니가 15년간 만든 손두부는 영덕 인근의 군까지 그 맛을 인정받아 인기가 대단했던 상품이었다.

이 손두부로 인하여 마을을 알리게 된 먹거리가 인정 받았으며, 옛 먹거리의 생산 과정도 여러분들에게 알리게 되어 아주 유익한 마을 소개를 하게 되었다.

9

남정면 남정리(우곡리)

### 할미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영덕군 남정면 남정리에서는 할머니들을 위해 영덕군 노인회의 지원으로 2016년부터 지도 선생님을 청하여 4년 동안 문해교실을 운영하였다.

그 당시 학생들의 평균 나이는 83세였지만 학구열이 대단하여 지도 선생님은 평생 잊을 수 없는 학생들로 기억하고 있다.

80여 년 만에 자신의 이름을 쓸 수 있던 날의 감격을 전해 주는 할머니들 자신감 있던 표정을 필자도 잊을 수 없다.

자신들이 공부했던 공책을 소중히 간직하며 새로운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전하게 되어 무척 뜻깊은 마을 순례길이었다.

무척 아름다운 할미꽃이 만발한 남정리였다.



# 영덕옛이야기 모음집 <동고동락 3>

영덕의 옛이야기와 어르신들의 이야기

## 인터뷰·작품

시골길따라

(신현량, 이영숙, 최정연,  
최하탁)

## 도움주신분들

9개 읍·면 사무소,  
각 마을 이장님,  
박병모님 등.

## 그림

고래의 꿈

(김건아, 김다윤, 김서현,  
김시연, 김원재, 김윤희,  
김지현, 김현준, 박서진,  
박소윤, 윤다정, 최신지,  
최형진, 한지원)

## 주최·주관

경상북도, 영덕군  
(재)영덕문화관광재단

## 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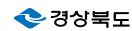
영덕복지재단

## 발행처

(재)영덕문화관광재단 |  
발행일 2024년 12월 11일

## 편집·디자인

아래아 스튜디오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본 출간물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영덕문화관광재단에 있으며 책에 실린 글과 이미지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